

93

생 협 강 좌

전환의 시대, 새로운 가치관과 바람직한 생활양식의 모색

협 동 조 합 운 동 』

㉠ 일시 : 93년 11월 3일 ~ 11월 19일

㉡ 장소 : 이화여자대학 가정관 216호

㉢ 주최 : 대학생협연합회(338 - 2147), 이대 생활협동조합

㉣ 후원 :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3 생협강좌를 개최하며

2

I 부

21세기 사회와 협동조합운동	5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망	8
대학생활협동조합	21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27
신용협동조합 소개	31
문명의 전환과 우리 농의 장래	36
종적 사회에서 횡적 사회로	59

II 부

협동조합론	65
환경운동에서의 협동조합운동	73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80
한살림 협동조합	90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물결	
-일본 생활협동조합을 돌아보며	98
생협운동의 발전 방향과 과제	104

'93 생협강좌를 개최하며

전환의 시대,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모색 생활협동조합운동

지금의 시기를 전환의 시대라 부릅니다. 기존에 우리를 지배해왔던 이데올로기에 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동경하던 사회주의도 우리를 짓누르던 군부독재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일순 갈팡질팡 하지만 우리에게 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동구 사회주의 몰락이 바로 자본주의의 승리를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며 문민정부의 등장이 우리현대사의 모순들을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노동자와 자본가사이에는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며 민족간의 갈등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진보라고 믿 고 치달려온 우리의 산업문명에 의해 파생된 생태 파괴문제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피부 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상황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과 해결방 법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할때라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운동도 그 새로운 모색 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운동은 18세기 이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하에 공존하면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생활양식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과 성과들을 남기며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뇌리에서 떠 난 협동조합운동이, 우리가 전환의 시대라 부르는 지금 시기에 중요한 관심사의 하 나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를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협동조합이 인류가 추구해온 소유의 문제를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협동조합적 소유방식을 간단히 이야기 한다면 자본주의 의 사적소유, 사회주의의 국가적 소유와 대비하여 공동점유에 기초한 개인소유라 말 할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의 비효율성 자본주의의 냉혹한 이윤추구 부분을 극복 할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사적소유의 폐해는 다아는 바이고 전 사회적 소유라는 것도 최근에 사회주의 실패로 살펴볼때,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경영에 만 참가가 노동자들에게 의욕보다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여 동구권에서의 노동

자들의 경영참여에 대한 무관심, 회피현상으로 나타남을 본다. 또 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은 집단(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다. 물론 모든 체제가 민주적인 운영을 애기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협동조합은 그 소유의 특성에서 평등이라는 부분이 자본의 크기에 좌우하는것이 아니다.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자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1인1표라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어진다.

두번째로는 협동조합이 권력의 인간화를 이룰수 있는 반 관료제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를 이루기 위한 한 방법으로 민주집중제라는 방법을 선호해왔다. 그 결과 횡적 연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주원리가 종적구조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그 사상이 중앙에 집중되는것을 지양하고 힘의 분산을 그 기본원리로 한다. 자치와 지역공동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중앙집권, 관료적이라는 개념에 반대한다. 그렇기에 조직건설과 운영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타성에 젖은 관료제의 위험을 방지할수 있고 공동체와 함께 인간 개개인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현사회속에 속해있으면서 그 사회의 모순을 일상적인 생활속에 풀어가는데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모순 해결방식도 이슈나 구호 중심이 아닌 실제 대안마련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는것 또한 타운동에 비해 현재의 모순을 해결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운동이 갖는 여러가지 유의미성들이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강좌가 협동조합운동이 갖는 보다 큰 의미를 밝혀줄수 있는 시발점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롭게 재해석된 협동조합운동이 삶을 진지하게 풀어 가려는 여러 동지들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해줄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I 부

강좌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여기에 실린 자료들은 이번 강좌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원래는 모든 강사들의 강의안을 실고자 하였으나 강사들의 사정으로 인해 그러지 못했다. '21세기 사회와 협동조합운동(정병호)'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망(고현석)' '대학생활협동조합(박홍섭)'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 노동자생산 협동조합(김성오)'는 이번 강의를 위해 강사들이 써 주신 강의안이고, '종적사회에서 횡적사회로 (이남곡)'은 서원과 연대 4호에 실렸던 강사의 글을 다시 게재한 것인데 이번 강좌를 듣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신협에 대한 소개'는 신협중앙회의 홍보물을 중심으로 대학생협동조합 연합 건준위에서 편집한 것이고, '문명의 전환과 우리 농의 장래'는 농촌문제에 관련한 자료중에 10월 30일 한살림 공동체에서 주최한 '바른 농업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조양부 선생님이 발제하신 것을 그대로 다시 실었다. 비록 강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하더라도 강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혜란 선생님의 글은 2부에 '생협운동의 발전방향과 과제'(서혜란)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1세기의 사회와 협동조합운동

정병호

목 차

- 1. 문제의 제기
- 2. 협동조합의 이념과 기능
- 3. 21세기 사회와 협동조합의 대응

1.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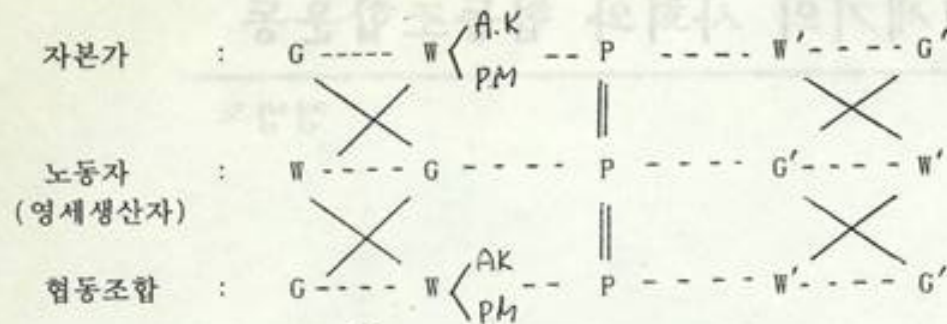
- 1) 자본주의→이윤추구→경쟁(innovation)→찬물사위(도산의 자유)→빈부 대립
 - 부자 - 사회적 상속 (social inheritance)
 - 빈자 - 빈곤의 상속 (aiffevential oppotunity)
 - 빈자의 자각 (즉자에서 대자로) → 협동경제의 모색
- 2) 탈현대의 지형 (Iervain)
 - 자본주의 변화
 - 사회주의 변화
 - pastiche적 모색시대 - 무엇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가 ?

2. 협동조합의 이념과 기능

- 1) 협동조합의 이념
 - 로버트 오웬(Robert owen) 의 신사회관
 - 톰슨(Thompson)의 노동전수익권론
 - 푸리에(Fourier)의 정념인력론 (개체와 전체의 조화)
 - 라셀(Lassalle)의 임금철회설과 생산조합
 - 스타딩게르(Staudinger)의 "Kant in Marx"의 구매자 카르텔
 - 킹(King)의 기독교적 박애주의 등
 - 자본주의 비판 - 소외극복
 - 인본주의 (착취로부터 해방) - Humanism

- 개인과 전체의 조화
- 소유와 권력의 민주화 지향

2) 협동조합의 기능



위 표에서 자본가가 자본순환의 주체로 되었을 때 노동자와 대립관계에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자본순환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조합원이 공동(협동)으로 대체한다.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구매, 공동구제, 공동금융, 공동이용등으로

3. 21세기의 사회와 협동조합의 대응

자본주의 변화와 사회주의 변화 - 니체와 Derrida의 반체계론 - 즉 "큰 이야기로부터" "작은 이야기"로 전환필요

- 상호 실험성 (inter- textuality) 필요
- 상호 질의성 (inter- rogation) 필요

"자기류 왕의 머리를 베어버릴 필요가 있다."

(Post- Modernism과 Post-Marxism 그리고 분석적 Marxism 등의 메시지를 독해할 필요가 있다.)

○ ICA를 중심으로 한 대응전략

협동조합의 변질 - (영리기업 되기)에 대한 대응

- 1960년 21차 ICA 대회에서
「변화하는 세계협동조합」을 주제로
- 1966년 23차 ICA 대회에서 원칙개정
- 1969년 24차 ICA 대회에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주제로 조합원 참여 방법 모색
- 1980년 27차 대회 때 레이드로우의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보고 통해 "이념적 위기" 제기
- 1988년 29차 ICA 대회때 회장 Marcus의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 보고
- 1988년 ICA 대회에서, 1992년 ICA 동경대회에 보고할 "기본적 가치"를 비크(Book)로 하여 작성케 위촉

- 1992년 30차 ICA 대회에서 「기본적 가치」 채택

○ ICA 30차 대회 (동경)에서 채택한 기본적 가치

- 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경제활동
- ② 참가민주주의
- ③ 인적자원 개발
- ④ 사회적 책임
- ⑤ 국내및 국제적 협동

○ 21세기의 사회적 환경

- ① 다국적 기업의 경쟁격화 - World system
- ② 경쟁을 빙자한 두 국민 정책 (two nations project) 추구강화
- ③ 환경파괴와 인명경시
- ④ 소비경제학 독세 (vs. 사용가치)- 대중조작
- ⑤ 물신성 중대 ("권력은 소유에 따른다")

○ 우리의 대안

- ① 반개인, 반집단의 협동경제 운영
- ② 소집단 중심의 협동조직
- ③ 생산 민주주의 실천 (주식회사의 사회화 등, 몬드라곤 사례 참조)
- ④ 조직과 운영의 민주화 (소유와 권력의 주체로서)
- ⑤ 국가, 기업, 협동사회 기능 배분
- ⑥ 개성의 회복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망

고현석

목 차

1.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전제
2. 한국협동조합의 시원
3. 농업협동조합의 성립과정
4. 제도권 협동조합
5. 민간 협동조합
6. 80년대까지의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특성
7.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전망을 위한 예비지식
8.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전망

참고 / 도표1) 협동조합의 종류
 도표2) 협동조합의 3가지 큰 흐름
 도표3) 협동조합의 의미와 기능
 도표4) 한국농협의 성립과 변천
 도표5) 민주화 이전 한국농협의 성격 *역할 *평가
 도표6) 민주화 이전 민주농협의 성격에서 야기되는 근본문제
 도표7) 한국농협의 농협개발기여 필요성 *당위성 *가능성

1. 한국의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전제 : 협동조합의 정의

(1) 정의의 다양성

1) 사회적 현상

2) 기준의 교차 : 이념적 지향 (자본주의, 사회주의, 협동조합주의).

이론적 가능성, 실천적 성과

3) 역사성 : 시대와 장소에 따르는 차이

4) 종류의 다양성

5) 체제 적용의 유연성, 범용성의 반증

(2) 실용적 기준 : 협동조합원칙

1) 아무리 다양하고 범용성이 있더라도 '협동조합'이라는 조직(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가져야 협동조합임

2) 로치데일 원칙

3) ICA 원칙

(3) 역사적 실체 : 자본주의 (산업자본의 지배)에서 생성

(4) 협동조합 원칙과 역사성을 고려한 정의

1) 주체 : 경제적 약자

2) 목적 : 자본의 지배에 대항 (경제적 사회적 복지 향상)

3) 방법 : 자본의 지배를 배제 (인간에 의한 지배)

① 민주적 통제 : 출자액 비례 투표권 배제 (비록 정부 통제 협동조합도 민주적 통제의 외형유지 : 민주화 이전 한국 농협, 사회주의 국가의 협동조합)

② 이윤추구의 배제 : 출자자=이용자 (일치의 원칙), 자본이자 제한, 이용고 배당 (시가판매라는 실무상의 편의와 원가주의 즉 실비주의라고 하는 협동조합이념의 조화)

2. 한국 협동조합의 시원

(1) 한국 협동조합 운동사의 시기구분

1) 전통적 협동조직

2) 일제하의 관제조합과 민간협동조합운동

3) 해방후의 협동조합운동

(2) 전통적 협동조직

1) 주례, 품앗이, 계, 향약, (사창)

2) 자본주의 이전, 범세계적

3) 그러나 우리 전통조직의 특성 → 우리 협동조합운동의 정신적 바탕 + 우리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상 특성 (?)

(3) 일제하의 관제조합

1) 금융조합 (1907~), 산업조합 (1926~1941), 계통농회 (1926~), (식산계 : 1935~)

2) 농민을 구성원으로 구관사업등 협동조합적 사업 공통

3) 일제의 통치기구 구성요소 (일본자본의 조선경제 지배도구로 기능) :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근대성과 식민성, 회유(시혜와 통제)

4) 산업조합의 협동조합성 논란 : 한국협동조합의 효시?

① 총독부 재무부와 식산국의 오랜 갈등

② 삼일운동, 사회주의 운동, 협동조합운동의 대응책

- ③ 일본의 산업조합과 상이, 그러나 호응도 높았음
 ④ 농촌 수탈기관으로 일제가 금융조합 선호 특혜로 해산
 (4) 일제하의 민간협동조합운동

1) 여명기

- ① 경성소비조합 (1920), 목포소비조합 (1920), 조선노동공제회 소비조합 (1921) 등 1 또는 2 군에 1개별로 소비조합 설립
 ② 1,2년안에 파산 또는 개인경영화

2) 발아기

- ① 동경유학생 중심의 協同組合運動社 (1926)에 의한 합창협동조합 (1927) 등 10여개 조합 설립과 중앙기구 (연합체)로서 협동조합 경리조합의 설립 (1928)
 ② 천도교의 朝鮮農民社 (1925)에 의한 알선부 (1926) 및 군농민사의 알선부 활동
 ③ 기독교의 농촌 협동조합운동이 서울기독교청년회 중심의 8개 농촌 협동조합 조직 (1926년 전후)으로 비롯됨.

3) 발전기

- ① 천도교의 조선농민사 알선부 및 군농민사의 알선부를 각각 조선 농민공생조합과 농민공생조합으로 개편 (1931), 1932.6.28 현재 181조합에 조합원 38천명중 105조합이 조선농민공생조합에 가입), 같은 해에 평양고무공장 설립, 조선농민공생조합을 농민공생조합중앙회로 개편 (1933)
 ② 기독교의 농촌협동조합운동이 지방기독교청년회의 부락단위 협동조합 조직운동으로 확산되어 전성기에는 조합수가 720에 달함
 ③ 협동조합운동사, 조선농민사, 기독교계의 농촌협동조합운동을 통상 일제하의 민간협동조합운동이라 부르는바, 그 밖에도 무계통의 협동조합이 다수 조직되어, 1930년을 전후로 급속히 확산됨.
 ④ 동아일보 조사(1932) 공생조합 제외 97 : 합상훈 (1933) 공생조합 131 포함 290
 ⑤ 협동조합의 간판 아래 실제상 자본지배의 협동조합이 많은 반면에, 일제탄압을 피하여 협동상회 등 다른 이름의 협동조합 (1인 1좌, 출자 및 이용배당 반반)출현

4) 소멸기

- ① 소비조합은 지도자 투옥 (사회주의 사상 의혹), 일부조합 강제해산, 자본부족과 경영미숙 등으로 1933 경에는 거의 소멸
 ② 천도교의 조선농민사 및 농민공생조합도 일부 강제해산 또는 자연소멸로 중일전쟁의 전시체제에서 소멸
 ③ 지방기독교 청년회의 농촌협동조합은 1933년 조선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과 함께 부락진흥회에 합류, 중앙기독교 청년회가 경영하는 농촌협동조합은 1937년 총독부의 폐쇄명령으로 소멸

5) 특성

- ① 일제의 지배에 대한 저항 (경제자립 통한 정치자립 지향) : 광범위 계층 참여 가능 (협동조합의 체제 대응 유연성이 계층의 포괄성으로 작용), 일제항쟁수단 (정치) + 서민자구수단 (경제), 만

주 조합의 사례

- ② 민족주의 진영 주도, 사회주의 사상으로 탄압 받음
 ③ 일제의 탄압 : 산업조합 설립, 지도부 구금, 위협시 → 타협, 왜곡, 소멸
 ④ 향약, 사창, 계와 같은 전통적 협동조직의 이념을 서양의 협동조합제도로 담아 내려는 노력과 선양전충식 장부 등 전통의 실무상 계승 발전 노력
 ⑤ 소비조합위주 ← 자본력 취약, 중간이윤배제를 당면과제로 하면서 사회경제제도 결합시정을 지향 제시
 ⑥ 농민공생조합의 경우 종합농협과 생산공장 직영 소비조합 (독점 자본인 미스이에 대항)의 효시

(5) 한국협동조합의 시원 : 『협동조합운동사』 및 합창협동조합

『협동조합운동사』는 여러가지 점에서 한국에서의 본격적 협동조합운동의 효시로 인정될 만하다.

우선 다른 민간 협동조합과 비교해볼 때,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 있어서 1920년대 초의 부진하던 협동조합운동이 동경유학생의 협동조합운동으로 이어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당시에 이미 朝鮮農民社에서 근대적인 협동조합의 효시로 인정한 바 있다. (기독교청년회의 농촌협동조합 및 조선농민사 알선부의 활동과 시기적 선후에 문제가 있으니, 어디까지나 확실한 실체를 갖추고 본격적인 협동조합활동의 시원을 따지는 것으로, 문헌상의 다소간 선후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산업조합과 비교해 볼 때, 『조선산업조합령』이 1926.1.25에 반포된 반면에, 협동조합운동사는 1926.7.6.에 동경에서 창설되어 그 구체적 첫 성과인 합창협동조합이 1927.2.10.에 창립되었으므로, 시기적으로는 약간 뒤진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조합의 비민주적 요소에 대하여 합창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제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실증”이 있다.

더욱이 민간협동조합운동의 발생이 산업조합의 설립을 서두르게 한 주된 요인의 하나이었으리라는 점과 바로 합창협동조합을 억압하기 위하여 합창산업조합을 세워 대립시키면서 일부 간부를 투옥시킨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10여개 조합이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1928.2.14.에는 협동조합운동사가 동경에서 서울로 이전해 오고 이어서 4.25.에는 협동조합 경리조합이라는 협동조합연합체를 실무중앙기관으로 조직해 내는 탄탄한 발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산업조합의 협동조합성에 대한 인정 여부에도 불구하고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주류가 산업조합보다는 협동조합운동사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명기의 소비조합처럼 협동조합운동사도 결국 연면히 이어지지 못하고 소멸하였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이점의 소비조합에서 한국협동조합의 시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는 초기 소비조합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고 또 협동조합의 시원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초기의 소비조합이 제대로 형체를 굳히지 못한 채 스스로의 능력부족으로 소멸했다면 협동조합운동사는 협동조합의 뚜렷한 형적을 남기고 일제의 억압조치 가운데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혹 한국협동조합의 연원을 구한다면 협동조합운동사와 합창협동조합에서 구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3. 농업 협동조합의 성립과정

- (1) 농업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농협설립운동
 - 1) 금융조합의 개편운동
 - 2) 민간의 농협설립운동
 - 3) 실행농업협동조합
 - 4) 재무부와 농림부의 다툼
- (2) 구 농협과 농업은행의 설립
- (3) 현행 농협의 설립
- (4) 농협 설립 경과의 경제적 의미와 연원 문제

4. 제도권 협동조합

- (1) 농협
- (2) 수협
- (3) 축협
- (4) 기협
- (5) 임업협동조합
- (6) 유사 협동조합 : 농조, 산조, 경작조합, 주택조합...
- (7) 제도권 협동조합 (특히 농협)의 특성과 경제적 의미

5. 민간협동조합운동

- (1) 신협 (*)
- (2) 소협과 생협
- (3) 생산조합
- (4) 학회

6. 80년대까지의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특성

- (1) 제도권 조합의 절대적 우위
- (2) 정부에 의한 조직, 정부에 의한 통제 : 정책수행기구
- (3) 출자액 대비 방대한 조직, 인력, 시설, 자금, 사업
- (4) 자본에 의한 종속 (독점 자본 매개형)
- (5)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기여
- (6) 경제적 냄비구멍 (통지권의 방파제) : 불만의 표출처, 민주화 의지의 표시도구
- (7) 제도와 자생의 철저한 분리 대립

7.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전망을 위한 예비지식 : 협동조합의 종류와 흐름

- (1) 협동조합의 종류
 - 1) 주체와 기능의 조합 (관념상 수많은 종류)
 - 2) 실제의 존재 양태 : 복합기능

- (2) 협동조합의 기능 : 자본의 지배에 대항하는 현상형태

- 1) 단절
- 2) 극복
- 3) 견제
- 4) 종속(매개)

- (3) 협동조합의 흐름

- 1) 협동조합의 3주류 : 소협, 신협, 농협
- 2) 최근 동향 : 소협 퇴조, 신협의 금융기관화, 생산조합(구미)과 생활 조합(일본)의 활성화, 환경운동 및 지속가능경제에 대한 적합성, 경영체로서의 적합성, 공동체운동과 협동조합

8. 한국협동조합운동의 전망

- (1) 제도권 협동조합의 활용

- 1) 민주화의 의미
- 2) 가용지원으로서의 제도권 협동조합
- 3) 산업화를 위한 협동조합에서 산업화의 성과를 배분하는 협동조합으로

- (2) 협동조합의 사회적 활용

- 1) 협동조합의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경제를 구성하는 활력있는 부분으로 활용 :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성이 사회적 효율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
- 2) 제도권조합의 개편 : 행정권의 위주 → 조합원 편의 위주로
- 3) 일반 협동조합법의 제정
- 4) 학회의 활성화

- (3) 협동조합의 개인적 활용 : 사회적 활용과 표리관계

- 1) 삶의 양식으로서의 협동조합 : 자주적 삶, 참여적 삶
- 2) 근본주의 또는 전부주의 사고의 배경 : 다양성의 인정

- (4) 이념과 함께 실용을 (효율성있는 경제부문으로 서야)

- 1) 제도권 조합에 이념과 경쟁을
- 2) 자생적 운동에 실무를
- 3) 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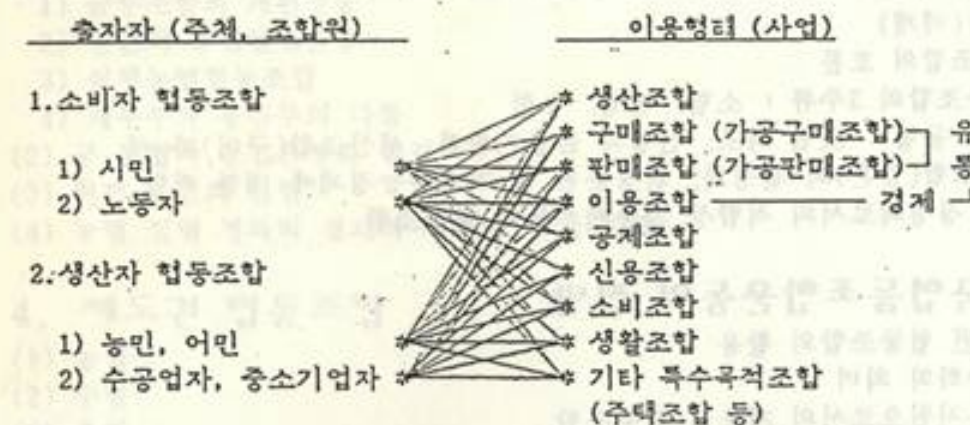
- (5) 전통적 협동조직의 발전적 수용

- (6) 통일을 위한 대비 : 특히 생산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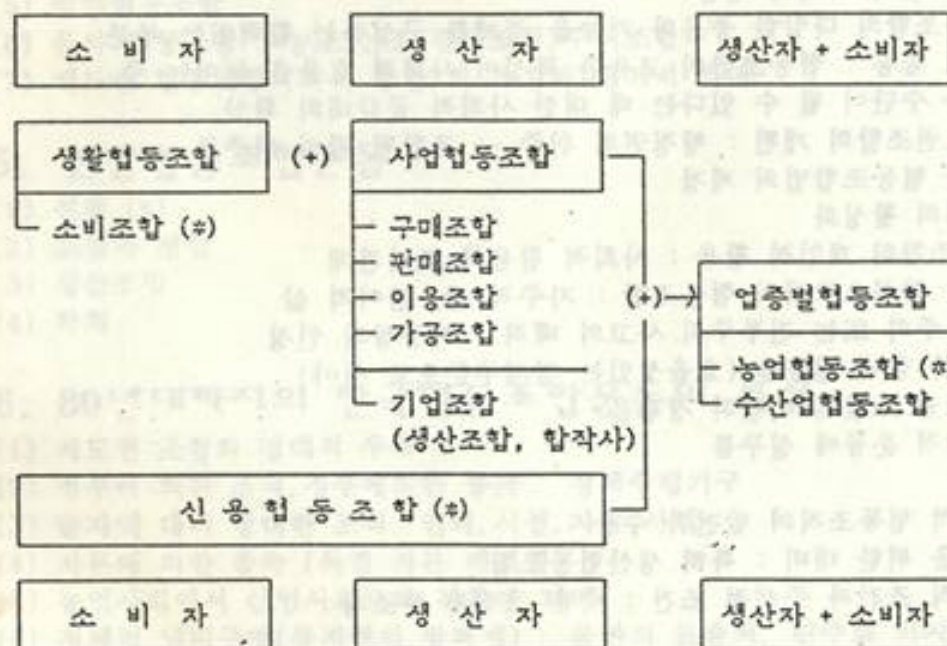
- (7)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 : 죽은 조직과 산조직

< 도표 1 > 협동조합의 종류

(관념상 가능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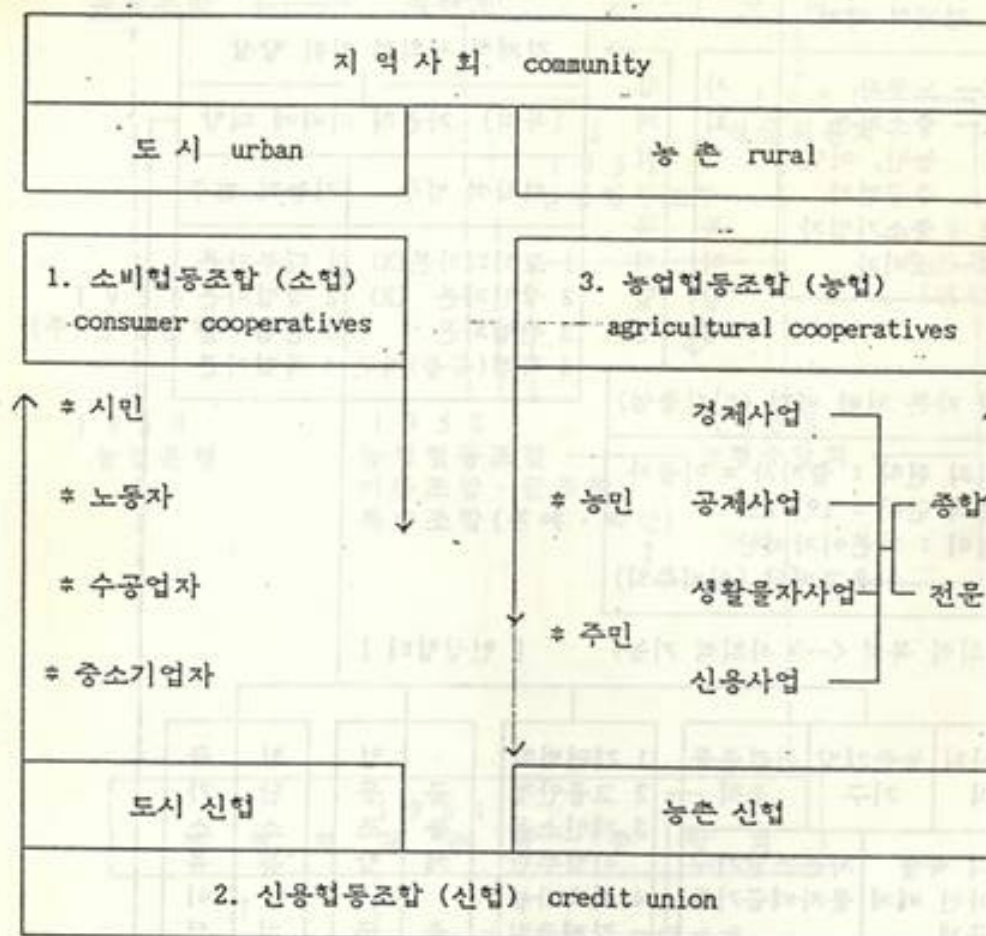


(실제상 일반적인 종류)



- 1) 협동조합의 3주류 (*): 소비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 2) 협동조합의 최근동향: 소협외의 쇠퇴, 신협의 금융기관화, 생산협동조합의 활성화, 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일본)

< 도표 2 > 협동조합의 3가지 큰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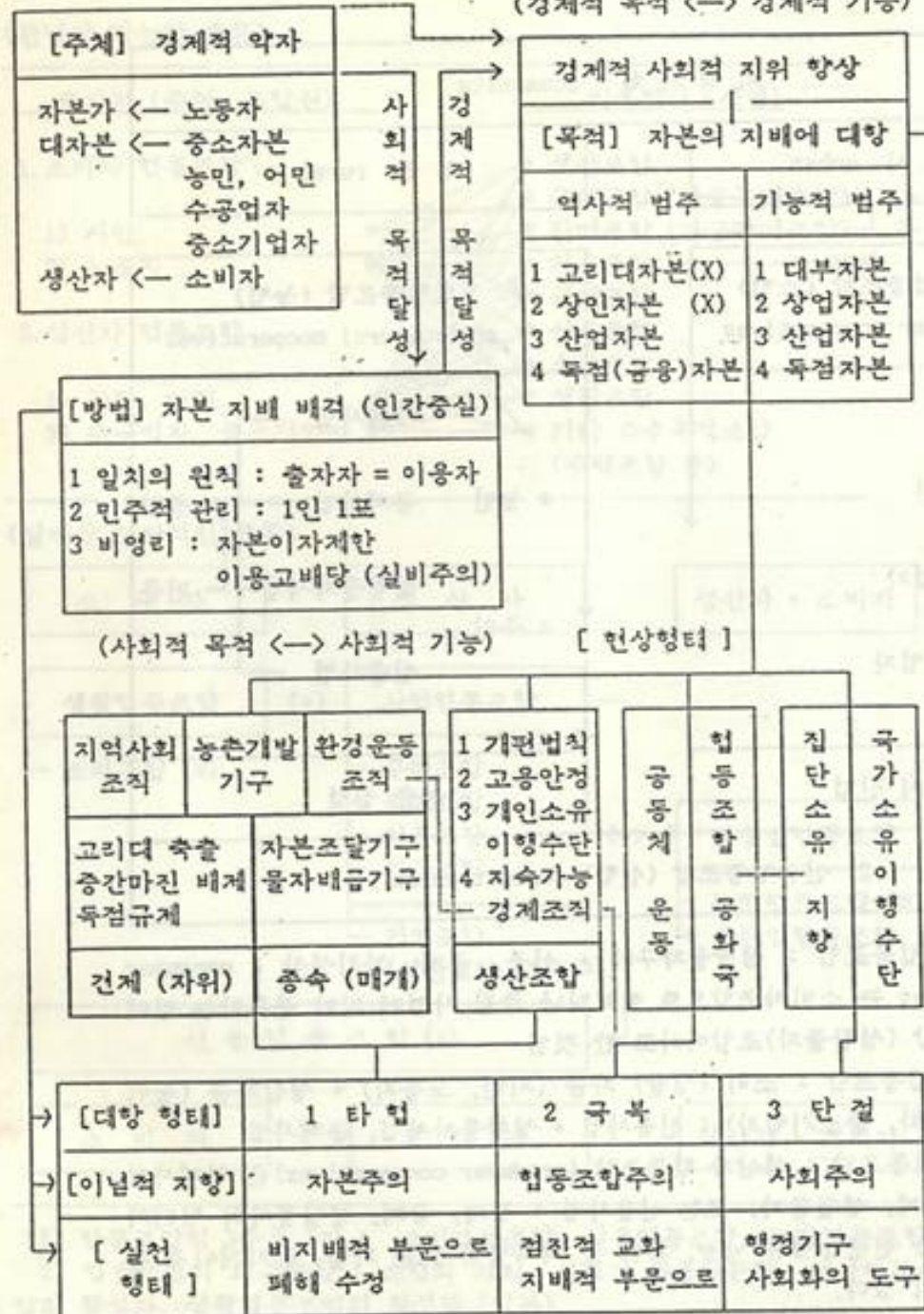


- 1) 소비협동조합: 생활물자구매 + 신용, 공제, 자기생산; consumer cooperatives는 소비자조합으로 직역되나 주된 사업에 의한 분류라는 점에서 소비조합 (생활물자)조합이라고 한 것임
- 2) 신용협동조합: 소비 (생활) 자금 (시민, 노동자) + 생산자금 (농어민, 수공업자, 중소기업자); 신용사업 + 생활물자사업, 공제사업
- 3) 농업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producer cooperatives)은 경제사업 + 신용, 공제, 생활물자, 또는 신용사업 + 경제, 공제, 생활물자의 형태가 일반적이며, 전문농협은 낙농, 화훼 등 작목중심 또는 가공, 농기계이용 등 기능 중심이 있다.

< 도표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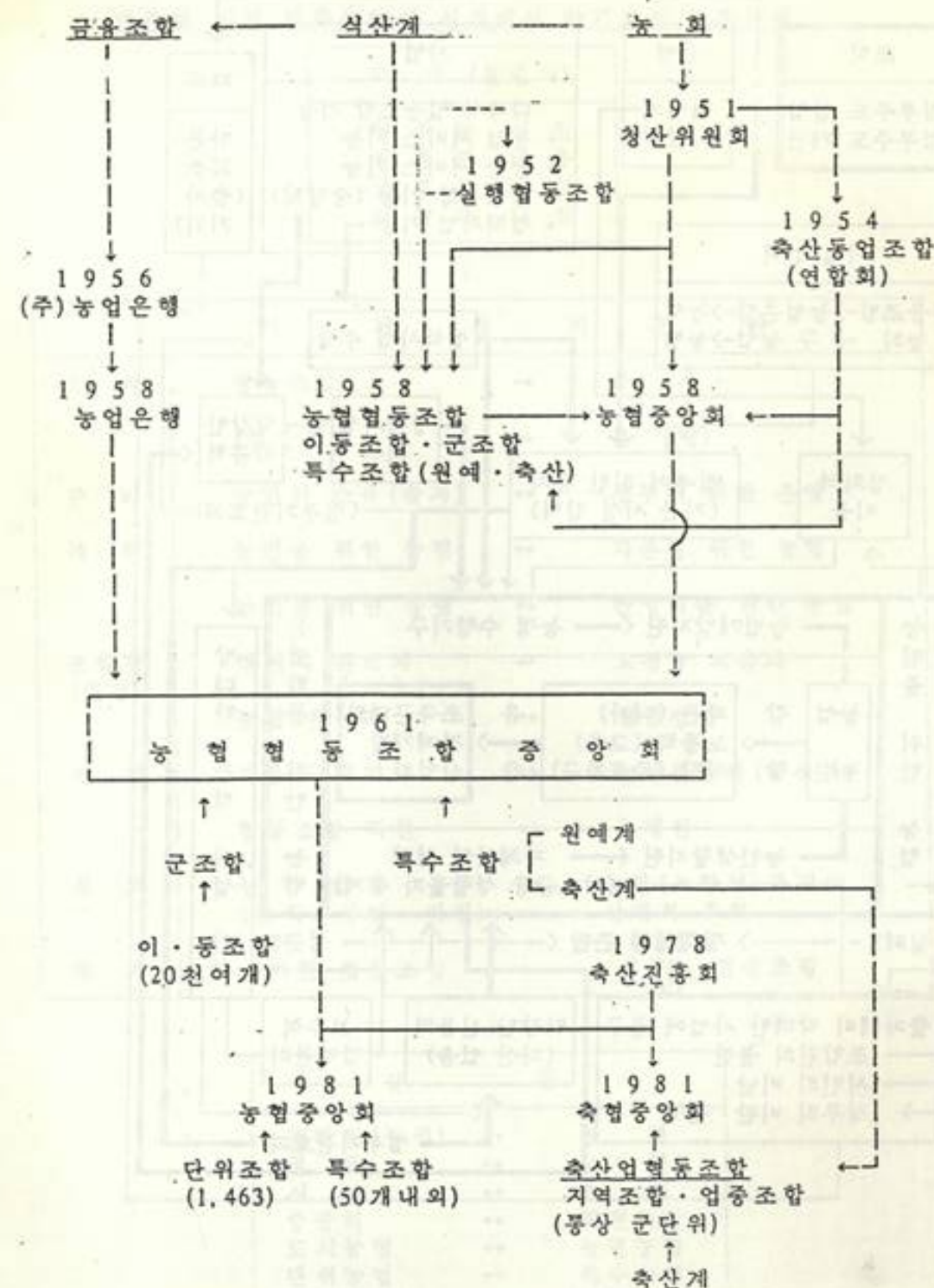
협동조합의 의미와 기능

(경제적 목적 <→> 경제적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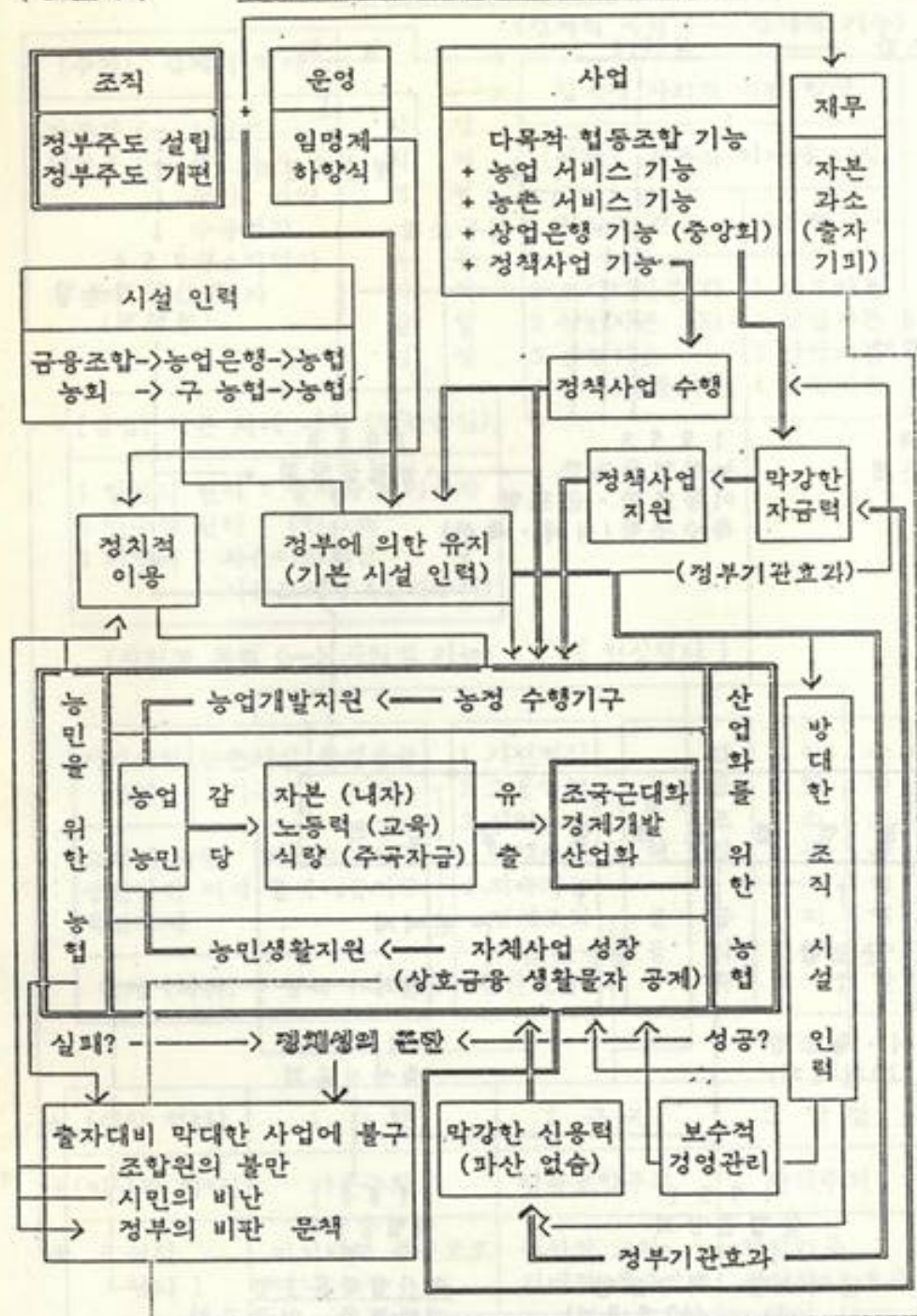


< 도표 4 >

한국농협의 성립과 변천



< 도표 5 > 민주화 이전 한국농협의 성격·역할·평가



< 도표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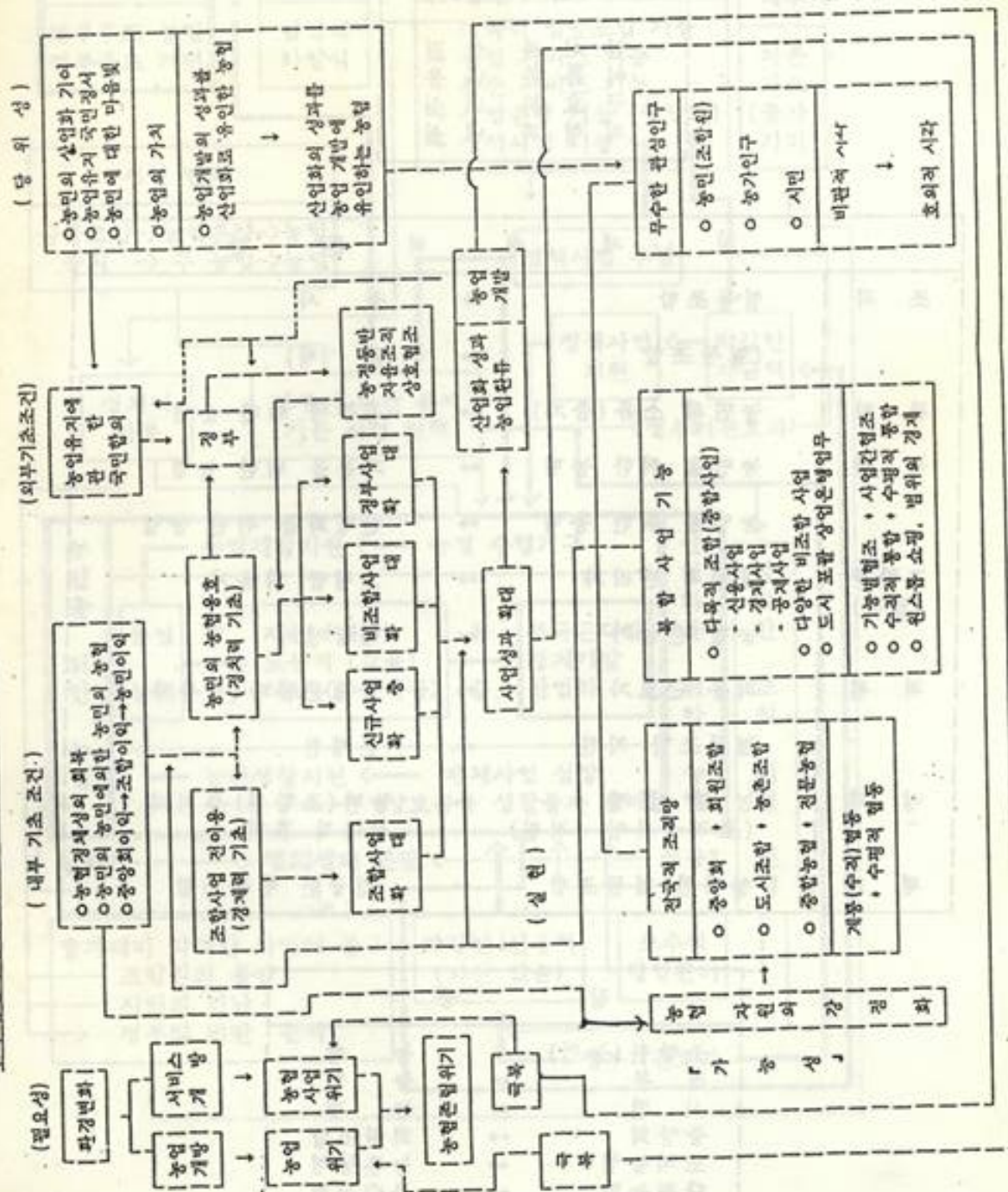
민주화 이전 민주농협의 성격에서 야기되는 근본문제

피리 (불일치)		
형식	과실	절충
이름	내용	내용
구호	외과	내과
의형	외과	내과

정 체 성 의 혼 란		
조 직	협동조합 ↔ 공 사	
	(협동조합 ↔ 은 행)	
관 리	농민의 소유 (출자) ↔ 정부에 의한 운영	
목 적	농민을 위한 농협 ↔ 자본을 위한 농협	
	농업을 위한 농협 ↔ 산업화를 위한 농협	
조합장 (임원)	당연직 관리자 ↔ 고정급 피용자	
	농협 운동가 ↔ 월급쟁이	
직 원	피용 근로자 ↔ 농협운동가 (봉사자)	
	협동조합 직원 ↔ 은행원	
성 과	농 협 성 장 (조직·사업·직원) ↔ 농민 (조합원) 복지의 상대적 후퇴	
평 가	실패한 협동조합 ↔ 성공한 협동조합	

갈 등	
조합원 (농민)	↔ 농 협
정 부	↔ 농 협
시 민	↔ 농 협
중앙회	↔ 회 원 조합
도시농협	↔ 농 촌 농 협
단위농협	↔ 특 수 농 협
(중앙농협)	↔ (전문농협)
농 협	↔ 축 협
농 협	↔ 농업단체

< 도표 7 >



대학 학생 협동 조합

박흥섭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

대학은 자치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학문연구를 통한 사회에 기여함과 새로운 사회구성원들을 교육, 배출하여 사회를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하였고 군사정권에 대한 대항속에서 대학은 여러가지 질곡을 갖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대학을 구상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재단 및 학교직원들 사이의 불신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파괴를 들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절차보다는 힘의 논리가 우세하던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불합리한 요소에 대한 대응방법도 요구의 정당성만 인정되면 똑같이 힘에 의해 밀어 부치는 해결노력이 횡행 하였고 학원 내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학문은 한사람의 전인적 인간양성을 필요로 한것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만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결과 대학은 필요한 지식을 주고받는 장소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교육여건 향상없이 진행된 대학정원의 팽창은 학생정원의 증가만큼 교수의 중원이 뒤따르지 않아 교수가 제대로 제대로 연구할 시간이 부족했고 교육의 질을 제대로 담보할수 없게 되었다. 학교직원들은 과도한 업무가 부과 되었고 학생들 또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 못했다. 교수, 학생, 직원 누구나 할것 없이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속에서 공동의 관심사들을 논하고 풀어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또하나는 가치관의 혼란을 들수 있을것이다. 급격한 자본주의하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생활철학들을 정립하기도 전에 기존의 가치관들을 흔들여 놓게 되었다. 협동보다는 경쟁심과 이기주의적인 삶들이 강요 되어왔고 배금주의가 대학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속에서는 올바른 사제관계라든가 전인교육은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

열악한 교육환경외에 학문연구의 보조로서의 복지시설은 정원의 팽창을 따라잡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둘러싼 학생과 학교당국과의 마찰이 그칠지 몰라 복지시설 운영을 둘러싼 파행이 계속되었으며 이문제를 합리적으로 서로의 힘을 모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서로에 합의에 기초한 해결방법을 찾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내에서 학문연구와 더불어 중요한것은 민주적 훈련이다. 교육받은 것들을 몸으로 체험해서 이후 사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훈련을 쌓는 과정이며 구성원들간의 요구들을 올바로 수렴해내 해결하는 것은 바로 사회화를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기때문에 올바른 자치단체의 육성을 교육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삼고 있다. 재학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대변해줄수 있는 자치조직은 원만한 학사행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학내 자치조직은 건강하게 육성되지 못했다. 정권과 학교당국을 위한 꼭두각시 자치만 존재했었다. 이를 극복하고 들어선 자치조직은 사회변혁을 위한 전위역할 수행과 자기집단 이익보호 대변을 위한 이익집단의 성격을 띠면서 갖추어야 할 내용과 형식, 지향해야 될 점들 모든 부분에서 보완의 필요를 요구받고 있다. 사회의 분화와 인식의 확대에 따라 일상생활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부담감없이 쉽게 참여할수 있는 조직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대학은 아직 그 변화를 따라가고있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어두웠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롭게 창조되는 질서들이 대학내에 요구되어 지고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과 시도들을 기울여야 될것이다. 그중 중점적인 하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대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변화가 요구된다. 그동안 대학을 지배해온 권위주의와 정의의 이유로 기본적인 민주절차를 무시한 힘의 해결방식, 행정의 편의만을 위한 일처리, 이 모든것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구성원간에 합의에 의한 새로운 윤리관들을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개방에 대비해 각대학은 스스로의 교육여건들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이는 어느 한집단의 노력이 아닌 모든 성원들의 참여속에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직위나 전문적인 기능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을 갖고 만날수있는 자치조직이 필요하다. 이 자치조직은 실추된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서로의 관계의 재정립을 해 나가며, 올바른 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훈련의 장으로서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를 소중히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서, 생활전반에 하나하나 올바른 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조직이 될것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을 새로운 학원조직으로 제기 하는 까닭은 ?

대학에는 많은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고 제기되고 있다. 그많은 조직중에서 대학생활협동조합을 대학내에 산재한 많은 문제를 풀수 있는 틀로 제기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협동조합이 갖는 원리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자치조직 : 협동조합은 조합구성에 필요로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직되는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체이다. 일상생활속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교수나 학교직원, 학생 누구나 가릴것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조직의 운영방식도 과거와 같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닌 보다 큰 협동의 틀속에서 그리고 조합원들 사이에 새롭게 맺어진 윤리적 틀속에서 철저한 합의와 민주적 운영형태를 견지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조직은 학내 어느 조직보다 가장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직 : 협동조합의 기본은 조합을 구성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조합원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벌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인격체로써 조합에 참여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조합안에서는 동등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교수와 학생 직원이라는 지위가 상이한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참다운 대학교육을 지향하는 각각의 인격체들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들 모두에게는 강요와 복종의 풍토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존경으로 협동의 생활풍토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생활속의 실천조직 : 협동조합은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운영되어지며 이안에서는 관념적인 이론보다는 현사회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문제들을 작은 부분일지라도 생활적인 대안을 갖고 해결해 나간다. 이가운데 생활속의 지혜를 익힐수 있는 장이 된다. 이렇게 얻어진 지혜는 우리의 생활과 학문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나아가 사회진출을 앞둔 젊은이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생활방식이 된다.

협동조합운동은 서로 다른 역할과 생활을 갖고있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의가 있을것인가 ?

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역할을 갖고있는 대학은 이를 위해 교수와 학생외에 교육행정으로 뒷받침하는 대학직원들이 모여 학교를 구성하고 있다. 이삼자 어느 하나가 빠지더라도 학교는 자기 모습을 찾지못하게 될것이다. 이들은 똑같이 현사회에 의해 규정받고 대학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동질성의외 각자의 처지와 역할들이 각기 존재한다. 협동조합은 이들에게 공히 모두가 동등한 권리로 참여할수 있는 자격들과 협동조합의 경영자와 이용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줄것이다. 즉 협동조합운동을 통한 공동사업다른 물품이용 혜택뿐만 아니라 조합운영 결과 발생한 잉여와 손실에 관한 처리에 권리가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조합의 사업계획에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성실한 수행이 되도록 감시와 책임의 임무가 동시에 주어진다.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참여외에 삼자의 처지에 따른 존재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교수 : 교수의 가장 커다란 역할은 학문연구와 학생들에게 학문을 전수 시키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을 하나의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교육시키는것이라 할것이다. 이중 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전문적 지식의 연구와 전수는 잘 진행되는 반면 교육여건의 악화 즉, 교수 일인당 학생수의 과다로 학생들과 일대일 대면기회의 상대적 축소 뿐만 아니라 그간의 상호 불신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 나아가 올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지도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 이것들을 보강할수 있는것은 전문적 지식인으로서의 만남이 아닌 일상적 소재를 가지고 만날수 있는 생활협동조합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안에서의 참여를 통해 서로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치운영 능력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주어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것이다. 즉 한개과에 국한된 전문적 교육이 아닌 일상생활의 다방면의 소재를 가지고 각종 위원회나 의사 결정기구를 통한 만남을 통한 술선수범과 소중한 경험의 나눔은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이외에도 대학생협의 서적 사업을 통한 책 공동구매사업이나 학문적 가치는 존재하되 경제적 가치가 없어 절판된 책들의 복간 같은 사업은 학문 연구를 위해 교수, 학생 공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교수의 처지에

맞는 사업들을 생협에 참여 개발함으로써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이다.

학생 : 학생들에게 있어 생협은 사회생활의 간접 경험 그리고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 할수 있는 좋은곳이 될것이다. 학문을 통해 배운 사항들을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과정(조합 운영과 경영에의 참여)이나 하나의 결론들을 각기 다른 이해와 요구들속에서 도출해내는 민주적 훈련 과정들은 자치훈련의 좋은 장이 될것이다. 정보문화의 발달 인식의 확장에 따라 학생들은 다양한 참여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수 일상적 소재거리를 매개로 하는 협동조합은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만남과 일을 통한 소외감을 극복시켜 줄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창시절에 공동구매를 통한 저렴한 가격의 물품이용은 도움이 될것이다. 이외에 공제사업이나 다양한 소위원회의 활동은 기존의 동아리와는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속에서 실생활의 필요한 경험을 제공해주며 논의와 실천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여러가지 도움이 될것이다. 잘못된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왜곡된 가치관과 관념속에 존재하는 미래의 틀속에서 맴돌려 일하므로써 노동의 소중한 가치와 협동의 의의를 배울수 있는 전인 교육의 장이 될것이다.

대학직원 :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학문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직원은 80년 이후 대학중원의 여파에 따라 업무과다로 시달려 왔다. 교직원들이 하는 많은 일중 학사행정 분야는 그간 그 중요성들을 인정받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충분한 배려를 받는 반면 복지행정 분야는 소홀히 취급 되어왔다. 특히 교육여건 향상없는 학생수 증가에 따른 복지행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 증가하고 있고 학내 구성원들간의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라 주체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데도 충분한 배려를 못받고 있다.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에 대한 충원이 안되고 있으며 보통은 본인의 일외에 과외로 맡겨지므로써 올바른 해결책을 못가져오고 있다. 특히 교육개방 이후 중요한 대학선택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복지행정 부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을 포함하기때문에 발생하는 그간의 과정을 볼때 삼자가 같이 참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협동조합 틀은 교직원에게는 일의 업무를 던다는 의미외에 가장 곤란한 분야를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한 해결이라는 의의를 줄것이다. 이외에도 교직원은 교수, 교직원에 비해 이동이 적은므로 이점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개발은 이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줄수 있을것이다. 한 예로써 올바른 농산물의 상설판매장의 개설은 안전한 먹거리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좋은 일이 아닐수 없다.

대학생협운동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

1. 구성원들의 통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것이다.

대학구성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책을 떠나 동등한 동반자로서 누구나 쉽게 알고 참여할수 있는 일상 활동을 통한 만남은 구성원들간의 불신을 허물고 통합력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

2.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

상대적으로 잘 조직된 대학인들의 성숙된 의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소비는 올바른 생산을 유도해 낼것이다. 또한 연합된 힘을 바탕으로 한 직거래 운동은 구서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수 있을 것이고 올바른 상품을 선별 공급함으로써 대학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것이다.

3. 새로운 생활양식의 확립

현대 산업화의 결과 직면하고 있는 생태계의 파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인간과 인간간의 협동의 생활을 뛰어넘는 보다 큰 범위의 협동생활이며 대학생협은 대학으로 부터 새로운 생활양식을 확립시켜 나갈 것이다.

4. 생물로서의 역할

협동조합활동을 통한 민주주의 훈련을 받은 구성원들을 사회로 배출함으로써 훌륭한 민주시민을 배출하는것과, 보다 적극적으로는 사회협동운동가들을 배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생활속에 협동운동을 활성화 시킨다.

협동조합운동은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그속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의해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은 보다 풍부해지고 다양화 해질수 있을것이다. 짧은 기간의 활동을 통해 대학생협협동조합은 보다 더 다듬어야하고 심화 시켜 나갈 많은 일들이 산적해있다.

현시기 우리나라 대학생협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

1. 대학생협의 정형을 만드는것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이념을 올바르게 담아내고 실천해 갈수 있는 모범적인 전형이 초기 협동운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된다. 각 협동조합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내고 전파시키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범들을 만드는데 협동운동 일꾼들의 지혜를 집중해 나가야 될것이다. 그안에는 조합원 을 주인으로 세우는 방법에서 협동운동에 걸맞는 경제활동 방식에 이르기 까지 많은 상황들이 존재 하리라 생각한다.

2. 협동조합운동의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해야 할것이다.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 대안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운동의 가치를 알려내는데 협동조합 일꾼들은 주력해야 할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협동조합운동내에 인입함으로써 협동운동의 바람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특히 교수나 교직원들에 대한 협동운동 필요서에 관한 각종 소개 교육과교 연수가 준비되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모범사례의 자료화와 외국의 사례들을 발굴해내 소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협

동조합운동에 접하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야 될것이다.

3. 교육을 강화 해야 할것이다.

조합원, 실무자에 대한 교육의 정형을 만드는것뿐만 아니라 협동운동을 고민하는 일꾼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할것이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수 있는 대중강좌의 실시와 더불어 협동운동에 관심있는 일꾼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할것이다.

4. 사업의 다양화하여야 한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수 있는 사업들의 개발과 사회적인 이슈 사업들을 만들어 협동운동들을 부각 시킨다. 특히 생태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한 그에 부합되는 상품의 개발에 힘써야 될것이다.

5. 협동조합운동의 법적, 제도적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쉽게도 생활협동조합법이 없다. 이로인한 대학생협운동이 겪는 어려움등 무시 못할 부분이다. 생협법은 협동적 생활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제도적 염원이 었다. 생협법 추진은 이런 맥락에서 대학으로 부터 붓물을 터트리듯 추진되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 노동자생산협동조합

김성오

I

어린이와 노약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 개중에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마도 인간이 이 지구위에 살고 있는 한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일의 종류가 바뀌고, 혹은 일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는 자기의 삶과 가족들의 삶, 그리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정토사회가 오거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이 된다 해도, 그리고 로버트 오웬이 그리던 이상적인 공동체사회가 이루어 진다 해도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있는 것들중 대부분은 사람들의 일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안에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녹아들어 있는 것은 자명하다. 정신적인 일이든 육체적인 일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의 땀과 열정을 요구하는 한, 모든 종류의 일은 모든 인간이 존엄한 것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루 종일 나사를 조이는 것과 같은 단순반복적인 일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멸시(蔑視)나 기업의 재무관리를 한다든가 인사관리를 하는 것과 같은 경영업무에 대한 일부사람들의 사시(斜視)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일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 그 자체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되기도 하고 즐거운 것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보수와 관계없이 아주 보람된 것일 수도 있고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어서 하는 것일수도 있다. 왜 어떤 경우에는 일이 즐겁고 보람된 것인 반면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럽고 생계를 위해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될까?

사실 그 이유는 매우 심오할 것이다. 그 이유를 알려면 어려운 사회심리학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경제이론까지, 그리고 감히 범접하기 곤란한 종교교리로 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해부학까지 여러 각도의 접근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완전히 다 알고고 하는 것 보다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어떤 방법일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일이 조금이라도 더 즐겁고 보람된 일이 될 수 있을까를 나 자신의 경우로부터 반추해보는 방법이다.

첫째, 만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이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누구라도 자기가 하는 일을 고통스럽다거나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은 생산적인 것인 동시에 하나의 놀이가 될 것이다.

둘째, 만일 내가 하는 일의 댓가가 모두 다 정확하게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면 그 때의 일은 어떨까?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내가 한 일의 댓가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나의 일과 일자체로는 연관이 없는 '외부 주주들'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일이 재미있고 즐거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만일 내가 하는 일의 앞과 뒤의 과정을 소상히 이해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만을 알고 연관된 다른 일들을 모르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일이 재미있을 것이고 보람도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긴밀한 협동관계가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인정해줄 수 있게 되는 만큼 자신의 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네째, 다섯째, 여섯째,....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이 세가지로 좁혀서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번째의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에 대해 고민하던 수많은 사상가들과 위대한 성인들이 품고 있던 이상중의 하나로, 가장 최선의 길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생산력조건을 두고 볼때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흐르기 전에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두번째와 세번째의 것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으로서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내가 한 일의 댓가가 정당하게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앞뒤맥락을 충분히 알고 될 수 있는 범위까지 협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당면의 목표인 것이다.

II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의 두가지이다. 하나는 외부의 주주가 아닌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소유권을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1주1표의 원칙이 아닌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소유권을 균형있게 (평등하게가 아니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조합원들은 자신의 일의 댓가가 외부로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내부의 대주주에게 편중되게 이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권을 평등하게 가짐으로서 자본을 많이 낸 대주주나 혹은 사회주의국가의 기업지배인의 경영상의 전횡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인 대규모 주식회사나 사회주의적인 경직된 국영기업보다 훨씬 더 일하는 사람들의 일을 즐겁고 보람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러한 상태를 '기업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혹은 '직장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상태라고 개념짓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뭉뚱그려 '일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III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00만명정도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된 전형적인 노동자생산협동조합조합만을 볼 때 그러하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기업형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을 네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 국영기업소, 집체소유기업소, 합작기업소, 개인기업소 - 이 중 노동자생산협동조합과 본질이 같은 집체소유기업소는 1987년 현재 전국에 약 392,112개로 총 1억 8천 2백 7십만명이 여기에 종사하며 중국공업총생산액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협동조합형태는 아니지만 노동자가 전체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약 500여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전형적인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주로 유럽지역에 존재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1991년 현재 11,203개의 노동자생산협동조합에 약 40만여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1987년 현재 1,261개의 조합이 있으나 그 규모는 매우 영세하여 단위조합당 약 50여명안쪽으로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83년 현재 1,269개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 시작된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은 현재 약 100여개의 기업에 8,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생산협동조합중 그 규모나 체계, 그리고 성장율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는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를 꼽을 수 있다.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 교육, 주택, 서비스협동조합에 이르는 거대한 기업집단을 형성한 경우로 현재 107개의 단위조합에 약 2만 5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일을 하며 스페인 산업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노동자기업이 한 사회전체를 풍미했던 경우는 유고슬라비아를 들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현재 민족간의 내분으로 인해 사회자체가 전반적인 혼란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기업의 본질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IV

한국의 경우에 노동자생산협동조합운동은 이제 막 출발지점에 서 있다. 전통은 매우 취약하고 전반적인 경제여건도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전형적인 노동자생산협동조합으로 꼽을 수 있는 기업은 8개이고 총 조합원수는 200여명이 채 안되는 정도

이다. 그리고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기업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5개 정도 된다. 이외에 국민기업형태가 2개,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보장되고 있는 기업이 6곳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유와 경영의 주인이 되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노동자소유 주식회사등이 출현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첫째, 노동자들의 각성된 권리의식은 앞으로 기업자체의 소유나 경영의 문제로 점차 방향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것은 최근 노동운동의 일각에서 불고 있는 경영참여운동이 그 전조가 된다.

둘째, 기존의 수직적인 기업구조는 점차 각성된 신세대들을 충분히 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보다 자유롭고 보다 활달한 삶의 방식에 익숙해 있으며, 이들이 본격적으로 경제행위의 장으로 뛰어들때 이들이 보다 선호하게 될 기업형태는 아마도 일의 보람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생산방식의 변화는 일하는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일하는 기업형태를 보다 우수한 기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소위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이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변화되는 일련의 변화에서 기존의 수직적이고 엄격한 기업형태는 점점 더 적용하기 어렵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형태가 보다 더 일반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이 저절로 잘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매우 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V

사람들의 일이 보다 즐겁고 보람있는 것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소유와 경영의 주인이 되는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을 보다 일반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일이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엄중하고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높고 험하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신나는 일이 아닐까? 쉬운 일이라면 재미가 없는 것이다. 높은 산일수록 오르고 난 후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함께 오르는 과정의 참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신용협동조합 소개

신용협동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주도의 협동조합이다.

들어가는 말

현대 경제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든가 자원의 배분 그리고 재정 정책과 같은 문제들을 연구하는데 주력하고 가계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산업금융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서민의 가계를 돕는 소비금융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고리대금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농촌의 농민들, 직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영세한 상공인들은 파렴치한 대금업자들로 부터 무자비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각지에서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수많은 사설금융 기관들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고 있으나 이 기관들의 대부분은 임시 변통으로 생겼다가 사라질 뿐더러 비싼 이자를 받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가 없으며 연합기구도 없이 각기 고립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자금을 집중하여 공급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은 이와같은 문제를 실질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가장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모든 경제적 사회적 계층에 쉽게 적용되는 기본적 협동조직으로서 자본의 조성과 협동조합의 경영원리를 터득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협동조합은 산업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후 붕괴된 경제 사회적 질서속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생성된 역사적 소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사회상을 프랑스 생산협동조합의 개척자중 한 사람인 '루이 뿌랑'은 다음과 같이 표현 했다. "영세 수공업자는 자본가들의 수중에 흡수당하여 주인이었던 수공업자는 날품팔이로 전락하였으며 가축으로 농사짓던 농민들은 가축을 잃고 그들의 토지는 야비한 고리대금업자의 수중에 넘어 갔다. 그 결과 기업은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고 고귀한 정서는 차츰 메말라 신용, 헌신, 봉사, 지적 감정 따위는 질식하여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원리가 너무나도 가증한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말았다."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이 가져온 헛점을 협동조합 운동이 조용한 혁명으로 서구제국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겠다.

몸 말

1. 신탁운동의 배경

영국이 소비자협동조합의 발상국이고 프랑스가 생산자협동조합의 발상국이라면 독일은 신용협동조합의 발상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농촌 신용협동조합이 발달한 나라이다.

독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약 50 - 70년이 뒤진 1840년대 이었으며 농촌에서는 이무렵 이후에도 여전히 귀족, 지주와 농민사이에는 낡은 봉건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뿌리깊이 잔존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나폴레옹 전쟁과 1846년에 있었던 서부독일의 흉작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이 극심하였으며 그 여파로 도시의 수공업자나 농민의 생활은 상품경제의 침투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져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자금부족이었다. 당시 독일의 중소상공업자나 농민이 돈을 빌리고자 하면 고리대에 의존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발생한 독일 신용협동조합은 서구 각국으로 전파되었고 후에 북미 지역으로 건너 갔으며 미국에 세계본부가 생기면서 다시 중남미, 남미, 호주,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지로 확산하여 오늘날 범세계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60년대의 한국의 상황은 전쟁의 폐허로 인하여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기였다. 빈곤, 무지, 불신이 만연하고 구호물자에 의존하여 자조, 자립, 협동이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1930년 한국에 부임하여 선교활동을 수행해 오던 가벨 수녀는 6.25전화를 피하여 부산으로 이주 피난민 구호사업을 하였다. 주한 민간원조단체협의회(KAVA)에서는 그간의 사업을 평가하는 모임을 갖고 분석한 결과 자조 자립하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가벨 수녀가 휴가차 귀국할 때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위임되었다. 그리하여 가벨 수녀는 안티코니쉬 코디연구원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부산에 교도 봉사회를 설립하여 조직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가 신용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1960. 5. 1)

2. 신용협동조합 운영원칙

1) 민주적 조직구조

가. 가입탈퇴 자유의 원칙

신용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정해진 공동유대 내에 속하면서 조합의 혜택을 받고 또한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나. 민주적 관리의 원칙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은 출자금, 예탁금 및 거래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동등한(1인 1표) 투표권을 가지며 조합운영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단위조합을 지원하는 기구 또는 계통조직에 있어서의 투표권은 민주적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비례제 또는 대의원제를 채택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단체이며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원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협동조합 기업이다. 선출된 신용협동조합 임원은 성격상 자원봉사자이며 봉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활동에 따른 정당한 경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다. 인종, 종교 및 정치적 평등의 원칙

신용협동조합은 인종, 국적, 성, 종교 및 정치적 이유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한다.

2)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원칙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는 모든 조합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나. 조합원을 위한 잉여금 배분의 원칙

검약을 권장하여 저축을 증대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대부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은 능력의 한도에서 예탁금과 적금에 대하여 적절한 이자를 지급한다.

자기자본이 있는 경우 출자금에 대한 제한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충분한 적립금을 공제한 후에 신용협동조합 잉여금은 모두 조합원에게 귀속되며 특정 조합원이나 일부 집단이 다른 조합원의 희생하에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와같은 잉여금은 조합과의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배분하거나(이자환급 또는 이용고 배당) 또는 조합원들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개선 증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 재무구조 안정의 원칙

신용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충분한 적립금의 확보와 내부통제기능을 포함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로써 조합원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3) 사회적 목표

가. 계속교육의 원칙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임직원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신용협동조합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적 및 상부상조의 원칙에 관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근검절약의 장려와 대부금의 현명한 이용 및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은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비추어 필수적인 것

이다.

나.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원칙

협동조합운동의 철학과 전통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능력범위에서 모든 신용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및 계통기구간에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협동하여야 한다.

다. 사회적 책임의 원칙

신용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개척자들의 이상과 신념을 간직하면서 인간발전과 사회발전을 추구한다. 개개 조합원과 그들이 일하며 살고 있는 사회안에 선구자들의 사회정의의 이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설립의 의의는 신용협동조합을 필요로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은 현재 조합원이거나 또는 잠재 조합원이며 신용협동조합의 이해와 관심의 대상에 속한다. 신용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신용협동조합과 조합원이 있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조합이 하는 일

1. 여수신

수신업무는 신탁자금조성의 주된 업무이며 조합원들은 각 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수신업무를 통해 계속적인 절약저축을 실시하여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됩니다.

수신종목은 출자금을 비롯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에탁금, 정기적금 등 8종목으로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예탁금은 2,000만원까지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 배당소득 및 이자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는다.

여신업무는 조합원의 예, 적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조합원에 한해 인격과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 한다.

대출 종류는 일반대출, 적금대출, 저축금범위내 대출, 자립예탁금대출 등이 있다.

2. 공 제

공제사업은 협동조합보험으로 신탁에서는 국제공제협동조합과 계약하여 실시하는 대부보증 및 저축공제, 장학공제, 무지개종합공제, 노후생활연금공제가 있으며 앞으로 많은 종류의 공제를 개발해 조합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도할 것이다.

공제는 조합 및 조합원의 위험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많은 공제의 개발 보장과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및 보급에 힘쓴다.

3. 지역사회개발

신용협동조합은 여수신 업무를 통해 모여진 자금을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위해 씀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신탁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생필품 및 생업자재의 공동구매, 생산품의 공동판매와 같은 공동경제사업에서부터 공동이용시설사업, 사회개발사업등 매우 다양합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유형

1)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

생활자금의 대출, 생필품 및 생업자재 공동구매, 생산품 공동판매, 고리채 추방, 근검절약, 소득증대를 위한 정보, 기술의 제공, 농기계협동사업

2)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장학금 지급, 성인교육장 운영, 무료독서실 운영, 청소년 어린이 교육장 설치운영, 조합원 생활교육

3)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의료혜택의 공여, 불우이웃 및 자활능력 상실자지원, 환경보전운동, 먹거리운동, 자원재활용품사용운동

문명의 전환과 우리 農의 장래

- 우리 農의 새 비전을 세우자 -

최 양 부*

< 차례 >

1. 문제의 제기
2. 유교적 농경사회와 농의 原型
3. 『산업화의 충격』과 농의 해체
4. 『탈산업화』의 새 물결과 농의 장래
5. 우리 農의 새 비전을 세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이 글은 동아대학교 교양과정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5차 특강(1993. 10. 27)과 한살림 농업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1993. 10. 30)을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하다.

1. 문제의 제기

○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의 農者들 - 脫農인가, 持農인가?

- 農(업, 촌, 가)의 총체적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農者들은 속수 무책의 상태에서 脫農인가, 持農인가에 대한 선택의 결단으로 고민하고 있다.
- 이미 대부분의 젊은 농자들은 脫農의 길을 선택한지 오래이고, 持農을 선택한 농자들도 사실은 「떠나지 못해 남아있다」는 좌절감, 패배감, 무력감에 빠져있다.
- 이러한 脫農意識은 그동안 농학계로 확산되어 있고, 이제 농고는 진학 생이 끊겨 존립위기에 처해있고, 농전은 이미 농字를 떼어내고 산업대학으로 대학의 명칭을 바꾸었으며, 우리 농학계를 이끌어 나갈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농과대학이 「개칭논쟁」을 벌리고 있다.

○ 총체적 붕괴의 위기를 맞은 우리 農의 현실

- 농업: 사업으로서 수지도 안맞고, 부가가치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사양(쇠퇴)산업
- 농촌: 마을의 공동화로 마을(공동체) 사회의 붕괴
마을은 더이상 문화가 숨쉬는 살아있는 살터가 아닌 단순한 주거지, 일터. 농촌은 지역주체, 주인이 없는 도시를 제외한 국토의 「나머지 공간(땅)」
- 농가: 여기 저기로 흩어져 분산 다가가가 된 파괴된 가정,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소멸과정
- 환경과 식품: 농경지는 더욱 황폐화되고, 농사는 거칠어지고 무기적이고, 악탈적으로 되어가고 있으며, 생태계, 환경파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식품으로서 농산물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 ⇒ 농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生命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있다.
(농약, 비료의 잔류, 땅과 지하수의 오염 확산)

- 농자: 보람도 긍지도, 희망도, 장래도 못갖고 불안감, 패배감속에서 스스로 농사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恥農意識).
직업으로서, 더럽고 고된, 못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賤農(賤農意識).
인간으로서 소외되고, 고립되고, 살맛(神明)나는 재미가 다 없어진 농촌에서의 삶(疏外意識).
그래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농업과 농촌에서 벗어나고, 농자라는 이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脫農意識).

- 농자들 스스로가 농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농에 대한 자신감, 비전을 상실하고, 농과 연을 맺고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농자들의 자기상실의 위기」야 말로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求農의 새 비전 - 어떻게 세울 것인가?

- 그렇다면 恥農, 賤農, 脫農이란 자기상실의 악순환속에서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모두의 生命(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우리의 農을 구할 수 있는 새 비전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 우리의 農이 이렇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과연 求農의 새 비전을 세울 수 있는가? 과연 세워야 하는가?
- 이 시대의 우리 농이 처한 총체적 위기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求農을 위한 새 비전을 세우는 작업은 「문명의 물결과 전환」이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시대의 우리 농을 총체적 붕괴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농자들의 뿌리깊은 「脫農意識」도 결국은 우리 農의 原型의 성립과 해체라는 문명전환의 역사적 산물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 그리고 한국적 농의 原型(틀)위에 역사적으로 가해진 유교주의, 제국주의, 산업(경제)주의가 농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로 하여금 恥, 賤農意識을 갖게하여 왔고, 그것이 農者들의 마음에 「脫農의 恨」을 심어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유교적 농경사회와 농의 原型

가. 한국적 農의 原型

○ 農을 중심가치로 業(事, 耕), 民(家, 夫, 者), 村(鄉)의 「3農一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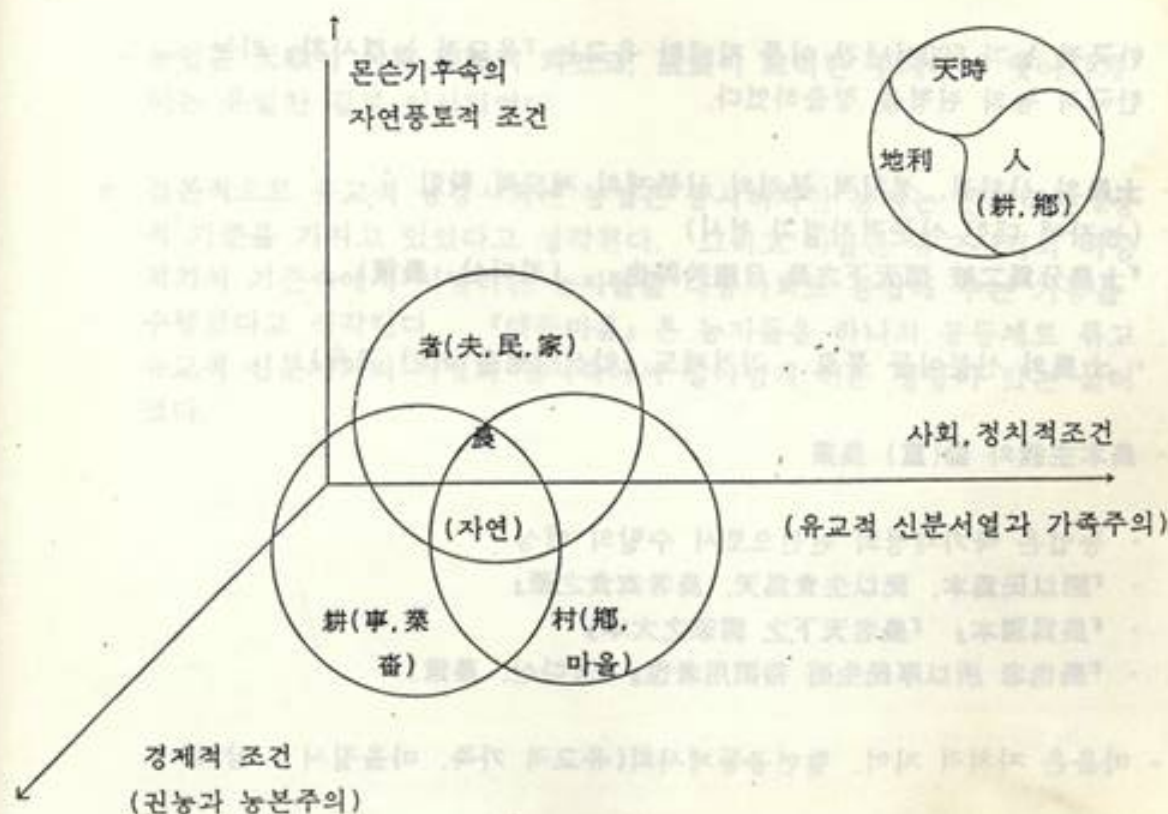
- 農은 그 근본이 자연, 자연순환의 질서를 의미하며, 자연과 더불어 자연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였다.(相補意識)

(예) 農 : 曲 + 辰

畜 : 玄 + 田

「凡耕之本 在於趣時」

< 그림 1 > 農을 중심가치로 한 「3農一體」



- 마을은 자치적인 생활, 문화공동체이며 하나의 소우주 - 상부상조의
공생의식, 평등의식, 외부의 수탈과 억압에 대한 공동대처 - 자위의식

- 농업은 삶을 위한 물질적 기초이며, 생활, 문화의 일부, 「심은데로
거둔다」는 홀린 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생각하는 노동에 대한 윤리
의식

.. 아시아몬순기후적 제약조건(강우량의 50-60%가 6,7,8월에 집중)속에
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쌀농업(답작농업)의 선택

- 天時와 地利, 농경과 사람은 마을이라는 삶 터를 중심으로 상보적인,
유기적인 하나로 통합되었다.

「大抵農者 天下之大本 天時地利 待人和而効力 生養成遂 流元氣而共育」
(정다산, 農策)

나. 유교적 농경사회와 농

o 한국적 농과 500여년간 이를 지배한 유교는 「유교적 농경사회」라는
한국적 농의 원형을 창출하였다.

- 士農의 사회적, 정치적 분리와 신분제의 제도적 확립
(농자에 대한 신분적차별과 천시)

「士農分爲二岐 而天下之農 日趨於弊也」, (정다산, 農策)

· 士農의 신분이동 통로 - 과거제도 (입신양명을 위한 교육)

- 農本主義와 勸(重) 農策

· 농업은 국가재정의 원천으로서 수탈의 대상

· 「國以民爲本, 民以生食爲天, 農者衣食之源」

· 「農爲國本」 「農者天下之 國家之大本」

· 「農也者 所以厚民生而 裕國用者也」 (정다산, 農策)

- 마을은 자치적 지역, 혈연공동체사회(유교적 가족, 마을질서 - 향약)

o 유교적 농경사회에서 우리의,

- 농업은 국부의 원천으로서 존중되었고, 그 때문에 「農者天下之大本」
이라는 농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 있었으며,

· 농자들의 농업관도 「자연순환질서와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연
주의적이고 相補主義的인 것이었다.

- 마을은 자치적 지역사회로서 고통받은 농자들이 서로 위로를 받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외압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大同社會」
(더불어 함께 사는 평등사회)로서 기능을 하였다.

o 그러나 유교적 농경사회의 士農분리에 의한 농자에 대한 신분적 차별과
천시, 자연적 재해와 사회적 수탈과 억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농자들은
恥農, 賤農意識을 갖게 되었고(恥農夫之名, 免農夫之名)으로 발전하였
다.

- 농업은 天職이 아닌 賤職이 되었고, 脫農이 그러한 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로 인식되었다.

o 결론적으로 유교적 농경사회는 농업은 중시하지만 농자는 천시하는 2중
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마을은 유교사회의 이중
적가치 기준속에서 시달리는 농자들을 대동사회로 통합해 주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대동마을」은 농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유교적 신분사회의 차별과 멸시속에서 살아남게 하는 생명이 있는 삶터
였다.

3. 산업화의 충격과 농의해체

- 우리의 경제사회는 1876년 이후 개항과 함께 시작된 제국주의의 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농경사회의 해체를 시작하였으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탈농경사회)로의 『문명의 전환』이란 관점에서 농경사회의 해체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 5.16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권위주의적 군사정부가 1962년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착수한 후 지난 30년간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 『한국적』 산업사회화의 성격

- 인류문명사에서 한 사회(국가)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었지만, 우리가 경험해온 문명의 전환은 『한국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큼 그 속도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 서구: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300여년에 걸친 점진적인 전환과정
- 한국: 30여년에 걸친 급격한 변혁과정(노도광풍 전환)

< 표 1 > 한국에 있어서 산업경제 구조의 격변

국가	농업총생산/국민총생산			농업취업인구/총취업인구		
	40%	7%	소요기간	40%	16%	소요기간
한 국	1965	1991	26년	1977	1991	14년
일 본	1896	1969	73	1940년경	1971	약 31
영 국	1788	1901	113	1800년경	1868	70이상
미 국	1866	1958	92	1900	1942	42
프랑스	1878	1972	94	1921	1965	44
독 일	1854	1950	96	1897	1957	60
네덜란드	1800년경	1965	약165	1855	1950	95
덴마크	1850	1969	119	1920	1962	42

자료: 이정환(1993), "농업인력 문제의 본질과 대책의 방향", 21세기를 위하여 농업인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농업과학심포지움, 한국농업과학협회 1993: 30-42.

- 서구의 300년을 30년으로 압축한 한국의 탈농경사회화는, 인간의 가치(윤리의식)와 행동양식, 정치, 사회, 문화, 경제질서와 제도에서 유교사회적인 것을 산업사회적인 것으로 재편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있는 가치와 방향의 상실, 정신적 혼란과 세대간의 갈등 등을 야기시켜 왔다고 말할 수 있다.

- 그것은 우리가 초고속으로 진행되어온 농경사회의 해체속에서 『농경사회 이후』의 사회에 있어서 유교주의를 대체할 중심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미처 정립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 지난 30여년간 우리사회가 공유해온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고, 모든것을 『효율성』의 척도로 평가하는 『경제주의(경제성장 지상주의)』와 『경제성장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

- 정부주도 경제개발론 (정부의 지시와 통제, 시장개입의 정당화, 선의의 개발독재)
- 불균형 성장론 (공업우선, 대도시 우선개발)
- 대외지향적 개발론 (수출지상주의)
- 선 성장후 분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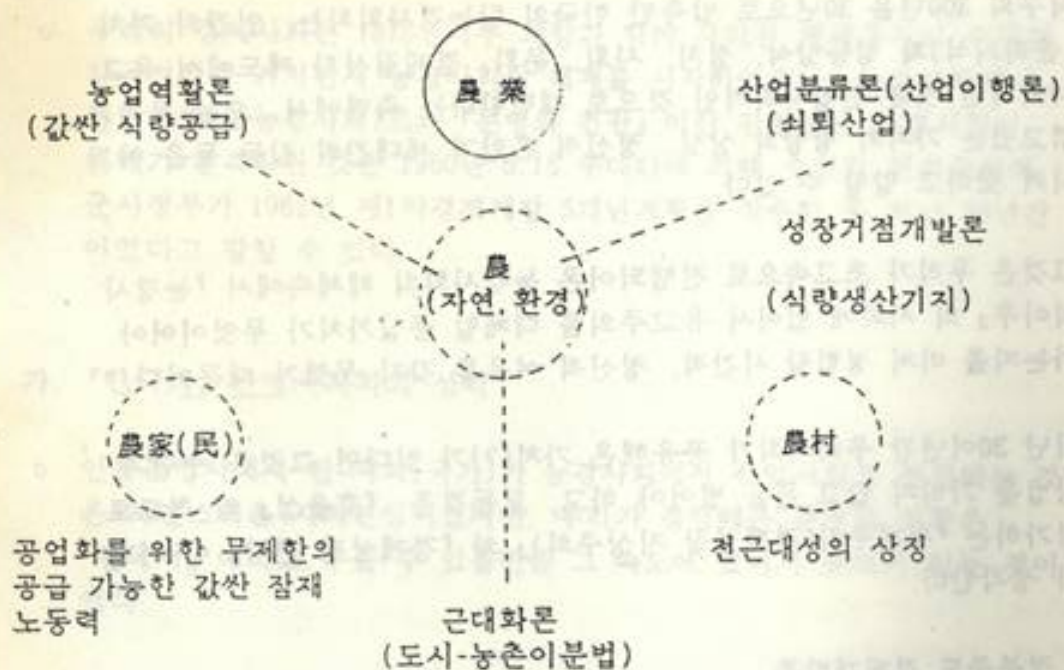
나. 『산업화의 충격』과 농의 해체

- 문명적(또는 문화적) 관점에서 산업사회는 일반적으로 농경사회적 가치제도, 질서, 틀의 해체와 재편을 전제로 성립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탈농(업, 촌, 민)화 (deagriculturalization, rural depopulation)을 추구한다.

- 산업사회는 농촌에서 도시를 분리시키고, 농업에서 공업을 분리시키므로 2분법적 갈등구조를 내재화하고 있다. 예를들면 선과악, 근대와 전근대, 진보와 보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싹고 줌 등과 같은 가치판단이 가미되면서 산업사회의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시각과 가치 부여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구조화된 것이었다.

- 한국에 있어서 30년으로 압축된 초고속의 탈농경사회화라는 『산업화의 충격』은 가해지면서 농업·농촌·농민의 기능적분리와 해체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 왔다.

< 그림 2 > 산업사회의 「3農一體」의 해체와 기능적분리



- 특히 우리 農의 原型을 이룬 「3農一體」라는 유기적 통합체는 산업사회적 가치와 질서의 창출을 정당화시키는 서구로부터 도입된 「수입이론」들에 의해서 부정되기 시작하였다.

- 이 과정에서 농촌(마을)은 「자치적 지역사회」, 「생활공동체」라는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살터」로서 보다는 농업생산을 위한 농경지(땅)에 포함된 개념으로 바뀌었고, 「식량생산기지」 정도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 농민은 공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잠재실업 상태에 있는 무제한적으로 공급가능한 값싼 노동력」으로 평가되었고,

- 농업(식량, 주곡)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민기본식량의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자연(農)의 의미는 철저하게 종산을 위해 개발되고 이용(악탈)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 그리고 산업으로서 농업은 산업분류론, 산업이행론의 관점에서 최퇴(사양)산업으로 인식되었다.

- 다시말하면 우리의 산업화는 「3農一體」속의 농업·농촌·농민·자연의 관계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농업(주곡)만을 중심으로 재편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농민(가)·농촌은 사실상 농업에 포함된 부수적인 개념으로 전락되었다.

- 이 때문에 1980년대 중반까지 추진되어온 우리 농정의 기본노선은 산업화의 진행과는 관계없이 「증산」에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왔다.

< 농정의 목표 > 식량증산(주곡자급)을 지상목표로 하는 증산농정, 농가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농촌발전 등은 농업발전만 이루어지면 자연히 해결

$$I = [Q(A \times Y) \cdot P - C] + R$$

I : 농가소득 (농업소득)
Q : 총생산량
A : 면적
Y : 단위 (기술)
P : 가격
C : 비용
R : 나머지 (마을개발, 새마을 운동 등)

o 그러나 그 「농업」도 주곡의 자급달성,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적 개방화의 압력,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영세한 가족농업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과연 살아 남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장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 「국제화의 충격」은 농의 해체를 가속시키는 또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 이 때문에 정부는 1989년 「농어촌발전 특별대책」을 시작으로 지난 30여년간의 「증산農政」을 「구조농정」으로 전환하는 「新農政」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구조농정」은 농업이 산업사회와 시장경제의 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모화 등을 촉진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다. 우리 농의 총체적 붕괴의 위기

- 「산업화의 충격」과 여기에 더해지고 있는 또다른 「국제화의 충격」은 우리 농을 이제는 해체 단계에서 벗어나서 총체적인 붕괴의 단계로 몰아가고 있다.
- 서구의 농업은 300여년에 걸친 점진적인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구조개선을 통하여 농경사회적 농업을 해체하고 산업사회의 시장경제 질서에 재통합 대규모 기계화 농업, 이윤추구의 기업화 농업이란 「산업사회적 농업」을 만들어 왔다.
- 그러나 우리의 농은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의 과정에서 산업사회적 농업으로의 자체적응, 자기혁신과정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국제화의 충격」을 받으면서 붕괴되고 있다.
- 농가의 붕괴 (후계세대의 단절로 농가의 소멸과정)
- 농업의 붕괴 (농업의 무기화, 약탈화)
- 농촌의 붕괴 (마을의 공동화)
- 이러한 우리 농의 총체적 붕괴의 기저에는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우리 농자들의 恥, 賤農과 脫農意識이 자리를 잡고 있다.
- 「산업화」의 급격성과 이를 수용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물질, 제도적, 정신적 기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이론」이 전파하는 농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과 이를 기초로한 도시-공업 편향적인 시책들은 우리 농자들에게 농업과 농촌은 희망없는, 포기되어야 할 대상임을 다시 확인시키고.
- 산업화와 함께 팽창하는 도시와 공업은 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농자들의 잠재적인 탈농의식을 더욱 자극 현재화시키면서, 인류문명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의 탈농이론과 그로인한 우리 농의 총체적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
- 역사적으로 차별과 천시, 수탈과 억압의 대상이었던 농자들에게 있어서 공업과 도시는 농자들의 「탈농의恨」을 풀어 줄수 있는 새로운 분출구가 아닐 수 없었다.
- 그리고 오늘의 도시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탈농세대」들의 농에 대한 원천적인 부정적 시각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사회의 농에 대한 물이해와 편견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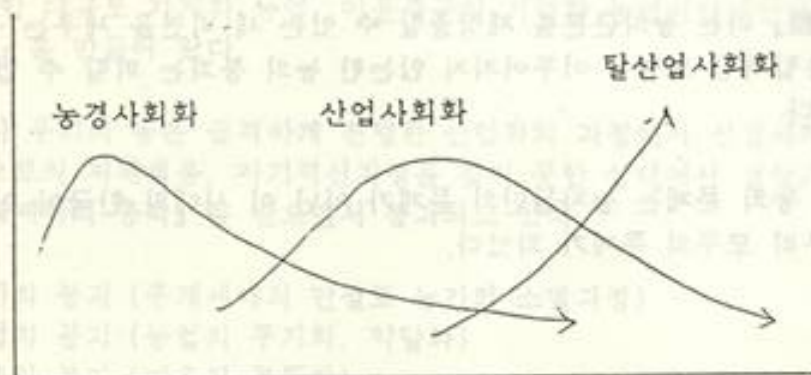
- 따라서 오늘의 우리 농이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붕괴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농의 장래에 대한 새 비전, 특히 급격한 산업화와 국제화의 충격으로 해체되고 있는 농을 21세기의 사회경제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통합시킬 수 있는 농의 중심가치를 재정립하고 농업과 농촌, 농자의 「3農一體」라는 농의근본을 재창출할 수 있는 새 비전을 세우는 우리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농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이제 농의 문제는 농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의 한국이 안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4. 「탈산업화」의 새 물결과 농의 장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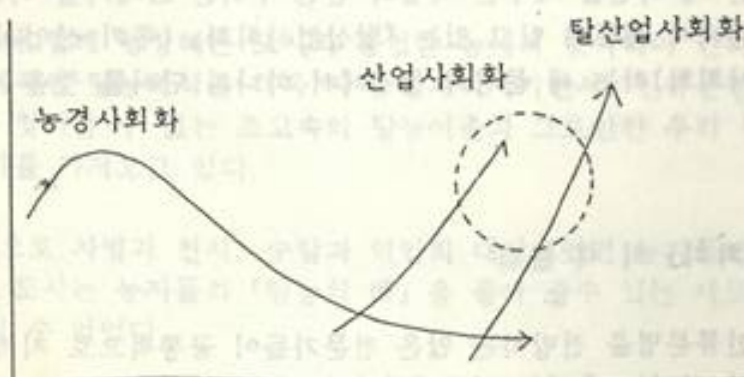
- 농의 해체와 붕괴가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求農을 위한 새 비전을 찾는 작업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임시방편적이고, 일관성 없는 시책들의 나열이 붕괴 위기에 처한 농을 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求農을 위한 새 비전을 세우는 작업과 관련 우리는 21세기를 여는 20세기말의 상황에서 새롭게 일고 있는 「탈산업사회화」(후기 산업사회화, 또는 정보사회화)라는 새 문명의 물결에서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 가. 「탈산업사회화」의 새 물결
- 21세기의 인류문명을 전망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관점의 하나는 우리는 지금 「탈산업사회」를 지향하는 문명적 대변혁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 그림 3 〉 문명 전환의 방향성

〈 서구의 경우 〉



〈 우리의 경우 〉



○ 특히 20세기 중반이후 전자산업의 발전이 가져온 기술혁신은 『정보혁명』(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확산의 전지구적 동시화, 즉시화)을 가져왔고, 300여년간에 걸친 산업화가 가져온 지구적인 인간소외(인간의 상품화와 수단화),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고 있으며, 그 결과들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시장적, 경쟁적』 관계가 아닌 『상보적, 조화적』 관계에서, 『生命』의 관계에서 재정립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특히 산업사회가 추구해온 가치들, 예를 들면 시장화와 획일화, 대규모화, 집중화, 분업화와 전문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위한 탈시장화, 탈규격화, 탈규모화, 차별화, 개성화, 다양화, 분산화를 추구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산업사회의 『규모(양)의 경제』는 『종류(질)의 경제』로 변하고 있고, 『생산(공급)중심의 경제』에서 『소비(수요)중심의 경제』로 바뀌면서 시장을 매개로 철저하게 분리된 대량생산, 대량거래, 대량소비의 관계가 개성적 소비에 맞는 소량 다종목의 생산과 거래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생산이 요구하는 소비』가 아니라 『소비가 요구하는 생산』이란 관점으로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식품』에 대한 점증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생산자들이 더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환경파괴등 극단적인 개인적 이윤추구가 빚어낸 일체의 사회적 비용의 내생화가 요구되고 있다.

·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거대시장 속에 함몰된 『침묵하는 소비자』들이 인간적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행동하는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의 하나는 『탈산업사회』가 추구하는 개성화, 다양화, 분산화 등의 새로운 가치들은 그 본질적 성격에 있어서는 『산업사회』가 철저하게 파괴시킨 『농경사회』의 일반적인 성격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 우리의 경우는 지난 30여년간의 『노동강박과 같은 탈농경사회화』가 아직도 우리사회를 문화적으로 산업사회로 확립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탈산업사회화』라는 새로운 문명전환의 충격을 받고 있다.

< 표 2 > 문명의 전환과 농업의 비전

농 경 사 회	산 업 사 회 (탈 농경사회)	후 기 산 업 사 회 (탈 산업사회)
○ 자연적 재해와 사회적 수탈속에서 생존을 위한 「더 많은 식량생산」 ○ 자급자족 - 생산, 소비일치 - 단순교환 - 생계우선 ○ 자연과의 조화 - 자연이용 - 자연재해의 최소화 ○ 증산을 위한 생물학적 기술 - 식량을 위한 다품목 소량생산(polyculture) - 분산화, 다양화 - 통합화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이윤을 위한 「더 효율적인(더 값싼) 상품생산」 ○ 시장화(값싼 상품) - 생산, 소비분리 - 상업화, 기업화 (이윤추구) - 시장경쟁(판매우선) ○ 자연의 정복, 약탈 - 토지약탈 - 자연재해 극복 - 생태계 파괴 ○ 이윤을 위한 화학적, 기계적 기술 - 상품생산을 위한 다수작 중, 단일품목으로 단순화(monoculture) - 분업화, 전문화 - 규격화, 표준화 - 대규모화(거대기술)	○ 지속가능한 생명을 위한 「더 좋은(올바른) 식품생산」 ○ 탈시장화(좋은 식품) - 안전한 식품생산을 위한 생산과 소비의 교류 확대 - 소시장화, 지역시장화 (직거래) ○ 자연생태계의 보전 - 자연재해의 관리 - 파괴된 생태계질서의 복원 ○ 깨끗한 안전한 식품을 위한 생물학적 기술 (유전공학 등) - 지속가능한 농법 - 다양화 (다품목 소량생산) - 유기적 통합화 (시스템화) - 차별화 - 탈규모화 (적정기술, 작은기술)
↓	↓	↓
○ 절대공급 부족 ○ 자연재해	○ 공급과잉 ○ 식품의 안전성 위협 ○ 환경파괴 ○ 구조조정의 악순환 ○ 지속가능성 문제	?

- 농경사회적 시각과 사고, 제도들이 산업사회적인 것들과 갈등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탈산업사회적인 새로운 사고의 주가는 우리 사회를 정신적으로 물질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무가치, 무원칙, 무비전, 무질서의 사회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적이 없는 새로운 「한국적 문명의 창조」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 아직도 농경사회적 가치와 질서가 존재하고 있고, 서로 상반되는 「산업사회와 탈산업사회」적인 비전이 공존하는 속에서 서구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해체된 유교적 농경사회를 「21세기를 지향하는 탈산업사회」로 어떻게 재통합시키느냐라는 대단히 새로운, 그러나 창의성과 상상력을 요구하는 문명적 도전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나. 탈산업사회와 農의 새 장래

○ 탈산업사회화를 지향하는 21세기에 있어서 정보화의 확산과 행동하는 소비자들의 「生命」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수단인 하나로써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는 농업과 농촌의 존재양식에 심대한 변혁을 가져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그러한 변혁은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 대도시 집중화의 한계와 비경제성 증대로 자치적, 공동체적 지역사회로서 농촌의 재발견

- 안전한 식품 확보를 위한 식품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참여 확대와 농업의 재발견

- 자연과 더불어 자연속에서 자연과 싸우며 식품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농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된 노동에 대한 재평가

- 이러한 농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은 산업사회에서 자연으로부터 분리되고, 소비자들과 분리되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농업을 탈산업사회에서는 자연생태환경과 소비자와의 조화속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농업의 지속성을 가능케하고 농자들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하는 농업으로 재편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 안전한 식품과 깨끗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강한 농업」(환경보전형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농업의 도입(예: 유기농법 등)과 농업에 있어서 생산, 유통, 가공 등 전 과정의 유기적 통합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 이러한 새로운 농업은 산업사회에서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농업을 유기적으로 재통합시키고, 상품의 차별화, 자기 상품에 대한 안정된 소비자의 확보라는 시장의 차별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 특히 지방화, 탈도시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발전은 시장 그 자체의 지방화, 분산화를 가능케 하므로써 농업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단축시키고(탈시장화), 생산에 있어서도 「탈규모화」, 「규모의 적정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o 탈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농업은 식품산업이면서 환경산업으로서 우리 모두의(미래의 세대까지를 포함해서) 생명을 지속가능케 하는 「生命産業」으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o 이러한 전망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산업으로서 농업, 지역사회로서 농촌의 진장한 가치와 그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재인식과 재발견, 새로운 자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자들의 생산양식과 소비자들의 생활양식, 소비양식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한살림)일 수 밖에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

- 특히 자연과 더불어서, 비바람속에서, 흙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농업과 이를 담당하는 農者들의 노동을 賤視하는 사회에서 누가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식품」을 가능케 할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고 있다.

5. 우리 農의 새 비전을 세우자

o 미래의 현실은 현재의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속에 들어 있으며, 새 비전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세우는 것이다.

- 오늘의 우리 사회가 농에 대한 새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자들을 포함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농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의 새 비전을 세우겠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恥農, 賤農, 脫農意識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 우리 農의 장래 선택: 몇가지 전제

o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農의 가능성이나 장래, 농의 새 비전이 있는가를 묻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제들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건강한, 지속가능한) 삶의 존재양식은 무엇인가?

-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인구 5,000만(통일후 인구 7,000만)의 몇 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의 건설인가? 인류문명사에서 인구 5,000만의 먹거리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면서 지속가능했던 도시국가가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 몇개의 대도시를 제외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인간을 배제시킨 땅으로 자연화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67,500 여개의 자연부라들이 붕괴되고 노인들만의 「양노원촌」으로 되는 것은 과연 어쩔수 없는 일인가?

-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파괴, 땅과 물의 오염, 식품의 안전성 저하, 식품공급력의 감퇴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나와는 무관한 농자들만의 일인가?

○ 이상의 질문들은 우리 국토와 농업, 농촌에의 장래와 관련 우리사회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 우리 모두가 『원손으로는 恥農, 賤農, 脫農을 더욱 부추기면서, 바른손으로 환경파괴와 농촌붕괴, 식품오염을 걱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 만약 농업과 농촌이 존재해야 하는 당위가 있고 이를 담당할 주체로서 건강한 농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농업·농촌·농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시각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국민적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 그것은 농자들의 노동가치에 대한 정당한(올바른) 평가와 그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것은 『나 부터서』 농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나. 우리 農의 새 비전

○ 우리 農(업, 촌)의 새 비전을 세우기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의 하나는,

- 서구에서는 『탈산업사회의 농업』이란 관점에서 새 비전(안전한 식품 깨끗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지고 농업의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데,

- 우리가 오늘의 농업을 『산업사회의 농업』으로 재편하고, 서구가 걸어온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다. 특히 고도의 에너지 소비적이고, 환경파괴적인 산업사회적 대규모 기계화농업을 전제로 하는 구조혁신은 결국은 『한국적 엔크로우저』에 의한 농촌붕괴와 그로인한 농업붕괴 만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하기위해 『산업사회의 농업』으로의 구조혁신을 목표로하는 『신농정』의 비전에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농경사회적 농업』의 해체가 이루어졌으나 그것의 재통합은 『산업사회적 농업』이 아닌 『탈산업사회적 농업』의 비전을 기초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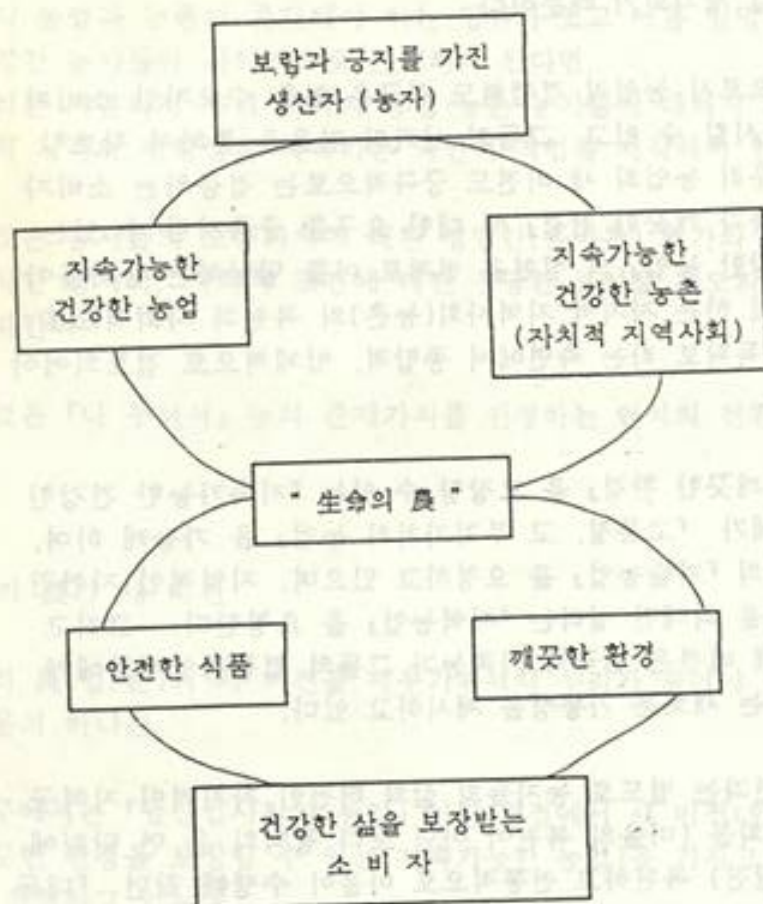
○ 근본적으로 산업으로서 농업의 경쟁력도 결국은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들의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새 비전도 궁극적으로는 점증하는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과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한 농업』의 실현을 전제로 이를 담당하는 농자들이 살 맛이 날수 있게 하는 자치적 지역사회(농촌)의 복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소득확보 라는 측면에서 종합적, 입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안전한 식품과 깨끗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한 농업』은 그 자체가 『고품질, 고 부가가치의 농업』을 가능케 하며, 첨단적 생명공학의 『기술농업』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자연환경의 비교우위성을 최대한 살리는 『지역농업』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의 새 비전은 한국적 가족농과 그들의 협동경영체들에게 살아 남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농업에 대한 비전과는 별도로 농자들의 삶의 터전인 자치적인 지역공동체로서 농촌사회를 (마을의 복원이 아닌 보다 광역의 읍, 면 단위에서 농촌정주 생활권) 복원하고 전통적으로 마을이 수행해 왔던 『대동사회』로서의 기능을 되살리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군이란 기초 자치단체를 실질적인 농촌지역 발전의 주체로 확립시키는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현은 붕괴되고 있는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 그림 4 > 21세기를 향한 우리 農의 새 비전



○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生命의 農』이란 새로운 가치를 공동매개로 생산자(농자)와 소비자가 하나의 문화공동체, 생활공동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수준에서 뿐만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수준에서 일체감과 연대의식, 공생의식, 책임의식을 공유하므로서 農의 새 비전은 단순한 이상이 아닌 실현가능한 현실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 특히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식품』은 비전을 가진, 보람과 긍지를 가진 건강한 생산자(농자)의 사회적 존재를 전제로 가능하며, 그들이 농촌에서 농업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갖추게 될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農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은 농자들만의 일이 아닌 우리 소비자 모두의 이해와 참여, 지원이 요청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 우리 農의 새 비전을 세우자

○ 우리 사회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진정으로 『안전한 식품과 깨끗한 환경』을 원한다면 우리 農의 총체적 붕괴를 이대로 방치하고, 농자들의 선택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 농자들은 사실상 무너지는 農을 구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지쳐있기 때문이다.

- 『이 대로는 안된다』는 사회적 자각이 있어야 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지는』 새로운 실천이 있어야 만 한다.

○ 農者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農의 根本, 原型을 회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체되고, 분리된 농업과 농촌과 농자들 『生命의 農』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재통합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 『生命의 農』을 지키고, 가꾸는 農者들이야말로 『天下之大本』이란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자긍심은 누가 갖게 해줘서 갖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農業이란 자원환경산업, 생명산업은 인류의 생존과 더불어 영속적인 것일 수 밖에 없고, 미래의 농업은 그것을 지키고 가꾸겠다는 의지를 가진,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농업은 「못배우고 능력없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는 짓」이란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의욕있는 젊은 이들이 미래의 農에 참여할 수 있는 「21세기의 새 農者」를 길러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과거처럼 「세습에 의한 농자의 육성」은 이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農一體」라는 우리 農의 原型을 미래지향적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은 결코 쉬운일도, 그렇다고 결코 불가능한 일 만도 아니다.

300년에 걸쳐 철저하게 파괴되고 사라져 버린 서구와는 달리 「농경사회적 농의 원형」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히려 서구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산업사회적 농」이 부정되고 있는 서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적 농의 길」을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 재정립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농율적인 거대농업」이 오히려 환경파괴적이고 자원 약탈적이며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만들어 낸다는 서구의 경험에서 우리는 「비농율적이고 작은 농업」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환경보전적이고 상보적이며 안전한 식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 만 한다.

「生命의 農」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더이상 농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우리사회,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중적사회에서 횡적사회로

李 南 谷

큰변화의 물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작게는 개인의 삶에서 크게는 세계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물결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필자는 이를 종적사회로부터 횡적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적사회란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로서 지배·예속·투쟁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회를 의미하며, 횡적사회란 자유로운 개성의 신장을 바탕으로 한 평등사회로서 주로 연대·공존·상생의 상호작용이 내용으로 되는 그런 사회를 의미합니다. 장구한 인류역사를 되돌아볼때 그 큰 획으로 된 것은 전문명의 원시적 수평사회에서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져 소유제도와 계급제도에 바탕을 둔 종적사회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인간존재의 특성인 그의 인식·행위능력의 발달에 기초한 생산력의 비약·신석기혁명-으로부터 초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이 없었다면 인간은 행복했을 것이라던가 또는 전문명적 수평사회로 돌아가자는 생각들은 인간존재와 그 역사전개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의 특성은 한편으로 불평등이 체계화된 종적사회구조를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의 매 시기마다 이를 극복하는 횡적사회를 추구하는 노력을 쉬지않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있는 인류역사의 모든 페이지가 자유와 평등의 확대를 위한 장엄한 투쟁과 연대의 이야기들로 수 놓아져 있음을 보면 확실해 집니다.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히 불확실하게 보이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필자는 과거 역사의 축적을 토대로 과거보다 훨씬 큰 폭과 현실성을 가지고, 종적사회의 붕괴와 횡적사회의 여명을 감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횡적사회는 평등성이나 전 문명적 수평사회로의 복귀를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이 구조화된 이래 인류사를 관철하는 최선의 노력들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노력이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추구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혁명 이후 의식적, 물적 토대가 갖춰지면서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을 넓은 의미로 사회주의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세계사를 통해 근대 이후의 사회주의의 전개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접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횡적사회는 이 지상에서 실현되기 힘든 유토피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횡적사회를 향한 이상의 좌절이 아니라 오

히려 그러한 이상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던 근본 장애를 넘어서서, 보다 참다운 횡적 사회를 향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종적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적 틀을 통해 횡적사회를 이루려고 한 그 자체에 이미 실패의 씨앗이 있었으며, 이 씨앗이 자라 마침내 거대한 장애로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소위 민주집중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개과정에서 민주화하는 횡적인 틀보다 집중이라는 종적인 틀이 우세하게 되는 것을 막지 못함으로써, 악영의 관료제도로 나아갔고, 사회주의의 체제원리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채 한낱 국가자본주의의 변형된 형태로 되어 결국 붕괴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가 합니다. 그에 비하면 선진자본주의 사회는 그 종적 본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여 체계적 결합을 보완하였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횡적 틀의 정치제도와 결합함으로써, 비록 종적 본질의 사회일지라도 횡적 틀과 횡적의식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체계 원리를 갖추었으므로 존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횡적의식을 가지게 되고 민주주의라는 횡적 틀이 발전하게 되면, 그것은 사회의 종적 본질을 변화시키는 참된 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사적 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횡적사회를 지향하는 이상의 좌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횡적사회를 향한 조건들이 성숙되는 위대한 전환기로 오늘날의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횡적사회의 이상도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인가

원시적 수평사회로부터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 평등사회의 이상은 실현된 적이 없었으며, 이러한 이상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 동기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최소 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수직적 질서는 불가피하며, 이러한 구조가 사회 성원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하는 사회적 기제로 작용하여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나간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배치되는 횡적사회에의 이상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며, 20세기의 거대한 역사적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대단한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살펴 본다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기심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존재해온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횡적사회에의 끊임은 인간의 또 다른 본성의 하나가 아닐까요.

또 모든 이상들은 다 실패했다고 하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이상은 결코 없었으며,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역사 속에 축적되어 횡적사회를 지향하는 흐름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왔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필자는 이기심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이익을 초월하려는 동기도 인간의 본성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둘의 병존이 인간의 실상이 아닐까요. 이 두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이고 인간적인 것인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토록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되는 이기심에 대해 그 바탕이 되는 소유와 차별의식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유의식과 차별의식은 소유제도와

불평등구조가 체계화됨에 따라 나타난 것인데, 이는 인류역사의 긴페이지에서 본다면 물라도 인간에게 특유한 소유의식에 바탕을 둔 이기심을 영속하고 불변하는 인간의 속성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기심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는 견해는 끊임없이 존재해온 횡적사회를 추구하는 노력들도 인간의 본성에 토대하고 있다는 견해보다 결코 더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고도한 행위능력(그 직접적 표현으로서의 생산력)이 기존의 이기적 가치이념체계가 변화되지 않는 한 이제 발전의 조건이 아니라 질곡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현대의 상황속에서는 사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횡적사회에의 이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익을 초월하는 인간의 동기는 이제 소수 이상주의자들의 환상(?)속에서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행복하기 위한 보통사람들의 가슴속에 점점 더 폭넓게 자리잡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구체적 사실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횡적사회로의 전환만이 인류 생존과 자신의 행복의 조건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신의 지배(支配) 아래 놓인 인간의 근본적 소외가 하루하루 목을 조여 오는 생태환경의 위기에 직면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가치이념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입니다.

문명 이후의 세계에서 사상 초유로 이익이 아니라 초월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조건으로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경향과 이익을 초월하려는 인간 경향간의 불균형이 역전되어야하고 역전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횡적사회에의 이상은 결코 인간의 본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마음 깊숙이 뿌리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인간적 특징입니다.

새로운 진보운동이 통과해야 할 터널

위에서 말한 내용들은 요즈음의 사회적 변화 속에 그 구체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발전단계와 문화적·역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변화의 밑바탕에는 다원화·민주화의 보편적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경향위에서 특히 횡적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 형태의 자율적이고 자각적인 운동이 대단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조건에서 진보운동은 바로 이러한 자율성과 자각성에 바탕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횡적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은 그 방법과 절차 또한 횡적질서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운동가들의 의식과 동기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형태를 광범한 의미에서 시민운동이라고 말한다면, 시민운동의 고양은 기왕의 전통적인 정치운동,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사회의 질적변화를 위한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요즈음 참여와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각종 협동운동, 환경생태운동, 시민경제운동, 시민정치운동 등이 앞으로의 진정한 사회발전, 즉 횡적사회로의 이행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이상의 여러 운동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 목표와 방향 뿐 아니라 운동체 내부의 질서까지가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겠지

여기서는 새로운 운동의 참여자, 특히 적극적인 추진자들에게 공통되게 요구된다. 생각하는 과제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필자는 새로운 운동가들이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터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적 사회에 알게모르게 혼입되어 있는 뿌리깊은 종적의식의 터널입니다. 소유와 차별의식에 바탕을 둔 종적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운동의 근본지향과 운동가의 성향이 근원에서 모순을 일으키게 되어 운동은 실패하거나 이상한 모습으로 왜곡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가 주눅든 상태에서 벗어나 당당한 노동운동가로 변신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노동운동(조합)내의 헤게모니나 동료와의 경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는 아직 동료들을 배반할 가능성을 그의 심성 깊숙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협동운동이나 시민정치, 경제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됩니다. 본질에 있어 사회를 추구하는 이러한 운동의 주도자, 참여자들이 종적의식의 포로가 되어있는 한 운동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옷만 바뀌었고 몸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운동은 광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의 승패여부는 운동가 자신이 먼저 자신을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인간은 산속에서 수행한 사람들이 내려오거나, 어느날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 속에 끈끈하게 남아있는 종적의식의 잔재들을 일상생활과 운동 속에서 털어내려는 치열한 노력이 그를 점차 새롭게 변모하게 할 것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노력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러가지 갈등, 여러가지 사상, 여러가지 신앙들이 혼재 공존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방식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이해와 의지를 모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심작용으로 치닫는 우리의 여러가지 악조건들을 극복하여 참다운 구심력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둘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진리실천운동을 제의하며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불교적 표현으로 '서원실천운동'이라 제의한 바있거니와, 이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진리실천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과 형태는 앞으로 많은 뜻있는 사람들의 진지한 노력 속에서 나타나고 발전해 갈 것입니다. 다만 이 운동은 사람의 가치이념체계, 그의 삶의 동기와 생활양식을 바로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할 것이며, 그러한 내용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운동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해야하는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감대를 넓혀가리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이던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종적사고체계와 생활양식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그 구체적인 틀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던, 지금까지의 소유와 차별의식에서 무소유와 무차별을 지향하는 의식으로 전환하고, 그에 적합한 생활양식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발견

하는 사람들의 대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비록 전면적으로 개화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연면하게 숨쉬며 살아왔던 인간의 선의지를 자기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실현하려는 생동하는 운동체, 이는 어느 누구의 고통이나 회생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며, 특정의 지역, 당파, 종교, 사상 등에 근거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 간직되어 있는 선의지 속에 그 근거지를 마련해 갈 것입니다. 물신(物神)의 지배(支配)와 이기(利己)의 늪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익을 초월하는, 사실은 가장 큰 이익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운동의 여러 분야에 많아질 때만 우리 민족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갈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질적 진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실제 현실과 대단히 동떨어진 공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어진 상황을 냉철하게 본다면, 민족공동체의 생존 변영이나 더 심하게는 인간이라는 종(種) 자체의 존속이 이러한 노력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평등의식이 강한 민족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역사적 조건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모아놓으면 모래알 같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 땅에서 진리실천운동이 뿌리내릴 수 만 있다면, 앞으로 전개될 세계사에 새로운 문명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고난과 희생으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도 결코 잃어본 적이 없는 우리 선조들의 비원을 적극적으로 실현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세계를 보면 낙관적인 요소와 비관적인 요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뒤엉켜 있어서 과연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회의가 생기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큰 전환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통해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과 힘을 통찰한다면 무엇이 성장하는 요소이고 무엇이 쇠퇴하는 요소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것은 횡적사회의 요소이며, 쇠퇴하는 것은 종적사회의 요소입니다. 무소유와 무차별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확산되는 것 - 한 사람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 이야말로 횡적사회를 위한 핵심적 요소입니다. 불교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바로 이런 측면에 잘 부합됩니다. 현대의 한국 불교가 인간과 세계의 거대한 전환에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참회하고 실천합니다. 우리는 오늘에 와서 비로소 다음의 명제가 구체적 전망을 띠고 다가옴을 실감합니다.

『자기 완성된 세계 환성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II부

생협운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하여

여기에 실린 자료들은 공부모임 자료집이다. 대학생협연합건준위에서 93년에 세차례의 공부모임을 가졌는데 그 중 2,3차 공부모임에서 진행된 내용을 대학생협연합건준위에서 정리하고, 다시 강사들의 감수를 거쳐서 생활협동조합운동 공부 자료로 만든 것이다. '생협운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공부모임 자료집이 생협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

협 동 조 합 론

정 병 호

1.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모순이 존재한다'에서 부터 출발한다. 자본의 모순구조 즉 계급적 대립구조를 해결하는 데는 지금까지 두가지 방법적 모색(혁명적인 방법, 개량적 방법)이 존재해 왔다. 그 중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

사적소유와 자유경쟁, 영리추구와 노동의 상품화를 지도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와 기회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자체 내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부의 사회적 상속, 차별적 기회구조, 자유경쟁이 가져다 준 자유의 부자유화 현상¹⁾과 함께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물신성(物神性)의 조장이라는 자체 내 모순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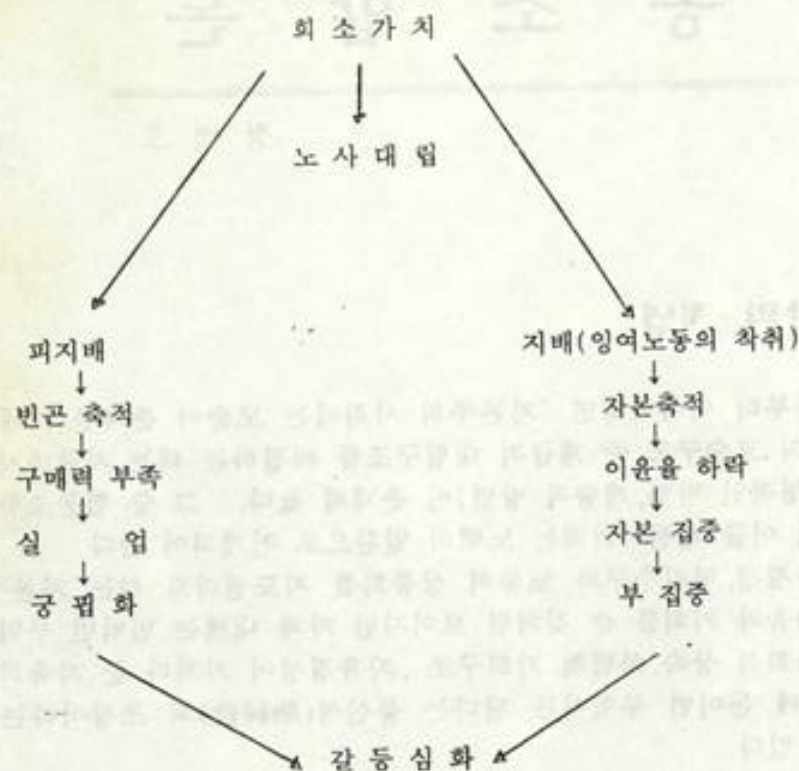
자본주의의 이런 모순은 마루쿠제가 이야기한 "최소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잉여노동의 착취자인 자본가는 부를 점점 축적해 가며, 임노동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계급간 갈등이 심화된다. 여기서 협동조합은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된다.

자본주의의 원리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 모순을 체험한 갖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 처지가 같은 어려운 사람끼리 힘을 합쳐 공동대처하는 데서 부터 출발한 것이 협동조합운동이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의 조직이다. 만약 돈있는 사람이 힘을 합쳤다면 그것은 카르텔이나 기업연합으로 불려지지, 결코 협동조합이란 말을 쓸 수 없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상부상조의 단체로서 모든 생산수단을 공평하게 갖자는 생산민주화를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정착,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그 조직과 운영도 민주적 관리에 따르게 된다.

(1) 신분제에서 벗어난 임노동자가 자유계약에 의한 자유노동이 가능하게 되고 그로부터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가 판 노동에 의해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에게 결박당하게 된다. 강자에게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약자에게는 굴레로 다가선다.

□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구조 □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제도든 간에 그 제도 안에는 자기를 비판하는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자본주의도 바로 자기 안에 자본주의 모순을 비판하는 씨앗을 잉태하면서 발전해 왔다. 사회학자 소로킨(sorokin)이 이데올로기론에서 말했듯이 이데올로기는 부분적으로 진리인 동시에 부분적으로 허위이다.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여전히 자기의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시대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은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즉 니이체가 '신은 죽었다'²⁾에 의미하듯 기존의 이데올로기 도그마는 더이상 그 유효성을 상실하는 대신, 프랑스의 보드리야르, 푸코 등의 포스트 모더니즘³⁾ 철학자들이 주장하듯 현대는 근대

(2) "파라루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로 여기서 신은 절대적 진리의 은유적 표현이다. 절대 진리의 사망선고는 니이체가 했는데, 뉴우튼 세계관에서는 절대적 진리를 과학 = 이성으로 본 것이다.

(3) 포스트란 시간적 차원에서 후라는 뜻과 공간적 의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된 개념이다. 현대를 벗어나서 넘어선다는 발상은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직된 권위와 관습, 지배문화에 대한 전세계적 거센 반발 이후 언어, 현실, 역사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직 새로운 대체문화를 찾지 못한 채 이전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 특징은 전체적 통일성(획일

의 거대이론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다기한 혼잡스러운 얘기"가 우리를 견인해 갈 것이다. 즉 "지식의 감옥"으로 벗어나 제 3의 길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담화⁴⁾들을 구성, 그 속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협동주의의 역사

협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먼저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영국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태동한 협동조합은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그 논리는 어느나라나 이념적 평균(idealaverage)에 따라 같은 모습으로 진행된다.

협동조합이 영국에서 발생하게 된 첫번째 원인을 16세기와 18세기의 두차례 걸쳐 발생한 Enclosure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Enclosure 운동은 봉건제 속에서 공동경작을 하던 토지를 특정인이 사유하게 되면서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이농실업자로 분해되는 토지분해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생산자인 농민은 생산수단인 토지로부터 분리되며" 지주는 최초로 "본원적 축적"이 가능하게 되고 계급분해가 생기게 되었다.

지주는 본원적인 축적이 가능하게 되고 이농자는 신분으로부터는 자유로와질수 있었지만 이농자는 노동력을 팔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Enclosure운동이다.

두번째 사건은 산업혁명으로, 산업혁명은 기계체계의 출현을 의미한다. 기계체계의 출현은 가치법칙의 성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때 가치법칙이란 같은 상품이라도 질 좋고 값싼 놈이 그만 못한 놈을 이긴다는 것을 말한다. 공장제공업이 들어서면서 가치법칙에 의해 기존의 수공업이나 공장제 수공업이 소멸하게 된다. Enclosure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지주와 이농실업자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가와 임금노동자로 만나게 된다.

경제적 약자들은 자본주의의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삶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약자들의 자기에 대한 자각(Ecstasy)⁵⁾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1811~12년 억압의 원인을 기계에서 찾아 공장의 기계를 파괴했던 기계파괴운동과 1837~1848년 자기들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보통선거권과 구빈법 철폐를 위한 헌

성)을 부정하고 해체-파편화를 주장하며 고정성 대신에 가변성과 불확실성의 측면을 중요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기조는 시대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심미적, 예술적 분야에서 좁은 의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을 막론하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시대적 조류, 시대사적 개념이 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서구 산업문명에 대한 총괄적 비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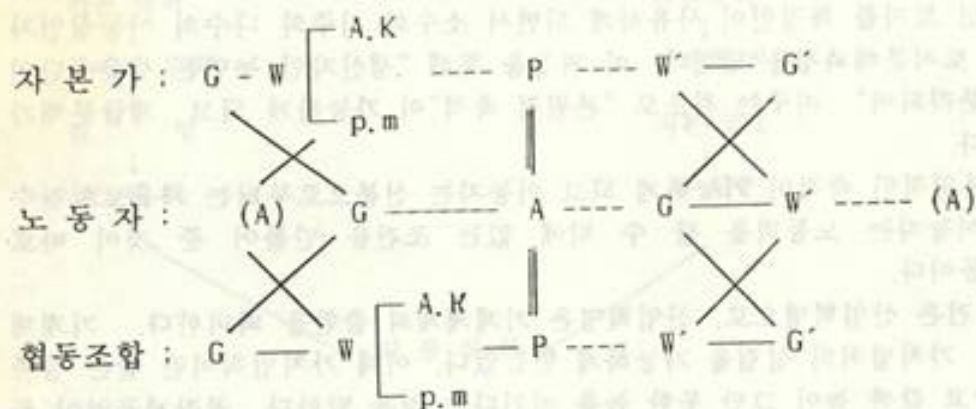
(4) 담화 : 새로운 도그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言述을 통하여 지혜를 만드는 것

(5) Ecstasy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멀리서 바라보아야 명료하다는 자기 자각의 과정을 뜻한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남을 위해 존재하는 즉자적 존재가 아닌 '내가 나로구나' 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느끼는 대자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장운동(차티스트 운동)의 두가지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경험했던 28인의 사람들이 모여 1844년 12월21일 로치데일에 세계 최초의 공평개척자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것이 간추려 본 협동조합 역사이다.

3. 협동조합의 기능

필자는 "갈등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접근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체제내의 모순과 약점은 그 안에서 제도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본순환의 원리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G= 화폐 / W= 상품 (A,K= 노동력, p,m= 생산수단) / P= 생산과정]

자본가는 돈을 가지고 상품(노동력과 생산수단)을 사서 생산과정을 거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새로운 화폐를 회수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와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일을 한 댓가로 인건비를 받고, 그 돈으로 생활하기 위해 자기가 만든 상품을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가는 끝목마다 대립적인 관계로 서 있는 것이 자본순환의 원리이다. 만약 협동조합이 생긴다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을 고쳐서 자본가가 자본을 순환시켰던 것처럼 협동조합이 G가 W를 사고 P과정을 거쳐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가가 주역으로 나왔던 자리에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한다는 뜻이다. 똑같은 자본순환과정을 겪으면서 대립적이던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와 뜻에 의해서 운영한다. 자본순환의 주체인 산업자본가, 대부자본가, 상업자본가의 약자에 대한 이자, 이윤을 배제하고 조합원들에 의한 출자와 운영, 연대를 통해 공동판매, 공동구매, 공동금융, 공동구제, 공동이용,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는 것이 협동조합운동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즉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조합원에게 이롭게 만들면서 자본가의 몫으로 되었던 것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능이다.

4. 협동조합의 원칙

협동조합은 로치데일 협동조합 이래 그 활동을 바탕으로 연구되고 정리된 원칙들이 있어 왔다. 최종적으로는 ICA총회에서 확정된 6가지 원칙이 사용되고 있다.

1. 가입자유의 원칙
2. 민주적 운영의 원칙
3. 출자금 배당의 제한의 원칙
4. 잉여금 배당의 원칙
5. 교육 촉진의 원칙
6.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원칙

이중 잉여금 배당의 원칙을 살펴보면 초기 로치데일 협동조합에서는 이용고에 따른 배당의 원칙이 지켜졌다. 그러나 이용고에 따른 배당을 하다보면 협동조합 안에서 자본주의 모순인 계층분화라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소지가 있다. 때문에 협동조합은 조합의 사회화 대규모화라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앞서 말한 잉여금 배당을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조합원의 교육이다. 협동조합의 올바른 운영은 조합원의 참여에서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조합원이 올바르게 교육되었을 때 가능하다. 초기 협동조합 선구자들이 각종 교육기관을 세워 강조했듯 것이 바로 교육의 중요성이다.

이 기존의 원칙 위에 보다 나은 협동조합의 원칙을 모색해 왔는데 1988년 ICA 회장인 Lars Marcus의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제시되었다.

1. 조합원의 참가
2. 민주주의
3. 성실
4. 타인에 대한 배려

이중 타인에 대한 배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혼자서 잘사는 것이 아닌 같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또, 92년 10월 동경에서 열린 ICA 30차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가치들이 채택되었다.

1. 조합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활동

2. 참가적 민주주의
3. 인적자원의 동원 또는 개발
4. 사회적 책임
5. 국내 및 국제적 협력

이 결의는 추상성을 극복하고 조합원의 간절한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에 기인한 사업의 전개와 물신성에 짓눌린 인간상을 극복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5. 한국 협동운동의 좌표

한국협동운동의 좌표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난 개발의 연대를 설명하고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16쿠데타 이후 진행되었던 경제개발은 관주도의 하향식 방법이었다. 민중들의 희생 위에서 진행된 공업 우선의 불균형 성장이었다. 이런 경제정책 결과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편차는 심해졌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세력간의 균형된 의견이 끌고루 반영되는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만이 반영되는 베어링시스템(Bearing)화 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개발독재에 의한 B.A(관료적 권위주의)체제로 인한 중간 집단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사회를 배경으로 한 협동조합은 자기의 본질을 강요당해 왔다. 이런 협동조합의 변질화는 몇가지 구체적인 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 농·수·축협법에 있었던 출자에 대한 이자 배당 제한의 원칙을 모범에서 없애버리고 각 협동조합 정관에 일임함으로써 조합원 출자를 유도함으로써 자본주의 단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2. 대면적 접촉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지켜오던 소구역제를 대신하여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대구역제의 도입
3. 조합원간의 계급적 동일성이 없는 산업권역별로 조합원을 모아 조합원간의 계급적 이질성 노출
4. 상업이윤을 배제하는데만 힘을 쏟으면서 보다 근본적인 상업이윤 배제 사업을 해오지 못한 점
5. 성실한 조합원을 선정 용자를 해주는 對人신용이 아닌 대물신용에 의한 신용 사업
6. 소득비에 따른 공제로 산출이 아닌 위험비에 따른 공제로 산출로, 가난한 조합원의 접근을 금지한 것
7. 사업자 선정시 기득권자를 우선
8. 세제혜택이나 정부재정 지원 등 보다 효과적인 대정부활동을 위해서는 한국협동조합 연합회가 조직되어야 하나 아직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점
9. 가공산업 기피로 산업 이윤 배제 기능이 부재 하고 있는 점
10. 개방적 운동을 하는 협동운동이 유사명칭 사용 금지로 자생적 조합운동을 막

아놓고 기존의 조합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참다래 주식회사의 예 6)에서 볼 수 있다.

11. 일가구 일조합원제로 부녀자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여성들의민주적 조합 참여를 막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복수 조합원제가 있으므로 여성들이 조합에 참여,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계정체제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것이다. 재무재표 작성 기준에 있어서 기존의 계정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기업의 작성기준을 따르고 있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독특한 철학의 반영이 없다.

6. 협동조합운동의 과제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와 원칙이 변질된 상태 속에서 협동조합운동의 과제 중 중요시되는 것은 조합원의 자각이다. 오늘날 지식인 상을 이야기 할때 "모두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람시가 "유기적 지식인을 자기 전문 직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산지식인이다" 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과거의 전통적 엘리트 시대는 지나갔다. 게다가 매체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공개화에 의해 모든 사실에 대해 정확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모두다 세상이 돌아가는 김새를 알아차리는 수준이 된다. "모두다"라는 지식인관에 의하면 역사의 주체는 대중이며 논리적 지식인과 별 편차가 없다.

자기의 무지를 사사화 하는것이 아니라, 또한 특정 엘리트에게 사회운동을 맡기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주체로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까지 농·수·축협이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도구화되어 왔던 것을 막아내는 것은 철저하게 조합원을 교육해 내는 것을 통해 극복해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장되면 그 속에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확장된 민주주의 속에서 협동조합은 실천활동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요즈음 황태연, 김호균 교수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맑스 이론의 재해석 기 은 우리 협동운동하는

- (6)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 생산되는 참다래를 재배하는 생산자들이 모여 참다래 유통사업단(주식회사)을 만들었다. 이 주식회사의 특징은 생산자가 바로 주식회사의 주주인, 즉 협동조합과 내용상으로 같은 조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합설립에 있어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사실상 통제로 기존의 협동조합에 반대하면 자발적 협동조합설립이 불가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참다래 유통사업단 주식회사다.
- (7) 사회적 소유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맑스는 [사회적 소유] 또는 [연합된 생산자들의 소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맑스 자신은 한번도 공동소유를 미래사회의 소유구조로 주목한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동소유제를 자본주의적 사적소유보다 열등한 것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공동소유'에 대한 맑스의 이러한 일관된 비판을 볼 때 그가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표현했던 [사회적 소유]와 [연합된 생산자들의 소유]라는 개념은 전통적 해석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소유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 한사람의 개인적 소유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것은 협업 및 대지와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의 토대 위에서 개인적 소유를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야기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협동조합운동도 이런 새로운 해석과 더불어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기존의 도그마가 아닌 새로운 담화에 의한 제3의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칼. 만하임이 존재 피구속성이라는 말로 설명했듯이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변하면 지배이데올로기, 가치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근대사상의 좌, 우 두축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새 지구촌에 걸맞는 이론이 되어야 한다. 지식의 감옥에서 벗어나 서로 경계를 넘나드는 상호 원전성, 상호 절의성을 가지며 탈냉전 시대에 상응한 협동조합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 권력의 인간화의 두가지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그마에 묶여 있기보다는 가변적인 자기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자본주의 단점과 사회주의의 단점을 풀어버리는 우리사회의 하나의 대안을 던져주는 중요한 실천운동이다.

다시 산출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맑스의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이론적 규정은 공동점유에 기초한 개인소유인 것이다. 공동점유, 개인적 소유라는 이중적 구조를 갖는 사회주의적 소유에는 노동자 소유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도 포함된다. (김호균 교수 - 서원과 연대 4호)

환경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운동

유 정 길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서 강의 를 시작하겠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를 제의 했다. 거북이는 승락했고 경주가 시작되어 얼마후 열심히 달리던 토끼는 방심을 하고 낮잠을 잤다. 그리고 결국 거북이는 부지런히 기어가 승리했다는 이야기이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국민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나 바른생활에 첫장에 나오는 이솝우화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우화에는 바른생활교과서에 실릴수 없는 심각한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잠자고 있는 토끼의 옆을 지나면서도 깨우지 않고 자신의 승리만을 위해 기어가는 거북이의 문제이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인간상일까?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실수는 바로 나의 성공이며, 상대의 실패는 나의 승리, 그래서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구조를 정당화하는 우화이다. 아마도 이 우화를 통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의 비정한 경쟁논리를 잠재의식속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거북이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문제뿐만아니라 사실 토끼도 또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과연 이 경주가 패어플레이라고 볼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토끼와 거북이가 과연 동등하게 경주할 수 있는 대상인가. 애초부터 경쟁이 될 수 없는 대상을 상대로 승부를 가린다는 것은, 마치 나이키를 신은 황영조선수와 맨발의 국민학생과의 경주와 같은 것이다. 이 우화속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산업사회의 수직적 계층의식을 무마시키는 논리가 숨어있음을 느낄 수 있다. "내가 게을러서 그 모양이지 네가 부지런히 하면 안될 게 뭐가 있겠느냐"는 자본주의의 불평등구조를 회색시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이후의 대안적 미래의 체계에 대한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미래에 권장할 만한 구조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사회주의 또한 미래의 "선(善)"한 구조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 같다.

산업사회는 자전거와 같아서 구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땀이 처럼 돌지 않으면 쓰러지는 구조이다. 끊임없이 경쟁하여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산업사회에서 정치는 결국 후퇴이고 후퇴는 멸망이고 멸망은 자기존재의 파멸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구조, 생산력주의는 자본주의뿐만아니라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회속에서 협동과 공동체보다는 경쟁과 대립이라는 것들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자본주의를 부정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

었다. 어떤 사람은 국가 단위에서 변혁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일정한 영역에서 변화를 통해 그것의 확대를 통한 전체사회의 변혁을 계획하는 구도들이 역사속에 제출되었다. 전자는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후자는 공동체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보의 한 영역을 구축해왔다.

이 두 운동의 공통점은 산업사회의 비인간성과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과의 대립적 관계를 협동과 조화의 공동체를 이루려 했다는 점이다. 결국 진정한 공동체성의 회복하고 서로가 대립속에 피를 흘리는 구조를 지양하려했던 것이 바로 역사의 진보적 축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가 낳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변혁은, 현실적이지 않고 일정한 지역단위의 공동체, 지역단위의 협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속에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가들이 점차 많아 지고 있다.

기존의 이념, 체제, 생활양식, 가치관등이 전면적으로 동요내지는 붕괴되어가는 반면, 통일적인 새로운 질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진보는

우리가 세계에 대해 전망할 지라도 오늘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역시 남아있다.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거대한 새로운 흐름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진보망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 과제의 구체적 해결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려는 인류의 진보로 향한 큰 흐름의 물고를 트는 작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일 것이다. 오늘날의 과제를 해결 하고 우리가 지양해야 할 공동체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현실적으로 닥친 위기의 문제가 바로 환경문제인 것이다.

환경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커다란 창고에 곡식이 들어 있다. 거기에서 곡식을 먹는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수저로 곡식을 먹으며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있었다. 먹는 방식에 대해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껏 많이 퍼먹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혹시 강자에서 밀려 힘이 약해 적게 먹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나눠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끼리 경쟁적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좀더 평등하게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자기끼리 무리를 모아 그렇게 생활했고 두 입장은 대립하면서 투쟁을 벌여나갔다. 그런데 점차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여 수저로 퍼먹던 것이 이제는 포크레인으로 퍼먹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창고의 곡식이 줄어드는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그런 뒤 그들은 그동안에는 무한정하다고 생각되어온 곡식이 이제야 창고안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 자신들이 창고 이외에는 살 곳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퍼먹는 것이 장기적인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퍼먹기 경쟁이 발전이라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환경문제는 이와 같이 한정된 자원과 무한정한 욕구, 무한정한 경제발전 두개의 사이에 모순인 것이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생산력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위기를 해결 할 대안이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생산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소비를 창출하고 욕구를 부추기는 구조이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마케팅을 연구하여 판매전략을 세우고 소비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소비를 창출할 것인가는 연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파산한다.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우리의 의식주와 관계된 물품중에 자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없다. 과거에 비해 경제는 놀라운 정도로 발전했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3세계로 불리웠던 가난한 나라도 이제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의 5마리 용이라고 불리우는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했고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도 개별적으로 아직 어려운 국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두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유럽처럼 되고 싶어 한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가하는 문제이다. 전세계의 10%의 선진국인구가 70%의 화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세계인구의 4%도 안되는 인구가 세계 에너지의 30%가까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또한 1.8인당 1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미국처럼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 하고, 실제 가까와 지고 있다. 만약 급속히 산업화가 가속되고 있는 12억의 중국인이 미국처럼 된다면, 또한 인도의 9억 인구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된다면, 아마도 오존층은 벌써 없어졌을 것이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급격히 증대하여 지구의 기온은 급격히 상승하여 많은 인구가 절멸할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이다. 그러나 빙하기는 지금보다 불과 5도정도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은 기온측정이 시작된 약 150년정도 전보다 지금 기온이 약 0.8도 정도 상승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2030년까지 약 3도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 우선 바닷물이 팽창할 것이다. 그리고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다. 전세계의 모든 도시는 바닷가 주변에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당수의 주요 도시는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고, 따라서 사람이 살수 잇는 땅이 좁아져 인구의 밀도는 더욱 높아져 살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경작지도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산림의 면적이 줄어든다. 중발량도 많아 지고 강물과 호수의 물이 줄어든다. 물의 정화능력이 떨어진다. 병충해가 많아지고 농약의 살포가 증가하면 수질오염도 급속도로 심해지고, 토양도 오염된다. 기온이 상승하면 기후대가 극지방으로 이동하여 농작물의 재배지역이 달라지고 삶의 양식도 달라진다.

실제 최근 몇년간 한강에 얼음이 어는 것은 고사하고 눈이 오지 않는 겨울이 많았다. 그리고 역대 5차례의 기상이변중 80년에 3번의 이변이 발생했고 올림픽이 열리는 88년에 해일, 가뭄, 기근과 한발등이 전세계적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간 기억이 있다. 온난화 문제는 이제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문제는 위의 예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한정된 자원속에 급속한 경제성장간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무한정한 경제성장욕구, 바로 생산력 위주의 사고 패턴인 것이다. 삶의 양적 팽창에 급급하다보니 삶의 질적인 문제에는 소홀히 한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발전은 양적인 풍요와 질적인 풍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사람에게 위기를 해결할 에너지가 나올 수있다. 오늘날 위기는 상품화 되고 잇슈화되고 있으며, 이벤트로만 존재하고 있다. 자동차의 문이 고장나면 문만 고치면 된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문짝 정도의 고장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엔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화석연료를 먹고 소비하는 자동차 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의 환경인식은 문짜정도 수리하는 것, 컵테기를 새것처럼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소위 환경관리주의나 환경개량주의는 근본적 문제와 닿아있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킨다. 환경개량주의는 단순히 과학기술중심적 대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유한한 자원량과 무한한 경제욕구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으로는 우선 유한한 자원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과학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량의 물질로 다량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것은 핵무기나 핵발전소와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는데, 핵발전소는 아직도 안전성에 대해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피해를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해 또한 유전되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의 복구도 완전히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의 범위도 또한 예측할 수 없다.

또 다른 방법은 외계에서 에너지를 가져오는 방법인데, 그러한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인간이 생존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이 방식은 회의적이다. 과학기술은 배제되어서는 안되지만 그것만이 환경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가지이다. 경제적 생산욕구를 창출하는 산업사회의 사회구조를 바꾸고 개인이나 국가나 전 인류가 물질의 양적 축적이 발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그러한 전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만이 모든 가치의 전부인 사고의 근본이 전환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중 상당수의 학자들은 서구적 사고, 서양적 사유에 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는 마치 커다란 기계라고 생각하고 전체는 부분의 집합이라고만 생각하는 기계론적 사고, 그리하여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적 유기체로 보지 않고 생명이 없는 단순한 기계의 작동으로 보는 사고, 인간과 모든 생물을 단순히 세포의 조합과 그속의 유전정보의 차이에 의해 나뉘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모든 사물에 서로 그물망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상의상존하는 개체로서가 아니라 서로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을 자연 정복의 도구로 바라보는 사고, 인간과 자연은 결합된 하나가 아니고 서로 관계없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사고 등, 이러한 것이 기계론적 사고의 전형인 것이며 이것이 환경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왜곡된 자연관의 문제 또한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여우를 생각하면 교활하다는 생각을 한다. 뱀을 생각하면 사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돼지는 미련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생각일까. 인간의 생각이다. 인간중심적인 생각인 것이다. 여우나, 뱀, 돼지는 자연계의 진화과정속에서 발전된 자기 생존방식에 의해 그렇게 진화되었을 뿐이다. 그들의 모양에는 선악이 없다.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본래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을 인간중심으로 좋고, 나쁨을 구분하면서 생명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학습을 통해 주입된 것이다. 일종의 집단적 편견의 주입이라고 볼 수 있다. 쥐가 더럽고 징그럽다는 생

각이 쥐에 대한 두려움과 반대의 잔혹함이 드러난다.

환경문제는 우선 자연과의 왜곡된 관계에 대한 교정,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교정이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의 사고는 시간적으로 지금(NOW) 공간적으로 여기(HERE)에 국한되어 있다. 국가나 민족의 사고도 마찬가지이다. 10년, 20년의 장기적인 사고가 없다.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하다고 70년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원자력을 이용하며 4.5만년 후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확대된 사고를 갖는 것은 환경인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서양의 어느 학자가 인도를 방문했다. 인도를 다니다가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인도인은 왜 이렇게 못살까 고민했다. 그 학자는 그 원인을 인도인은 글을 모르는 문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글을 모르니까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지도 못하고 잘 살수 있는 방법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인도의 한 스승을 찾아가서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 그러자 그 스승은 이런 말을 했다. "만약 인도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신문을 보겠지요. 그러면 엄청난 나무들 베내야 할 것입니다. 아마존의 밀림파괴를 걱정하는 당신이 인도의 밀림까지 9억의 인구가 잘르려고 한다면 아마도 당신의 생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은 광고로 유지됩니다. 광고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욕구를 자극하여 빈곤감을 확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많은 물품을 당신의 나라에서 수입해 올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당신 나라에 경제적, 정치적 종속은 필연적일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는 글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그 서양사람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어쩌면 소말리아나 가난한 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난한 삶을 살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풍요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우리와 그들의 삶이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구적 사고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친절감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고려하는 것이다. 인식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진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고인 것이다.

환경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이슈로만 보거나 새로운 운동의 소재 정도로 인식하는 것, 과학기술에 의해 순간의 문제만 한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환경개량주의라고 했다. 그리고 자연을 잘 보호하자는 것은 자칫하면 환경관리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문제는 전생활양식의 전반적인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관계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계의 지배, 피지배관계, 공동체성의 파괴가 바로 생태위기를 부른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생태주의적 운동은 단순히 환경적 소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성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인 것이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목표인 것이다. 오늘의 협동조합운동은 환경이라는 매개를 통해 그 당위성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운동도 실제 협동조합이라는 사회구조에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다. 점차 협동조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어린 눈초리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 유일한 대안 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대생협은 그러한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 학생은 관념으로 부터 자유롭고 신념과 사고에 의해 자기 행동이 가능하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유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무수한 많은 진지한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사회적 모순에 대한 방어 역할까지 해왔던 것이다. 앞으로 협동운동이 중요한 운동의 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무수한 경험있는 활동가들이 배출할 곳도 대학생 조직에서이다.

인간 생존의 문제가 운동의 영역이 된다. 기본생존권 문제, 기아임금, 살인적인 작업환경 등, 과거에는 개인의 삶의 양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80년 중반이후 산업체계가 달라지면서 앞으로는 삶의 질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는 먹는데 있어 질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80년대는 행복했다. 진리라고 생각된 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석되고, 그에 따라 실천만 하면 모두 정답이었고 진리라고 생각했다. 진리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이고 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의식화의 대상이 되거나, 적일 뿐이다. 진리를 알고 있는 나는 전위이고 모르는 대중은 후위이다. 이러한 전위노선이나 대중노선은 실제 과거와 같은 진리독점인식이 버려지지 않는 한 합쳐질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지금은 정답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는 시기인 것 같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한 세기를 풍미하던 진보의 절대적인 축이 흔들리고, 깃발꽃고 따라오라고 할 것도 보이지 않는다. 설령 꽃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그길에 따라서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의 운동은 깃발꽃는 운동이 아니다. 무너져 내린 희망봉을 조용히, 스스로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쌓는 일을 해야 한다.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는 실패하면 그만큼 교훈이 될 것이고 성공하면 그만큼 성과가 될 것이다. 정답을 맞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진보로 향한 거대한 강줄기를 형성하는 한 지류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의미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에 즐거움을 갖고 헌신해야 한다. 나만이 중심이라는 사고는 대의를 그르친다. 일은 머슴처럼 해야 한다. 일에도 미친듯이 해서 실패하면 그것은 성과이다. 왜냐하면 이 일이 왜 안되는 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설프게 노력하면 이후에 미련이 남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과거의 정서에서 창조의 정서로 전환되어야 한다. 창조의 정서는 수많은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소중히 감싸안은 자세이다. 차이가 펄박이나 탄압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과거에 미워했던 대상을 달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협동운동이 잘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면, 길을 잘못들면 돌아가면 된다. 내려올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많은 활동가들은 자신의 길이 잘못된 것 처럼 느낄 때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앞으로 운동은 대단히 장기적일 것이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긴 호흡이 있기 위해서는 긴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쩌면 이러한 삶을 헌신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위에는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원(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오히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가 훨씬 좋은 시기이다. 과거와 같이 아르바이트식 활동은 곤란하다. 최근에 삼성계열사를 다니는 사람을 삼성맨이라고 한

다. 삼성은 기업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직장에서 퇴직당한다. 우리가 의미있는 운동을 한다고 관념적 우월성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콤플렉스를 정당화 시켜서는 안된다. 자본주의를 넘어서자는 것이 단순히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의 이익을 위한 기업의 축적된 사업방식은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부정하겠다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달고 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다. 내가 만족하지 않는 일은 안하겠다고거나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한다거나 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 커다란 자본의 구조를 뛰어 넘을 수 있겠는가?

일에 헌신할 생각은 안고 비판과 문제제기에 능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안제시와 책임을 소홀히하는 자세는 좋은 많은 기풍을 만들 뿐이다. 밥상을 차릴 생각은 하지 않고 숟저들고 와서 음식 품평만 하는 사람은 쓸데 없기 때문이다. 활동의 열정은 선택과 포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포기가 분명해질 때 선택이 강해지고 헌신과 열정이 높아진다. 그리고 선택의 의지가 강력하면 그 일 이외의 것에 대한 포기가 분명해지기도 한다. 어느것 하나 열정을 다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 적당히 직장다니는 것 정도로 생각해서는 운동이 될 수 없다.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보고도 다섯, 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만큼 풍부하게 보고 사고하는 것이다. 풍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도 풍요로울 수 있다. 그만큼 슬기롭고 지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매개로 더욱 활력적인 협동운동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며 열려진 생각,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진보의 커다란 물줄기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자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

로 본 새로운 진보운동과 젊은 활동가들의 삶의 진로에 대하여

김 성 오

1991년 초부터 한국 불교사회연구소에 몸담으면서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 (이하 몬드라곤 복합체)를 알게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운동영역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되었다.

이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접할 때, 각자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행로가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몬드라곤 복합체를 접근할 때 지금까지 협동조합운동을 해오셨던 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나 학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또한 학자들 중에서도 경제학, 사회학, 종교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제가 몬드라곤 복합체를 접했을 때는 기존의 사회운동이나 진보적인 실천들이 부딪혔던 문제들 속에서 '새로운 운동영역과 새로운 운동방식'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앞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네가지이다. 첫째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형성의 前後 관련이야기들, 두번째 주제는 국내에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이나 혹은 제가 쓰는 용어로는 '노동자 소유 주식회사' '노동자 소유 유한회사'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 즉 일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들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이다. 세번째 주제는 이 운동이 정치운동이나 여타 사회운동, 그리고 오랜기간 동안 있어왔던 협동조합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이고,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이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어떠한 과제들과 만나느냐이다.

1.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형성과 관련된 前後 이야기

몬드라곤 복합체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 위치해 있다. 바스크 지방은 몇가지 특징이 있는데 위치상 대략 38° 선에 걸쳐있고 피레네 산맥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어 북쪽은 프랑스령이고 남쪽은 스페인령인데 바스크 지방의 2/3가 스

페인령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 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중의 한가지가 분단된 민족이라는 점이다. 피레네 산맥과 바스크 지방은 여러예술 작품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도 역시 바스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민족의 고통이 우리민족의 그것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과 함께 몬드라곤 복합체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배경 중의 하나는 '호세마리아'라는 신부이다. 호세마리아가 몬드라곤에 처음 왔을 때 그의 나이는 26살이었다. 그때부터 15년이 지나서 첫번째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는 스페인 내전이 끝나면서 바스크 지방 전체가 폐허로 변해 있었고 침울한 분위기와 주민들 대부분이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몬드라곤 복합체가 만들어지기까지 호세마리아의 15년간의 활동은 - 우리는 이 과정을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다. 호세마리아의 활동을 세가지로 크게 나누면

첫번째 활동은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이었다. 당시 몬드라곤에는 변변한 교육기관이 없었고 따라서 신부는 이 지역에서 사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믿어 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두번째 활동은 지역내 느슨한 주민들을 조직하는 일을 하였다. 처음에는 축구리그와 같은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바자회를 꾸리고 학교의 후원단체를 조직하는 등 스페인 내전이후 완전히 가라앉았던 사회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주민조직을 대단히 많이 조직하였다.

그리고 세번째 활동은 가장 중요했던 일인데 지역내의 자금을 모으고 적당한 곳에 투자하는 구조와 방식을 고민하면서 몇차례의 실험을 거쳤고 학교를 설립할때도 이때 소요되는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복권까지도 발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과정에서 5명의 개척자가 탄생하였고 주민조직이 광범위하게 조직되고 이후에 '노동인민금고'라고하는 은행을 만들 준비가 갖추어졌다. 이런 준비를 토대로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는 형성되었다.

이후 몬드라곤 복합체는 60,70년대 들어서 규모자체도 초기보다 훨씬 늘어나고 조직체계 또한 변화하면서 계속적인 고속성장을 - 연평균 8%의 성장 - 이루어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80년대 말 불황이 시작되기 전까지 경제성장률이 8%였으니 그것과 버금가는 정도이다.

몬드라곤 복합체가 전세계적으로 일반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80년 영국 BBC 방송사를 통해 소개된 바도 있지만 그보다는 80년대 후반들어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을 겪으면서 과연 몬드라곤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을까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몬드라곤 복합체는 거뜬히 극복해 내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몬드라곤의 운동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게 되면서 부터 이다.

하지만 이제 몬드라곤 복합체는 새로운 문제에 접하게 되었다. 몬드라곤의 생산물 중 70%는 스페인 내수시장에 판매되고, 나머지 30%가 외국으로 수출되었는데,

8) 스페인 내전당시 프랑코군과 바스크군의 전투에서 바스크군이 패전하면서 당시 바스크 지방에 있는 모든 좌파들을 게르니카 종합운동장에 모아놓고 폭격으로 살상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게르니카'이다. 이 '게르니카'는 국내에서 70년대까지 전시되지 못했던 그림이다.

스페인에 유럽시장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유럽시장이 통합된다면 외수시장의 30%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내수시장에서 관세장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계속 70%의 생산물량이 시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호세마리아의 15년간의 준비와 첫번째 협동조합 '울고'가 탄생한지 35년이 지난 지금 80년대의 불황도 이겨 왔던 몬드라곤 복합체가 90년대 들어서 닥친 새로운 장애에 호락호락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몬드라곤이 자본과 기술 수준, 그리고 경영상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몬드라곤 복합체에 대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든가, 완벽하다라는 등의 관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단지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과정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몬드라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조와 체계에 대해서는 자료나 책자를 참고하기를 바라며 몬드라곤 복합체가 전세계의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한다.

몬드라곤 복합체가 이념적으로 중요한 점은 첫째, 힘없고, 돈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한개가 아닌 여러개의 기업을 만들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실천적 경험을 주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국영기업은 국가에서 파견한 지배인이 기업을 경영했다. 또한 자본주의의 기업은 전문경영인을 고용하거나 혹은 돈을 가진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수도 있지만 몬드라곤 복합체를 통해서 실제로 기계를 만지고 물건을 팔고, 그리고 공장내에서 조그만 기술이라도 가지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대규모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주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새로운 관료층이 생겨나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는 고용하고 지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 해왔다. 사회주의 70년간의 역사상 단 한번도 일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주인이 된 적이 없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해보려는 시도도 없었고 설령 노동자들의 힘에 밀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 스웨덴의 임노동자 기금이나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것이 생겨나긴 했지만 - 미약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은 일만해라라는 식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지금까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다면 몬드라곤 복합체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즉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더 조직하고 기술이 없으면 기술학교를 설립하고, 돈이 없으면 은행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몬드라곤 복합체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준 의미는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체제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이제까지는 현재의 체제 특히 정치체제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관점인데,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떠나서 진보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힘이 노동운동, 농민운동과 함께 협동조합운동이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두가지 점에서 몬드라곤 복합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중에도 첫번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즉 일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주인으로 충분히 설 수 있다는 점이다.

2. 국내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형성과 가능성

두번째 주제는 비교적 간단한데 우리나라에서 몬드라곤 복합체가 가져다 준 의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런 운동 자체를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일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다. 이것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권이 돈 많은 개인으로 부터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운동이고, 경제민주주의운동이며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이고 본다. 부연해서 말하면,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아니면 종교적으로 말하는 정토사회이든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무엇인가를 생산해야 하고 소비하여야 하고 그것도 개개인이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닐때 사회에서는 경제생활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경제생활을 위해서 기업은 필수적이다. 다시말해 인간이 살아나가기 위한 경제생활이 있기 위해서는 기업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랬을때 문제가 되는 점은 이후 경제사회에서 기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이다. 물론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간의 관계를 맺는 제도적인 구조와 시장이 필요하며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제조업이 됐든 유통업이 됐든 그 사람들이 자기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본다면 가장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그 사회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주인이 되기 위한 운동은 이번에 출판된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이라는 책에 두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 첫번째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또는 노동자 소유 주식회사나 노동자 소유 유한회사 등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는 어떠한 기업이든 5년안에 약 95%의 기업이 도산하거나 합병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생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이 각기 떨어져서 조그맣게 만들어지면 도산의 운명을 쉽게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이 연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은 그래서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연대해 가며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이라고 표방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범주안에 포함시킬수 있는 곳이 약 15개 정도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조그맣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기존의 기업체제를 바꾸거나 기존의 노동조합이 그 회사를 인수해 보겠다고 진행중인 곳이 몇군데 더 있다. 이런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이 기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그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수준도 높지않아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다음에 두번째 부류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인데, 이때는 그 기업을 일하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기업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임노동자 기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92년

에 공식 폐기되기는 하였지만) 종업원이 월급의 일정액을 가지고 주식을 사들여 간다면 아마도 그 기업의 51%이상의 주식을 일하는 사람들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수백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 운동은 노동자 참여운동이 되어야 한다. 참여운동은 주로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참여운동이다. 소유권에 대한 참여는 규모가 커질수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경영권에 대한 참여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경영권에 대한 참여는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이나 복 노동조합이 아닐지라도 회사의 노동자 조직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최근 이인제 노동부 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경영 문제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서서히 경영에 참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경영의 참여는 단순히 근로자 복지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결정이나 전반적인 경영의 결정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말해,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간에 연대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그럴 수 없는 기업의 경우에 그 내부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기업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과 소유권에 계속 참여해 나가는 운동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15개의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지원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처지이다. 이 부분은 마지막 주제로 이야기할 이 운동의 과제와 관련되어 말하겠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의 대학생협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유와 경영을 하면서 그 규모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면, 일반적인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구조와는 조금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노동자생산협동조합운동과

정치, 사회, 기존 협동조합 운동과의 연계성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운동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어휘를 빌려서 표현한다면 새로운 세대의 협동조합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운동은 엄밀히 말해서 노동조합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대학에서의 운동이라고도 학생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80년대 우리가 계속해 왔던 운동의 구도와 관련시켜 보면 이전에 없었던 운동의 형태이다. 이것이 최근에 형성되면서 관련되어 분류할 수 있는 운동이 몇가지가 있다. 기존의 농·수·축·신탁 내에서 협동조합 본래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운동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에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운동도 이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노동자소유 주식회사와 같은 운동도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진보적인 의미가 있는 협동조합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세대 협동조합운동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기존의 대규모 협동조합을 조금이라도 협동조합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그것이 협동운동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서 제 역할을 한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대단히 달

라질 것이다.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현재의 체제로 굳어져있어 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런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협운동을 활발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의 진보와 인간다운 생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신세대 협동조합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이나 노동자 소유주식회사 등이 법적으로는 생산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걸만한 근거는 없지만, 그것들의 성격이나 본질을 볼때 신세대협동조합운동의 하나이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과 소유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이든 학생운동이든 재야시민운동이든 그 기반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지, 새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운동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그 운동들 역시 새로운 출로를 찾아 나가면서 진보의 대열에 일단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진보적인 삶을 살아가고 새롭게 운동을 개척해야 한다면, 그리고 노동운동, 학생운동, 재야운동이 지금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출로를 찾아나가고자 한다면, 신세대 협동조합운동이나 최근 장황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민운동이나 환경운동이 이제 새롭게 진보의 진영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학생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환경운동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환경운동은 현재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한살림 등이 이부분에 활동하고 있지만, 이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집단은 '조선일보'라고 보는데, 즉 전사회적으로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우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운동자체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할것이다. 아마도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분배문제라든지 정치민주화의 문제보다 삶과 직결되는 환경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못먹어서 죽는것이 아니라 오염된 음식을 먹고 나쁜 공기를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게되는 경우가 더 많다. 운동이라는 것이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이 보다 쾌적하고 윤택한 생활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현재 가장 심각하게 부딪치는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환경운동의 주도권을 어떻게 진보적인 진영으로 다시 찾아올것인가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진보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학후배를 만나면 이제 학생운동의 중추에서 즉 한총련과 같은 거대조직에서 환경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 운동의 주도권을 찾아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어쨌든 신세대 협동조합운동이든 일하는사람들의 기업운동이든 그것 자체로 고립되어서는 이 운동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기업운동이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학생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운동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노동조합내 조합원의 단결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서로가 조합간부를 안할려고 하는 경향마저도 있다. 덩어리가 큰 현대노조와 같은 경우는 덜한데 보통 구로공단내 노조위원장 선거를 보면 서로가 안할려고 하고 있고 임금인상과 관련되어 조합원교육

을 할 때 3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약 50명정도가 모이는 정도가 고작이다.

그리고 경기가 계속 안좋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도산율이 높아지고 고용불안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해법이 제기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럴때 일수록 노동조합운동은 기업의 경영권 참여문제로 방점을 이동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방점이 바뀌어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노조간부가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경영회의에서 노동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없으니까 해 봤자 별볼일 없다는 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적어도 그 회사의 경영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일정한 자기대안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 그런 중간기간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떻게 점차적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도 최근 직거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직거래 체계에 있어서 생활협동조합만큼 유효한 체계가 없을 듯 하다. 물론 대기업의 유통자본이 이 직거래 활동에 개입해 들어온다면 문제는 지금보다는 다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생협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학생운동의 경우에는 87, 88년부터 계속된 대학자치운동이나 대학의 민주적운동으로 서서히 그 중심이 이동해 나갈 것이다. 물론 대학자치운동과 정치적인운동이 상당기간은 공존해 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대학자치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대학자치의 문제가 계속되면 대학내부의 경제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데, 그 경제단위를 재단이 전체적으로 개입해서 체계를 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학생운동의 역사와 풍토를 볼 때 이 자치운동과 상당히 밀접히 결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의 학생운동은 자치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띠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보적인 사회운동과 결합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운동의 경우 현재의 생협운동만큼 적극적인 운동도 드물 것이다. 농산물 직거래 중에서도 유기농산물 직거래와 환경상품이 유통되는 통로를 생협이 맡고 있다.

이렇게 90년대 이후 시작된 진보운동들이 새로운 진영을 이루어 힘을 축적한다고 해도, 본격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운동을 어떻게 정치문제와 연관시킬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 예를들어 이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잘할 수 있는 정치체계가 된다면 협동조합이든 환경운동이든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정치체계를 위해서 정당을 조직하자는 것인가?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운동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혹은 정치세력이 있어서 이 운동을 대변해 준다면 그사람을 지원하는 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토대가 약하다. 그래서 일단 주요한 방점을 찍어야 하는 곳은 이 운동자체를 어떻게 각계로 발전시키느냐이다. 그래서 상당한 성장을 이룰때 이와함께 정치적인 움직임도 묶어 나가야 할텐데 이때의 원칙은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80년대에 주로 해왔던 운동방식은 정치적인 사건이나 국면이 있을때 그 사건으로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

고, 이 정치적 국면을 주도해 가는 집단도 지배집단이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의 큰 진영을 이루면서 대응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지 역동적으로 조직되고 기동성은 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대열에서 이탈해 버린 결과만 남은 상황에서 진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운동을 가꾸어 가야 한다. 소모전을 해서는 어렵고,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늘여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운동의 과제

우리는 신세대 협동조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요즘은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운동이 장기적으로 발전해 몬드라곤 복합체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하려면 상당히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것이다. 그중에서 세가지가 필수적인데 하나는 전통의 창조이고 또 하나는 전문가 집단의 조직화, 그리고 세번째가 독자적 금융체계의 건설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전통과 관련해서 말하면, 이 운동은 외국의 경우 대개 200 ~ 300년이 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상이 해왔던 경험이 일반적인 사회에 보편화 되어 있을때와 없을때는 매우 상황이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세대 협동조합운동의 전통은 새롭게 만들어야 할 형편이다.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존의 농·수·축협에서도 배워야 할 몇가지는 있다. 하지만 전통이라고 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일단 이 전통이 없을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부딪치는 여러가지 문제들까지도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또다른 문제는 전통이 없을때에는 이 운동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지금있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도 이 부족한 사람들 속에서 건설되었다. 이들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의식자체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보통 전통이라는 것이 이미 있고 그 토대 위에 무엇인가 형성되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전통을 창조해 가면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15개의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은 아마도 5년 후쯤에는 그 절반이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한 숫자보다는 좀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날 것이다. 몬드라곤 복합체는 이미 15년간의 준비가 있어왔기 때문에 단한개의 조합도 실패하지 않았지만 전혀 준비가 없는 우리의 경우는 규모도 영세하고 기술수준도 낮다. 그리고 그 내부의 인화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망하고 흥하고 할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과정이다.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운동에서 경영참여나 소유권 참여는 또하나의 전통을 남길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화되면 신세대 협동조합운동,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운동은 상당히 보편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전통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두번째는 전문가 집단의 조직화이다. 기업운동을 위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한데,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경영능력이 없다면 전문경영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업에서 일해 보겠다는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이 거의 조직되지 않은 실정이다. 70~80년대에 운동이 진행되면서 각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조직되었다. 변호사, 교수, 약사, 의사 등등 진보적인 전문가가 있는데도 진보적인 전문경영인들은 전혀 조직되지 않았다.

몬드라곤의 경우에도 전문경영인의 문제는 심각하다. 일반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직율이 있긴 하지만 바스크 지역내 동종의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할때 훨씬 윤쾌한 생활을 하고있어⁹⁾ 이직율이 낮은 반면, 전문경영인의 경우는 같은 조합원으로써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가 1:6정도가 되는데도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의 전문경영인보다 임금이 낮은 편이어서 이직율이 심하다. 그래서 올고를 창립했던 5인의 개척자 중에서 노동인민금고의 이사장을 지냈던 분이 정년퇴임후 '오탈로라'라는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 학교는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즉 협동조합의 정신이 충만한 몬드라곤에서조차도 진보적인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몬드라곤 복합체가 살아나갈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적인 기업운동에서 전문경영인의 중요성을 새삼 증명해 주고 있는 사례이다.

그리고 전문경영인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전문기술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이 영세하고 규모도 작지만 이것이 큰 규모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익힌 기술자들이 조직되어야 하는데 몬드라곤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학교를 설립해 기술자를 배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그런 체계를 갖추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실정에서 진보적 기술자를 조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최근 본인이 포함된 단체(노동자 협동경영 연구회)에서, 당장에 효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중에 있는 것이 각 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 학생을 상대로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나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을 알리고 또한 이와 관련된 모임을 조직하는 활동이다. 당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사람들이 대기업의 연구소에 있다 할지라도 진보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본격적인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될때 이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독자적인 금융체계인데 몬드라곤 복합체의 노동인민금고가 그 한 예이다. 어떤사업을 할 때 그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기업이든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협소하다. 그래서 긴시간을 두고 아예 독자적인 금융기관을 만들어 가는것이 훨씬 유용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면이 있다. 우선 여러사람들의 자본을 조금씩이라도 모으는 형태가 될것이고 점차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간에 연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준비해 간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비록 은행이 아닐지라도 제2, 제3의 금융체계를 갖출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몇몇 진보적인 실험을 조직할 수

9) 왜냐하면 매달 선수금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이 월급의 형식으로 받고있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계속 누적되어 따로 저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몬드라곤의 노동자는 20여년이 지나 퇴직할 때 약 5,000만원상당의 출자금을 되돌려 받는다.

도 있을 것이다.

이런 세가지 과제를 풀지 않으면 신세대 협동조합운동 또는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그래서 사회의 전반적인 진보를 위해서 의미있는 운동으로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풀어가는 것이 협동조합운동의 고민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상의 과제는 모든 협동조합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진보진영 공통의 과제일 수도 있다. 누구 한사람 또는 한단체의 경향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사회에서 진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자신의 삶을 진보적인 삶으로 지향하는 사람들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살림 협동조합

김재겸

기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는 농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신탁과 노조활동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관변단체의 이해 정도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협동운동 전통- 동학농민전쟁 당시 집강소의 형태나 이암법 이후의 두레, 계, 향약 등-이 외세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고 부분적으로 이어왔던 것도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그당시는 평가리나 북 등 풍물만 쳐도 공무원들이나 관리들이 와서 못하게 하고 빼앗고 빨갱이로 몰아버리고 상황- 강제적인 해체과정을 걸으면서 우리의 자발적인 운동, 협동운동의 맥이 막혔기 때문이다.

우리가 협동조합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이태리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이 지역 자치활동의 핵으로 존재하고, 정치활동의 기반이 된다.- 새로운 운동으로 협동조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존의 협동조합과 지금 우리가 하는 생활협동조합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 다르다면 우리는 어떠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의 전개 □

협동조합운동의 세대구분

이야미 나카시의 「제3세계 협동조합과 사회운동」이라는 글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운동을 3세대로 분류한다.

제 1 세대는 기독교 소종파운동에서 시작해서 공상적 사회주의 시기, 즉 협동촌 또는 공상촌 건설운동의 시기 (17세기부터 1850년까지)까지를 말하는데 소멸의 이유는 협동촌이 해체되고 산업혁명에 의해서 시장체제가 확립되면서 더 이상 고립성 되어 남아있을 수가 없어 시장경제안으로 흡수되는 시기까지를 말한다.

제 2 세대는 1844년 로치데일 공정개혁자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한 일련의 흐름을 말한다. 제1세대가 종합적인 삶 전체를 조직화내려고 한 것에 반해 2세대는 자본주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의 일부분- 특히 경제생활 중의 일부분-을 분야별·기능별로 종합화해 내는 데 특징이 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도 초기에는 1세대와 같은 종합협동조합의 모습을 지향하였으

나 점차 대형화되면서 소비자 협동조합의 형태로 고정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의 총자본 중 하나의 형태로 존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농협, 수협, 신탁을 포함해서 일반적 협동조합 등을 2세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에 반해 제 3 세대는 새로운 운동, 즉 생태계문제, 대안기술의 문제, 평화운동, 새로운 공동체운동, 유기농업 등을 자신들의 문제로 포함하는 운동을 제3세대 협동조합운동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기존의 사고체계를 전환하자.- 제3세대 협동조합의 특징

제2세대가 산업사회,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보다 보완적인 개념- 산업사회의 물량적이고 상대적인 권익옹호를 중심으로 하는 '잘산다'는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으로 접근했다면 새로운 협동운동의 특징은 산업사회 혹은 기계 문명사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하려고 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회운동의 두 축- 적색으로 분류되는 사회주의 운동과 청색으로 분류되는 자본주의 운동-이 기존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나 생산력 발전의 영원성을 믿었다한다면 새로운 협동 혹은 녹색의 전략은 '잘산다'는 개념을 양적인 개념에서 질적인 전환으로 변화시켜서 대안적인 운동으로 창출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다시 맑스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의 이론에서도 생산력은 무한히 발전을 하는데 생산관계의 질곡으로 인해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본다. 생산력의 발전은 산업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가면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의 방식, 즉 국가소유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운동은 생산관계뿐 아니라 생산력도 변화의 대상으로 본다.

생산력이 무한히 발전한다는 믿음은 환경의 위기, 자원의 고갈 등에 의해서 스스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또한 어떤 종류의 생산력인가에 따라서 사회관계가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완전히 자동화된 공장에서 공장자동화와 사무자동화에 따라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가, 만약 전자동화가 이루어지면 공장을 설계하고 조작하는 몇몇의 엘리트만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변으로 밀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때 생산력의 문제는 환경문제, 자원고갈의 문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생산관계 혹은 인간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가소유 전략이 과연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한 예로 공장에서 경영진이나 사장을 뽑는다고 했을 때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당에서 지명하는 형식을 취한다.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자들을 선출- 몬드라곤의 예- 한다. 두가지 형태를 극단적으로 비교하여 어떤 형태가 더 사람사는 사회인가 생각해 볼 때에도 기존의 단순하게 적색진영에서 제기했던 생산력, 생산관계의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농산물이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기존 협동조합(2세대)이 우선시했던 것은 경제적인 것, 물량의 개념이었다. 즉, 싸고 많은 것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에 반해 한살림을 포함한 직거래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설정한 목표는 좀 다르다. 우선, 농산물의 질을 묻는다. 안전한가?, 혹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가?, 가공품이라면 재료 첨가물의 유무 등에 관한 것이다.

둘째, 사람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어떤 생산자가 만들었는지를 알고 가능하면 얼굴을 확인한다. 또한 물품 구매 과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물건 나눔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인간관계를 축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위기도 한다.

세번째, 사회적인 의미를 둔다. 공동구매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먹거리가 사회적으로 유의하길 바란다. 농약 오염을 줄이고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이렇듯 농산물 공동구입 하나에도 상당히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한살림도 새로운 시각을 전제로 들어 주었으면 한다.

□ 한살림 협동조합 □

한살림협동조합은 ...

한살림협동조합을 간단히 네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무농약, 저농약 등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단체이다.

둘째 생활협동조합의 틀을 갖고 있다.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니고 조합원들이 조금씩 출자를 하고 조합원들에 의하여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 다른 생협들과 차이가 있다면 소비자들만이 아닌 생산자들도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셋째 슈퍼와 같은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고, 창고와 차(車)를 이용하여 배달을 매개로 사업을 펼치는 무구판장형 생활협동조합이다.

네째 생명살림이라는 운동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이다.

외형을 살펴보면 6월말 현재 조합원이 7,200세대, 실무자 39명, 임원구성을 보면 상근임원 3인, 생산자 측이 3인, 소비자 측 이사 7인이고 5월의 공급고가 375,000,000원 정도였다.

한살림협동조합의 뿌리

처음 한살림을 구상한 분들은 60년대와 70년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한 반독재운동, 신용협동조합운동, 강원도와 충북에 대홍수가 났던 70년대초 농촌개발운동, 그리고 카톨릭농민회를 통한 농민운동을 실천한 사람들 이었다.

80년초 60,70년대 자신들이 했던 운동을 평가하면서 농촌개발운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신탁은 지역개발이나 지역협동운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초기의 방향과는 다르게 본말은 간데 없고 준 은행화된 결과를 낳았고, 농민운동은 과도한 정치지향 속에서 밑바닥 조직이 허약해졌다고 평가를 내렸다.

위와 같은 평가와 함께 외국의 새로운 운동의 사례를 수렴해 내고, 동학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치관을 되새김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시대에 맞고 보다 깊이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 세계관에 걸맞는 생활양식을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생명운동', '한살림운동'이다.

84년 김지하의 『밥』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어 생명운동의 출발을 사상적으로 선언하고, 후에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한살림선언'이라는 모습으로 정리했다.

한살림협동조합의 역사

협동운동 속에서 대안생활양식을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구체적 형태로 원주소비자협동조합이 창립(85.6)되고, 86.12.4일에는 '한살림 농산'이라는 쌀가게를 내게 되었다. 초기의 취급품목은 일반쌀을 중심으로해서 무농약쌀, 잡곡, 참기름, 들기름, 유정란 등이었다.

88년 2월 이용자가 1,000세대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조직을 담아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때 채택된 것이 소비자협동조합이었다. 현 93년 2월 총회를 통하여 소비자협동조합을 생활협동조합으로 바꾸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살림 농산이라는 쌀가게를 시작으로 현재 7,200여 세대의 생협으로 변화되기까지의 변모과정을 일반쌀의 소비가 무농약 쌀로 변모되는 과정과 공동구매방식(공동체 이용방식, 무구판장형 구매방식)이 어떻게 성립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알아보겠다.

우선 한살림이 유기농업에 관심을 갖게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카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을 하였던 분들사이에서 새로운 생산양식을 추구해 보겠다는 요구가 나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기농업이 제시가 됐다. 또한 농약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농민들 사이에 이렇게 생산해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제로 농약을 축으로 한 근대 관행 농업은 농민을 죽음의 도구로 몰아 넣는 것이며 농업은 생산을 위한 생산일뿐 사람을 위한 생산의 의미를 잃은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있었는데 70년대 고도성장과 개발 독재의 기간동안 성장이 가져다 준 풍요 및 미래에 한치의 의문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 80년 초부터 서서히 공해의 심각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사람들의 의식속에도 이제는 성장만 해서는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비철금속 공단이 들어서 있는 온산지역에 집단 과질이 발생했는데 공해 문제 연구소 등 민간 환경단체에서는 이것을 공해병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농약중독에 대한 이야기나 산성비 등이 사회면을 심심치않게 장식한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먹거리에 대한 요구도 자연스럽게 '안정성' 쪽으로 흐르게 되었다.

처음 한살림을 시작할 때 일반쌀을 무농약쌀보다 많이 취급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반쌀은 점점 줄어들어 '쌀 = 무농약쌀'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중심으로 사업방향이 흐르게 되고 현재 한살림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생협들도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협동조합이라는 형식과 유기농업 운동이라는 내용이 결합된 것으로 일본의 대다수 생협의 출발점인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과는 틀린 것이다.¹⁰⁾

환경운동의 경우만 봐도 80년대는 환경운동을 정치,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고, 반대를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요즘 환경운동연합이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 인제군 종합훈련장 설치반대 저지운동을 보면 구체적으로 땅사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과거에 단순하게 반대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금을 모으고 직접 땅을 사서 개발을 막는 운동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처음 출발의 시각과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체 구매방식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공동체란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맥을 살펴보자. 학생운동에서 공동체란 말이 처음 언급이 된 것은 83년경으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에는 서슬퍼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회주의란 말을 입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회주의란 말 대신 공동체란 말을 대신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공동체란 이름이 등장한 것은 농민운동 특히 카톨릭농민회에서 정치지향적이고 시위중심의 운동을 하다보니까 밑바닥이 허약해지는 경험을 하게되는데, 이에 새로운 조직 운동방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 공동체였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 현실로 부터 일을 시작해 보자는 생각에서 공동체 운동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농민운동의 경험 속에서 나온 '공동체'라는 조직방식이 후에 도시 소비자들의 '공동구매 단위'를 일컫는 표현으로도 쓰이게 된다. 농민운동과 도시소비자 운동이 상당히 다른 여건 속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음에도 같은 표현을 쓰게 된데에는 그 간 농민운동의 경험 속에서 소비자와의 강한 연대없는 운동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농민과 연대할 수 있는 도시 조직이란 고민이 일본 생협의 '반'이란 조직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에도 '공동체'라는 이름의 유기농산물 구매 기초 단위가 생기게 된다. 일본 생활 소비자 협동조합도 '반'이 물자 조직의 기초 단위가 되는데 우리의 '공동체'도 사업과 조직의 받침대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체의 결성 과정과 운영방식

공동체의 결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같은 아파트 등에 사는 사람들끼리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이 5세대 이상 의견이 합일되어 유기농산물을 나누워 먹고자 하면 소개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을 통해 물품의 내용, 생산지 현황, 주문 방법, 물자 인수 방법 등등을 세세하게 소개받게 된 이후 물자를 주문하고 공급받게 된다. 처음 이용하는 조합원들은 생산지 견학 기회를 갖는다. 이 견학을 통해 유기농산물 재배 과정과 생산자의 어려움 등을 듣게 된다.

10) 일본 생협클럽의 경우는 우유값을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는 대기업에 대한 대항으로 생협운동이 시작 되었다.

가입 조합원을 위한 산지 견학 이외에도 벼베기, 단오잔치, 어린이 생명 학교 등을 통해 생산자와 교류하게 되는데 조합원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상당히 변화하게 된다.

다음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생산방법, 수량을 결정한다. 작년 소비량에 기초하거나 사전 주문을 받아 수량을 정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생산을 의뢰한다. 이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 - 소비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맺는 일종의 약속이다. '계획서'안에는 수량 뿐만 아니라 농약의 횟수, 비료의 양, 퇴비의 양 등이 자세히 기록하게 된다. 이 약속대로 생산된 물품의 수급계획에 따라 시기별 혹은 순서별로 조합 창고에 도착하면 주문을 받게 된다.

주문은 물론 공동체 단위로 하게 되는데, 조합 소식지나 물품 안내지를 통하여 물자정보를 알게 되면 공동체 구성원은 공동체 대표에게, 대표는 이것을 모두 합하여 조합에 주문하게 되는 것이다. 주문된 물품은 지역별로 분류되고 차에 실려 조합원에게 배달된다. 물론 인수하는 방법은 공동체 단위로 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공동체 기초로 한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으로 공동체 방식은 조합원의 노동을 상당히 지원받는 형식으로 '배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슈퍼식 매장보다 효율성이 높다. 여기에 홍보 등과 조합원 얼굴을 직접 대면하기에 특별한 판매 기법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 일반적으로 매장형보다 공동체 방식이 평균 출자금이 높다 - 자본력이 빈약한 초기 단계에 상당한 힘을 준다.

둘째, 운동적인 측면으로 가까운 거리에 조합원들이 모여 있고, 이들은 1주일에 한번은 최소한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된다. 모임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거나, 조합 회지를 돌려보거나, 폐유를 모아 비누를 만들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활동조직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생명운동으로서의 농업운동과 한살림 운동

이제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농촌이건 도시건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농 혹은 농촌 해체를 경험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이들은 이농의 주체가거나 농촌문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세대들이다. 이들에게 농촌이란 혹은 농촌문화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한살림에서는 농업문화를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일년에 몇차례 갖는다. 생산지에서 하는 단오제가 있고 서울에서 벌이는 장터가 그것이다. 매년 행사를 치루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몇번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문화행사를 통하여 진한 감동을 갖는 것을 보았다. 역시 생산지에서 열리는 '어린이 생명학교'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한다.

'어린이 생명학교'의 내용 안에는 개울에서 물장구 치기, 감자캐기, 피뽑기 등 흙과 농업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 주종이다.

여러번 행사를 통한 느낌은 여러 사람들에게 저 밑바닥에 있는 흙에 대한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이 남아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그리움을 주는 농업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해체의 길을 걷게 됐을까? 산업사회의 진행에 의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생산과 소비의 문제를 놓고 함께 생각해 보자. 농업이 중심된 삶이었던 때는 자신이 생산한 물품의 대부분을 스스로가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필요한 물자로 교환해 쓰는 형식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농산물 = 먹거리'의 등식이 성립하던 시기였으므로 식품의 안정성이 문제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산물이 돈으로 바꾸워 쓰는 시기가 온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었고 자연스럽게 장 보관을 위한 첨가물이 개발되었다. 상품으로써의 농산물은 대량 단일 품종 생산을 요구하였고, 농약 - 비료 - 중산의 고리를 형성하였다. 석유 화학 물질인 농약 - 비료를 기초한 농업과 농산물의 상품화는 공업 중심의 경제구조의 의존도를 높이면서 농촌 해체라는 과정을 겪는다.

산업사회 속의 먹거리는 '그야말로 먹거리'가 아니라 오직 팔 수 있는 '상품'일 뿐이다. 또한 산업사회의 시각으로 볼때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은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소위 '생명'의 잣대로 보아야 농업이 제대로 보이고 농촌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유기농업이란 단순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약을 안치는 기술만이 아니다. 자원고갈, 환경오염, 식량무기를 싸안으면서 앞으로 살아나갈 방향으로 농업이 재조명되어야 될 것이다.

□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 문제점과 방향성 □

이 땅의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생협이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사업과 운동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먹거리의 안정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해체되는 농촌에 새로운 대안을 심어주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반성할 부분이 많다.

이 운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유기 생산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가? 조합의 사업은 농촌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힘이 되는가?

실제로 한살림의 경우도 조합원의 확대와 무관하게 생산자의 수가 거의 늘지 않는다든지, 공급고와 유기농 농사 평수가 별 관계가 없는 등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타 조합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요즘 정부에서도 떠들어대는 '돌아오는 농촌'이 가능한 생협 혹은 협동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애정과 이에 합당한 구조 제편들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살림에서는 작은 대안으로 생산자들도 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 - 조합 - 실무자 삼자가 같이 참여하는 가공 공장 등도 구상해 보고 있다. 농산물 가

공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자.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는 농가공 부분은 농산물과 비교할 때 높은 부가가치와 탄력성있는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작은 과일 등의 생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이 분야를 농민 - 조합이 힘을 합쳐 만들어 내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려면 식품가공법의 개정 등 까다로운 난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환기의 협동운동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협동조합도 초기 운동의 단계를 지나고 조직이 커지면 구조화되기 마련이다. 메르니크는 '공동체 탐구'라는 책에서 이것을 '시스템 단계'라고 표현하였다. 협동운동이 시스템화된다면 조직의 역동성은 사라지게 된다. 현재 작은 조직들에 불과한 생협들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살림의 경우도 실무자들이 일을 대하는 자세나 조합원의 열성 등이 초기보다는 많이 떨어짐을 느낀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특히 소비자협동조합인 에로스키의 경험과 조직 방식 일본의 워커스 콤팩트티브의 경험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종합협동운동으로 나가기 위하여

앞에서 삶의 대안으로서의 농업을 이야기했고 이를 실현키 위한 협동운동으로서의 '한살림'을 이야기했다.

종합협동 운동의 사례로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가 있지만 산업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접근키 어려운 인간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더구나 생태 환경적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는 농업이 상당 부분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한살림에서는 부분적으로 유기농업 기술을 진일보시키기 위하여 흙살림 연구소에 참여하거나, 시기별로 소비량의 변화가 심한 유정란의 처분을 위해 유정란 - 우리밀 과자 생산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들 조직의 원리는 농민 - 조합 - 실무자가 공히 함께 참여하는 구조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형 종합 협동 운동의 가능성이 열리리라 생각된다.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물결

- 일본 생활협동조합을 돌아보며

윤 형 근

1. 새로운 시대의 개막

1986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트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는 엄청난 폭으로 진동하며, 변화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연이은 동구의 민주화, 공산당의 몰락 등은 세계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정도로 격심한 것이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사실 1960년대 후반, 가까이는 1970년대부터 하나씩 조짐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화의 조짐은 60년대 후반 서구 사회의 학생운동, 제3세계의 대두, 1970년 폴란드 그다니스크의 총파업, 1975년 베트남의 패망, 1970년대 후반 등장한 녹색운동으로 맥이 이어지면서 80년대 세계사의 격변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1973년 석유파동은 세계경제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소비를 미덕으로 권장하며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구가하는 경제성장을 제1의 목표로 삼았던 경제적 가치관이 부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에 대한 맹신이 가져온 생존의 기본전인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경제적 가치관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모색하는 노력들이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환경운동, 유기농업운동, 반핵운동, 자연보호, 여성운동, 녹색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두번째, 산업화와 더불어 민족국가가 성립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이웃 관계를 기본으로 하던 농촌공동체, 즉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재화와 서비스가 매우기 시작하였다. 대인적 결속원리를 잃게 되면서 인간소외가 나타난다. 물질적인 가치관과 더불어 인간소외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적인 인간관계의 회복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세번째, 산업문명은 과학기술의 발달이란 기반 위에 성립되고, 이를 장악하고 있는 기술관료에 의해 중앙집권화로 필연적으로 전개된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생활을 통제받고 노동을 강요받게 된다.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다. 이 또한 인간소외의 한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분권, 자주관

리, 자치, 직접민주주의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 공동체의 복원, 자주관리와 자치를 꿈꾸고 실현하려는 운동들이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다. 풀뿌리 민주주의, 순환사회에 대한 전망, 유기농업운동, 자치운동, 자주관리운동, 새로운 대안기술운동, 환경운동, 자연보호, 반핵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공동체건설운동 등 산발적이고 다각적인 운동을 통해 인류는 새로운 생활양식, 생산양식을 찾는 실험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세계는 인류사의 새로운 생활양식, 생산양식 및 사회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즉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야 할 새로운 생활양식은 21세기를 맞이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2. 협동조합운동의 위기

협동조합운동도 이러한 시대의 조류 속에서 자기 변신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상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협동조합의 대응은 결코 신속하지 못하다. 협동조합 초기의 이상-보다 나은 생활, 사회의 형성-을 상실하고, 체제화되었고, 지나치게 비대화되었다는 지적도 그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정리하여 협동조합운동이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가치의 상실, 즉 사상의 위기를 맞게 된 근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농협이나 소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대의 협동조합운동이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는 인간의 전생활을 협동활동 속에 집약시키지 못하고, 생산이면 생산만을, 유통이면 유통만을, 소비면 소비만을 부문별로 또한 기능적으로 전문화시켜 사업화해 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오랜 등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들이 공동체 형성을 최종목표로 삼았던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인간에 대한 사상이 부재하고 협동사회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실 속의 협동조합들이 공리적인 경제주의 속에만 파묻혀 규모만 비대해지고, 규모에 따르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지 못하고 체제화하여 운동 자체가 사업에만 매몰되어 버린 것이다. 조합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의 참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민주적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특징을 상실하고 일부의 조합관료를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운동의 주체인 조합원은 이용자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

1980년 10월 모스크바 세계협동조합연맹(ICA) 세계대회에서 토론되고, 채택된 '레이드로우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제기하였고, 문제의식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1988년 스톡홀름 대회에서 발표된 마르코스(Marcus) 회장의 '협동조합과 그 기본적 가치'라는 보고서도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이드로우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두차례의 위기에 처했으나 극복하고 오늘에 이른 협동조합운동이 현재 '제3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제3의 위기란 다양하게 전개되어 틀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있는 협동조합 조직이 맞고 있는 '사상(思想)의 위기'라고 말한다. 이 사상의 위기는 '마르코스 보고서'에

서 지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의 상실을 의미한다. 즉, 규모확대를 통해 경영상의 어려운 점들은 극복하였으나, 협동조합운동의 의미, 가치의 추구라는 면은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앞에서 지적한 새로운 흐름의 운동들, 생활운동은 협동조합운동이 스스로 자기로 과제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었다. 레이드로우 박사가 지적한 사상의 위기나 마르코스가 지적한 4가지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인 <조합원의 참가> <성실> <민주적 운영>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논의는 협동조합운동이 시대의 새로운 조류 속에서 자기 위상을 변신하고, 폭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 협동조합운동 내부에서는 마르코스보고에 이어 1992년 도오쿄오에서 열린 제30차 세계대회에서 『변화하는 세계,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라는 스웨덴 협동조합학회 회장 베크 씨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토론하면서 협동조합운동의 위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 대회의 토론과 이후 집중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100주년 기념대회에서는 협동조합원칙을 변경하여 탈냉전시대,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협동조합원칙을 채택할 예정이다.

세계사적인 변화의 새물결, 협동조합운동 내부의 위기에 대한 성찰에 비추어볼 때,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운동은 과연 얼마나 이 새로운 물결의 흐름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기 변신을 해 왔을까? 1992년 유럽 이외의 지역인 일본 도오쿄오에서 최초로 국제협동조합연맹 세계대회가 개최된 사실이나 1990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생활 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또 하나의 노벨상」을 수상한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의 노력은 이것에 대한 한 해답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어야 하겠지만,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 새로운 시대를 앞장서서 열고 나아갔던 일본 생활협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된다.

3.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물결

일본 생활협동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를 찾자면 아래와 같은 점일 것이다. 이 이유들은 사실 독특한 것들이 아니다. 협동조합운동이 태동하던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협동조합운동의 이념이나 특성을 단지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점이 일본 생활협동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될 뿐이다. 즉 협동조합운동의 이념이 시대의 변화, 사회상화의 변화 속에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변용되어 적용되고 실천되는가가 관건이었던 것 같다. 일본 생활협동도 결국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

사업과 운동의 통일

생활협동의 기본은 물품의 구입, 공급이다. 물품의 구입과 공급 과정 속에 조합활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의미(운동성)를 담은 물품의 구입, 공급하는 사업을 통해 조합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입, 공급이라는 유통과 소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미를 담은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까지 생활협동의

폭이 넓혀지는 것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가 야기한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한 땅의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 유기농업, 자연농업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의 구입과 공급, 지역자원의 하나인 수자원(水資源)을 살리기 위한 자연생태계의 개발, 순환에너지, 공해없는 에너지를 위한 전기자동차의 개발 등 일본생활협의 노력이 생산 차원에 까지 확대된 조합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의미있는 물품의 개발, 이용이라는 사업의 확장 속에 운동성이 담겨있는 것이다.

일본생활협은 생산 뿐만 아니라, 구입·공급활동 속에서도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물결을 실현하고 있다. 조합을 통해 구매하여 중간이윤을 절감한 물품을 조합원이 이용하는 간접적인 조합원 참가에서 공동구입과 물품의 개발, 운반, 나눔을 조합원들의 직접 참여를 중시하는 조합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은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는 인간의 전생활로 협동활동을 확장해 나가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문별 기능화된 협동조합활동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보인다. 일본 생활협이 독특하게 개발한 공동구입 방식의 활동이 바로 이것이다.

물품이용의 확대는 그 자체 안에 운동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사실 규모의 확대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규모의 확대는 그만큼 경영의 충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협동조합운동의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지, 규모의 확대가 거대자본과의 경쟁의 부산물로 등장하여, 이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조합원들이 직접 참가하는 비중이 줄어 조합원이 조합이용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에서는 규모의 확대에 맞는 조합원 참가의 방안, 조직체계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생활협의 전반적인 흐름, 공동구입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주부들의 사회활동 참가로 인한 공동구입 방식을 점포형으로 전환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이 점이 일본생활협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사업과 운동의 통일, 사업의 확장 속에 운동이 확대되고, 운동적인 근거 위에 사업이 성립하는 협동조합의 기본적 특성이 얼마만큼 실현되었느냐의 유무가 협동조합운동이 새로운 시대의 조류 속에서 사회적 전망을 지닐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자주적(自主的)인 생활의 창조

보다 나은 생활, 살기 좋은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협동조합운동의 기본적인 과제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대로 환경운동, 새로운 대안기술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공동체운동의 흐름을 포괄하고 이를 협동조합 활동 속에서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시대 변화의 조류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 형성과 생활양식을 만들려는 노력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일본 생활협에서는 조합원의 다양한 활동의 전개를 통하여 이러한 노력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조합원 - 반모임 - 지부 - 지구 - 블럭 - 단위 조합에 이르는 조직속에서 상품활동을 실현하고, 이 상품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현재의 상품을 보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상품위원회, 조직위원회, 편집위원회, 물살리기 위원회, 반핵위원회, 평화위원회, 가정경제위원회 등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전생활 영역에서 조합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조합원의 활동을 특징상 몇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대하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넓히는 활동이다. 생산자 견학, 교류회, 농업 심포지움, 어린이 캠프, 가족농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조합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수요를 확장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둘째,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들 수 있다. 공급하는 농산물의 수요와 이해를 돕고 조합원이 쉽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요리강습회 등의 실용적인 활동, 또한 좋은 연극영화 관람회, 어린이 학예회, 바자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조합원에게 조합이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전생활문화 속에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셋째, 생명의 근원인 물을 살리기 위한 합성세제 추방운동, 자원재생 리사이클 운동, 반핵캠페인 및 반대운동, 평화운동, 주민자치운동 등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회운동의 조류를 위원회 활동이나 조합 전체의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의 활동들은 조합원의 참가를 확대시키고, 이 참여를 통해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소수 관료에 의해 독점되고, 관리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활을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는 자주운영과 민주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조합활동에서 지역사회로

일본 생협은 조합 자체의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 속에서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역자립의 터전역할을 해 가고 있다. 물품의 개발 확대·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시스템의 재정립, 유기농업의 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생산양식의 개발, 건전한 지역문화의 육성, 살기 좋은 지역을 생협 조합원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그 지역 생활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광역화된 경제체계를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순환에 적합한 자립적인 소규모 협동에 근거한 지역자립경제의 센타로서도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생산요소의 자급, 지역내 생산, 지역내 소비, 노동의 자급, 지역내의 생태적 조화, 물질순환의 지역내 완결을 기초로 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려는 생협의 노력은 뒤에서 살펴볼 산지직거래활동, 재무정책 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 속에서 협동조합이 처한 위기의 상황과 이를 극복하려는 일본 생협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일본 생협이 이러한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 상당히 우리가 지적한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일본 생협의 연합조직인 일본 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앞으로의 기본방침을 조합의 규모 확대에 두고 있다. 규모의 확대 그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규모의 확대에 따르는 조합원 참여의 기회 확대와 그에 맞는 조직의 변화가 없이는 협동조합은 체제화하고 거대자본화하기

쉽다. 사실 이 과정은 현재 실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 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아직 확실한 어떤 처방도 갖고 있지 못하다.

사업과 운동의 통일, 조합의 자주운영, 지역사회로의 확장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만이 있고, 이 내용을 실현하는 확실한 방안도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앞에서 계속 지적한 것처럼 협동조합이 가지는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것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아직 분명한 결론을 맺지는 못했지만, 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과 소비, 폐기라는 인간 생활의 전과정을 협동화하고, 이 협동활동을 조합원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전개하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일본 생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협동조합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할 수 있다.

생협운동의 발전 방향과 과제

서 해 란

1. 생협운동의 발전 방향

일반적으로 생협은 무농약·지공해 농산물을 직거래를 하는 곳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는 80년대 시작된 풀무원 식품이 무농약 농산물 판매의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주 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 인식으로 무농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곳은 중산층 이상이 하는 곳, 가격이 비싼 곳이라는 인식을 받게 하였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생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생협이 추구하는 방향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생협운동의 방향을 이야기 하자면 - 모든 사회운동이 그러하듯 운동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 그 운동이 일반 대중의 욕구에 부응하느냐,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가, 사회 전체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곧 대중의 욕구에 부응한다는 것은 그것이 생명력이며 사회 전반의 발전에 한 몫을 한다는 것이다.

생협운동이 어떤 운동 방향을 가져야만 운동으로서 살아남게 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문제를 세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발전을 보면 각 계층, 계급이 화합과 공존의 논리에서 발전한 것이 아닌 권력이든 금력이든 힘의 논리에 의한 지배와 피지배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정작업에서 지도층의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 사회구조적 모순인 노사간의 갈등구조, 도농간의 갈등구조, 지역간의 갈등 구조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들 수 있다. 이는 현대산업사회가 생산력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먹는 밥, 반찬 등 생존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물과 먹거리와 공기가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심각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지 못하다.

공기만 해도 관악산 위에서 서울을 보면 검은 띠가 둘러진 것을 보게 되는데 우

리는 굴뚝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과 같다. 물을 봐도 김상중 교수팀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세균 규정치를 훨씬 넘어서서 못먹을 물로 발표가 나와 있고 (서울시 수도국에서는 괜찮다는 반박을 하고 있지만 보사부에서는 생수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등 정책부분의 혼재를 나타내고 있다), 산림을 보면 골프장의 예만 보더라도 골프장을 만들려면 산등어리를 잘라내야 하는데 생태계의 단절과 변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골프장에 치는 농약은 맹독성 농약으로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있다. 몇가지 예에서 보듯이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우리 생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셋째, 사회가치관의 문제이다. 산업문명과 함께 발전한 것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가치관이다.

모든 지향하는 바가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바라고 모든 행위의 동인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있는자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 하고, 없는자는 최소한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하려 하며, 경쟁에서 승자가 되려는 것이 행복의 지표인양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세가지 문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각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화학영농의 예를 살펴보자. 화학영농의 문제는 단지 농약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화학영농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소외된 농업정책은 저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진행되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그간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특용작물이나 다수확으로 보상받아야만 했고, 이를 위해 동원된 것이 화학영농이다.

둘째, 화학영농을 하면서 자연생태계 파괴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생태학에서는 농업을 생태계의 한부분으로 볼 만큼 농업은 생태보존 기능이 크다. 농업은 땅을 보존하고 수자원을 보호하고 공기 자체를 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데 화학영농은 농업의 3 조화(땅 속의 미생물과 자연과 사람의 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화학영농은 사회 가치관의 문제와도 결합되어 있다. 화학비료는 자연을 인간 욕구 충족을 위한 물량위주로만 생각한 가치관에서 발명되었으며, 남보다 회귀하고 빨리 먹고 싶다는 소비자의 인식도 작용한다.

화학영농의 예만 보더라도 단지 농약공해 측면 뿐 아니라 세가지 문제가 함께 심층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는 이와 예가 많이 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세가지 문제가 상호작용하여 심화시킨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제까지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대부분을 제도적 개혁에서만 찾아왔다. 이를 통해 변화한 것도 있지만 최근 동구 등의 예를 보더라도 체제와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사회전체를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 체제와 제도의 변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가 병행되어 이제까지 우리를 지배한 문명사회를 새로운 문명으로 바꿔 나아가야만 한다. 새로운 문명이란 생산력 중심의 모든 생산관계와 무한한 생산을 기반으로 무한소비가 개

인, 사회의 풍요로움이라는 가치관에서 생산력 중심의 생산양식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산력으로 바꾸어 내고, 우리를 지배하는 물신 위주의 가치 이념체계에서 벗어나 존재가치가 함께 하고, 더불어 이들을 바탕으로 한 생활양식의 변화가 함께 하는 새로운 문명사회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각자가 선 자리에서 자기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불어 했을 때 우리 사회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진보는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려는 모든 사상과 행동, 이것을 진보로서 받아들여야 하며 자기가 선 자리에서 실천적으로 한 몫을 해야 한다.

즉 생협의 운동방향은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생협이라는 것은 생활인의 자리에서 실천적 대안으로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데 한 몫을 해야 한다.

2. 생협의 영역과 의미

생활협동운동은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소비자로서의 기능으로 공동구매의 행위를 통한 하나의 영역과 생활공동체 운동 영역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생협운동에 대한 정의가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서는 생협을 「생활인들이 공동유대 속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동구매하면서 생활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협동조직이다.」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곧 주체가 생활인, 행위가 생활물자를 공동구매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것은 생활물자를 공동구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영역은

(1) 소비자 운동

소비자운동이라면 많은 사람이 상품 하자 보수처리, 고발을 생각하는 데 이는 소비자운동의 초기단계이며 궁극의 끝은 경제행위의 두축인 생산과 소비를 건강한 소비와 건강한 생산을 통한 건강한 경제건설이다.

소비자운동으로서 공동구매의 의미는 첫째, 건강한 생산을 유도, 창출하는 것이다.

소비가 생산을 끌어내야 하며, 사용가치에 의해 생산이 유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교환가치에 의해 생산이 소비를 유도, 소비자가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휩쓸려 가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 질, 유통시장, 상품정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나오고 참여해서 결정됐을 때 왕인 것이지 지금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갑에서 돈내는 것 이외에는 없다.

정보수단도 모두 생산자에 의해 독점되어 고도로 발달한 대중매체를 통해 눈만 뜨면 먹어라, 입어라, 발라라하는 상표에 대한 환상을 일방적으로 주입받고 있어 상품의 올바른 성분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 예를 들어 라면은 편하고 간편

하고 맛있다는 것만 나오고 공업용 우지를 몇번 정제되어 만들었다는 성분은 어디 한군데도 나오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는 어느 곳에도 없고 유통수단도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된 곳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생산자의 임의대로 소비자는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생산자의 임의대로 따라 가다보니 소비문화가 불건전한 소비, 자연생태계 파괴, 계층간의 위화감만 조성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반생산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불매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공동구매함으로써 건강한 생산을 가능케 해야 한다. 즉 우리가 벌이고 있는 유기농산물 공동구매는 화학영농의 불매와 유기농업을 가능케 하고, 생이랑 등 천연세제의 사용은 합성세제의 불매운동임과 동시에 건강한 생산을 가능케 한 것이다.

둘째,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 농산물은 판매가의 5분의 1이 생산가일 정도도 유통질서가 어지럽다. 이에 생협은 유통단계를 대폭 줄여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사용가치에 입각한 소비행위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이중 소비자운동에서 가장 큰 역할은 건강한 생산을 구매력을 통해 가능케 하는 것이다.

(2) 환경운동

자연파괴의 원인은 생산력 중심의 생산양식이다. 이는 곧 건강한 생산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일조함을 말한다.

여기서는 유기농업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면서 살펴보자.

유기농업이 갖는 의미는 첫째, 자연생태계 보전을 들 수 있다. 유기농업은 땅과 공기와 물을 모두 살려내는 작업인 것이다.

화학영농으로 인해 논둑에 메뚜기, 미꾸라지가 사라졌으며 땅은 산성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사토화 되어 땅 자체의 생산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농약사용은 수장, 공기, 땅 자체의 생명력들을 모두 오염시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업의 환경에 대한 가치평가는 약 27조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만큼 거대한 것이다. 농업은 먹거리 제공자로서, 맑은 물과 맑은 공기 제공자로서 우리 생존의 터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이것이 화학영농으로 손실되어 이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유기농업인 것이다.

둘째, 수입농산물과 경쟁해서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수입농산물의 경쟁에서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도덕성에 호소는 일회성에 그칠 수 밖에 없으며 가격, 양으로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질로서 경쟁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의 건강 측면이다. 화학농업의 안전성은 당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누리며 나타난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고엽제 피해자의 후유증, 골프장 캐티

의 기형아 출산 등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화학영농과 가공식품의 범람에 노출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세대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기농산물과 같은 건강한 생활물자의 공동구매는 자연생태계 보존 운동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운동인 것이다.

(3) 협동운동

협동운동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질서 속에서 민주 시민으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하고 실현하고자 하지만 훈련의 장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생협에서는 공동구매를 하는 단위(5세대-10세대)에서 무슨 물품을 살 것인가의 소비행위에서부터 가격결정, 조합의 운영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스스로 커나가게 된다.

둘째, 협동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의미이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을 생활 속에서 극복하고자 공동구매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간의 일차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익명성이 편리한 우리의 생활모습을 서로의 문을 두드리며 '나'만이 아닌 '우리'의 공동체적인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4) 생활운동영역

소비자협동조합이라 하지 않고 생협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운동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도 운영상 일반 기업과는 다르지만 소비를 강요할 수 있어 소비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건강한 생산품을 공급하는 유통단계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구매단위에서 모인 생활인들이 생활영역의 운동을 펴 나가야만 한다.

생활운동부분은 제도적으로 이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천적으로 생활양식을 바꾸어 나가는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우선 제도적으로 압력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활운동의 영역은 교육, 의료, 노인복지, 탁아 등 다양하다. 이것을 조직된 소비자 단위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해결도 가능하다.

둘째, 실천적으로 생활양식을 바뀌어나가는 부분은 밀가루로 설거지를 할 때 개인적으로 행하면 나만 혼자하는 것 같은 생각, 무슨 도움이 되나하는 의문으로 지속화하기 어렵지만 조직된 단위에서 같이 할 때 개인적 힘이 아니라 사회적 힘으로 힘을 받게 된다. 작은 실천과제로 생활양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생활 실천으로 나가야 한다.

3. 생협운동의 과제

현재 생협운동이 희망차고 좋게 되고 있는가? 좋게 되고 있지만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생산자만 보더라도 소비자가 늘어난 만큼 생산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6년 기간동안 소비자는 한살림의 경우 40여세대에서 현재 7000여세대로, 민우회가 220세대에서 1600세대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소비물량이 늘었는가를 살펴보면 물품공급량을 볼 때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식생활의 서구화로 소비양식의 변화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산지의 큰 변화는 없고 유기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생산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헌신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조합원도 서울 전역이 15,000세대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한 생산지를 수용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힘을 갖기 어렵다.

또한 조합단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상태의 적자, 조합원 확보의 어려움, 경영전문인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협운동의 경험이 적은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또한 과제도 산적되어 있다.

앞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그간의 경험에 의한 몇가지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생협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의 획득과 정책적 뒷받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전국의 약 150개 조직이 임의단체로 있기에 사회적 확산이 어려운 상태이다.

둘째 생협이 왜 필요한가, 생협운동의 발전 방향의 공유 확산이 필요하다. 운동단체마다의 특성 중 통합성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생협운동만큼 대중운동은 없다. 하지만 대중운동에 걸맞는 교육내용, 방법, 기제의 개발이 안되고 있다. 아직까지 활동가중심의 교육방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도의 기제도 팜플렛 등 읽을 거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비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생활운동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할 실천과제의 빈약을 들 수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실천과제는 우유팩 모으기, 분리수거, 일회용 안쓰기 운동, 우리 농산물 열심히 먹기 정도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 생활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실천과제가 나와야지만 힘을 가지고 생활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다.

다섯째, 생협은 지역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야 한다. 지역운동도 대중조직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구매단위가 지역단위로 묶인 조직된 단위를 가지고 있는 생협은 지역운동에 앞장설 수 있다.

민우회에서 준비중인 '바른의정' 촉구 처럼 일상생활 문제 뿐만 아니라 실천영역

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전문 지도 역량이 길러져야 한다. 전문지도 역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생협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활동가 육성과 활동가들 속에서 사업전문가가 길러져야 한다.

일곱째, 생협운동이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겠다고 내걸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 자신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사회에 일조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보론) 대학생협의 기능에 대하여

이제까지 일반 생협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네가지 생협운동의 영역을 대학사회의 특수성에 맞게 올바르게 펼쳐나가는 것은 대학생협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몫일 것이다. 여기서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학생협의 기능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대학생협의 기능은 첫째, 지향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명에 걸맞는 사람의 배출을 들 수 있다. 협동의 가치를 가진 대학인의 배출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대학생도 거대한 소비자군이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이다.

우리 대학가를 둘러보자. 패스트푸드점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우리 자신도 "수입농산물 절대 반대", "우루과이라운드의 문제점은 ..." 라고 말로는 많이 하지만 내가 평소 먹는 음식문화는 짜장면, 라면, 햄버거 등으로 값싸고 편리한 것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자.

우리의 소비행태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실질적인 소비행태와는 괴리감이 있음을 생활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부터 깨 나가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로서 제대로 소비자운동을 해내야 한다.

소비자운동으로 대학생협에서 펼칠 수 있는 몇가지 사업을 살펴보자.

첫째, 조사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패스트푸드점을 조사한다면 판매 문제부터(청량음료의 판매 전략으로 물을 주지 않는 문제 등), 일회용품의 남발로 전국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은 얼마쯤 되는지, 외국으로 나가는 로알티가 얼마나 되는지, 간편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의 조사 과정을 통해 소비자로서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지 말자는 실천의지를 모아낼 수 있다. 이외에 시장조사를 통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기 실태는 어떠한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학생협에서도 힘을 모아낼 수도 있다.

둘째, 취급물품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추파동, 고추파동 등이 났을 때 생협 차원에서 배추 한포기 이상 사기 운동을 펼친다면 구매력을 통해 우리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건강한 생산을 가능케 한다는 소비자운동의 목표에 걸맞는 구매력의 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취급물품을 넓힐 때 물품의 취급원칙이 살아있어야 한다. 생협의 경영을 위해 공산품 등 시중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생협에서는 건강한 생산품만 취급해야 한다. 건강한 생산품만 취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여 구매력을 통한 건강한 생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곧 경쟁력을 획득하는 일이며, 이것이 곧 생활운동이요 환경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생활운동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조합원들을 묶어 세워야 한다. 대학인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내오는 작업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과 산지견학이나 환경상품 생산공장-부림제지, 협성생산공동체 등-을 견학하면서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학인들은 생활인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는 널려있다. 대학생협의 기능인 새로운 지도력군을 생산하고 훈련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